

청년, 도시와 만나다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대니얼에스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5분야 (지역문화활성화) | 구(區)

지역	지자체	분야	구분	우수사례명	페이지
서울	동대문구	5	구	맞춤형 문화예술 도시, 동대문구어 흥하라!	1135
서울	도봉구	5	구	마을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이야기「우리 이야기」	1144
서울	서대문구	5	구	-청년과 문화의 메카, 신촌!-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문화도시 신촌	1152
서울	강서구	5	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HOT PLACE 서울의 중심, 강서에서 문화에 빠지다.	1160
서울	구로구	5	구	- 살아있는 민주주의 체험 문화의 장! - 전국 최초! 구로어린이나라 건국	1169
서울	영등포구	5	구	작은 마을 큰 소통, 신나는 마을문화축제 영등포 마을장터 가는 날	1178
서울	동작구	5	구	지역 어디서나 문화예술활동이 펼쳐지는 작은 예술마을	1186
서울	관악구	5	구	프로듀스 469 -주민프로듀서가 만드는 전국 최대 지식 모임 '관악 독서동아리'-	1194
서울	송파구	5	구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직업진로체험부터 취미동아리활동, 학습과 소통까지 열린 청소년공간)	1202
부산	중구	5	구	전통과 현대의 양날개, 지역 문화 활성화로 문화도시 중구 비상하다 !!	1210
부산	서구	5	구	우리나라 제1호 송도해수욕장의 사계절 관광·명품해수욕장으로 도약	1218
부산	사하구	5	구	문화와 예술이 주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 사하	1224
대구	달서구	5	구	“ 결혼! 저출산 극복의 첫 단추 ”	1232
광주	남구	5	구	우리는 행복해요!!! 오키나와 선율이 흐르는 『음악도시 남구』	1240
대전	유성구	5	구	마을단위 문화예술과 공동체를 키워가는 작은도서관	1248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 례 명	맞춤형 문화예술 도시, 동대문구여 흥하라!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사례요약	☐ 현황 ○ 문화 활동에 대한 불만 : 35.1%(주민) / 47.6%(대학생) ○ 문화 시설에 대한 불만 : 57.9%(주민) / 69.8%(대학생) ○ 문화 활동 및 시설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목표 재설정 필요) ☐ 추진목표 재설정 ○ 수혜자 입장에서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구단위 개방형 행사를 동단위 참여형 행사로 변화 추진 ○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소외계층 해소 ○ 소규모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 추진사업 ○ 동별 우리마을 소규모 문화 행사 추진 - 기존 구단위 위주의 행사에서 동주민센터별 자체적으로 민관이 협력·협약하여 기획부터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 - 2017.7월 현재 3개 주민센터 실시(총 참여인원 2500여명) ⇒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실시 예정 ○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으로 구민들의 문화향유 증진 - 퇴근문화마당(지하철역 등), 나눔문화마당(관내 경로당, 복지관 등), 일상속 문화 마당(하천변 수변무대, 동별 유희 공지 등) - 운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재능기부, 거리예술단 등 방문공연 - 운영내용 : 밴드, 가요, 마술, 연주 등 총 32회 개최 - 문화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편성 및 운영

사례요약	○ 구민 맞춤형 문화행사 추진 -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 뮤지컬(2017.3.25 서울시립대 대강당 2,000명) - 청소년 뮤지컬 공연(2017.6.18. 동대문구민회관 3,000명) - 동대문구 도서관 북페스티벌(2017.6.3. 배봉산야외무대 3,000명) ○ 동대문구만의 대표 문화축제 개발 - 배봉산 해맞이 축제(새해 첫날), 중랑천 봄꽃축제(4월초), 풍년기원 선농대제(4월), 장안동 세계거리춤축제(10월) □ 향후계획 ○ 우리마을 소규모 무대 조성(동별 1개소 이상) - 동별 야외무대를 조성하여 다양한 예술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 실시 □ 기대효과 ○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통한 구민화합 도모 ○ 시기별·연령별·지역별 맞춤형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서비스 만족도 제고 ○ 지역내 문화소외계층 해소에 기여
-------------	--

맞춤형 문화예술 도시, 동대문구여 興하라!

I 추진배경

문 여는 서울이래 동대문구

☐ 동대문구 스토리텔링 용역(관광 종합발전계획) 결과(2016~2017)

○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 지역주민과 대학생 모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0%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경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단위:명,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만족함
지역주민	2 (3.5%)	18 (31.6%)	29 (50.9%)	8 (14.0%)	0 (0.0%)
대학생	21 (20.0%)	29 (27.6%)	48 (45.7%)	7 (6.7%)	0 (0.0%)

○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

- 동대문구 내의 문화시설이 충분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역주민은 57.9%, 대학생은 69.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동대문구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은 결과로, 동대문구의 문화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명,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지역주민	9 (15.8%)	24 (42.1%)	20 (35.1%)	4 (7.0%)	0 (0.0%)
대학생	24 (22.6%)	50 (47.2%)	28 (26.4%)	2 (1.9%)	2 (1.9%)

II 추진방향

문 여는 서울이래 동대문구

☐ 구단위 개방형 행사를 동단위 참여형 행사로 변화 추진

☐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소외계층 해소

☐ 소규모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공연참여기회 확대

1] 우리마을 문화제 개최

○ 기 간 : 2017. 5월 ~ 11월 [7개월간]

○ 장 소 : 동별 선정된 장소

○ 행사주최 : 동 주민센터

※ 제기동, 청량리동, 이문2동은 민간행사추진위 구성

○ 행사내용

▶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

▶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회 장터 운영

※ 장터운영 수익금중 일부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예정(연말)

▶ 도·농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운영

▶ 동 직능단체별 먹거리부스 또는 바자회 등 운영

▶ 마을계획 의제 선정 및 주민참여지원사업 홍보 등

< 동별 추진일정 및 주요행사계획 >

동 명	행사일(예정)	장 소	주요 행사 내용
용 신 동	2017.9월	용 두 공 원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장터운영/체험부스 등
제 기 동	2017.6.11	주 민 센 터 앞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전 농 1 동	2017.10월	전 곡 마 을 마 당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전 농 2 동	2017.10월	배 봉 근 린 공 원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풍선아트/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답십리1동	2017.9월	새 샘 공 원	문화공연/체험부스/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답십리2동	2017.9월	청솔우성@스케이트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장 안 1 동	2017.11월	샛별어리이공원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장 안 2 동	2017.9월	장 안 근 린 공 원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청 량 리 동	2017.7월	세 종대 왕기념관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회 기 동	2017.9월	청 량 초 등 학 교	회기골목축제 연계/버스킹/프리마켓/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휘 경 1 동	2017.9월	주 민 센 터 앞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휘 경 2 동	2017.9월	동네뒷산열린공원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바자회/장터운영 등
이 문 1 동	2017.10월	외 대 앞 역 무 대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이 문 2 동	2017.5.26	신 이 문 역 광 장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먹거리부스/장터운영 등

우리마을 문화제 행사 추진실적(2017.7.13일 현재)

○ 이문2동 - 행복마실 대잔치

- ▶ 일 시 : 2017. 5. 26.(금) 15:00~21:00
- ▶ 장 소 : 신이문역 광장 및 신이문로
- ▶ 참석인원 : 주민 약500여명
- ▶ 주요내용
 - 자매결연지 농산물직거래 및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회 5개 기업 장터 운영
 - 먹거리부스 및 바자회장터 운영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문화 공연
 - 관내 어린이집 재롱잔치
 - 관내 경로당 어르신 실버장기자랑 등



○ 제 기 동 - 한마음 대잔치

- ▶ 일 시 : 2017. 6. 11.(일) 09:30~16:00
- ▶ 장 소 : 주민센터 앞 도로 (교통 통행 제한)
- ▶ 참석인원 : 주민 약1,000여명
- ▶ 주요내용
 - 자매결연지 농산물직거래 및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회 5개 기업 장터 운영
 - 축제 마중물 걷기대회,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
 - 주민 한마음 비빔밥 행사 및 나누기
 - 마을계획단 의제 선정 투표 진행 및 주민참여 지원사업 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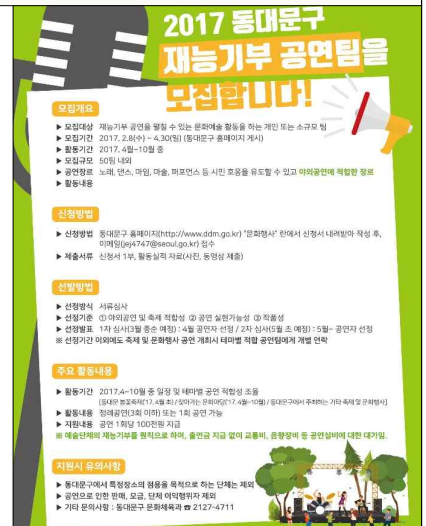
○ 전농2동 - 배봉 어울림 축제

- ▶ 일 시 : 2017. 7. 8.(토) 16:00~
- ▶ 장 소 : 배봉산 근린공원
- ▶ 참석인원 : 주민 약1,000여명
- ▶ 주요내용
 - 시립대학교(전농동 소재) 동아리 축하공연
 - 노래자랑, 우쿠렐레, 우리동네오케스트라 공연
 - 마을총회 및 민관협약 체결
 - 자매결연지 농산물직거래 및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회 5개 기업 장터 운영
 - 동부병원, 숲해설봉사단, 무료팝콘 나눔 부스 운영 등



2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 기 간 : 2017. 5월 ~ 11월 [7개월간]
 - 장 소 : 지하철역, 천변 야외무대, 복지시설 등
 - 대 상 : 지역주민 및 문화취약계층
 - 공연내용 : 가요, 국악, 밴드공연, 댄스, 마술 등 다양한 장르 공연
 - 운영방법 : 재능기부, 市 거리예술단, 전문공연팀에 의한 거리공연 및 문화취약계층 방문 공연
- ※ 재능기부 공연팀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17.2)



1. 퇴근길 문화마당

- ▶ 장 소 : 장한평역사내, 청량리역 광장
- ▶ 공연내용 : 팝페라, 뮤지컬 갈라, 밴드 공연 등으로
지하철역 및 야외무대를 ‘문화공연
명소’로 개발
- ▶ 추진실적 : 총14회 / 약1,000명 관람



2. 나눔 문화마당

- ▶ 장 소 : 지역어린이센터, 관내 경로당, 복지관 등
- ▶ 공연내용 : 마술, 통기타 연주, 트로트 공연 등으로
연령별·계층별 맞춤공연 시행
- ▶ 추진실적 : 총7회 / 약250명 관람



3. 일상 속 문화마당

- ▶ 장 소 : 중랑천 벚꽃길, 정릉천 수변무대, 동별 무대
- ▶ 공연내용 : 전통 악기, 오카리나 연주, 밴드 공연 등 재능기부 공연팀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예술활동 기회 제공
- ▶ 추진실적 : 총11회 / 약500명 관람



③ 구민맞춤형 문화행사 추진

1.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 뮤지컬

- ▶ 일 시 : 2017. 3. 25.
- ▶ 장 소 : 서울시립대 강당
- ▶ 참여인원 : 2,000명
- ▶ 내 용
 - 마임, 마술, 춤, 노래, 연주 등 다채로운 클라우닝 쇼와 드라마의 조화를 통한 감동과 가족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뮤지컬



2. 청소년 뮤지컬 공연

- ▶ 일 시 : 2017. 6. 18. ~ 6.20.
- ▶ 장 소 : 동대문구민회관
- ▶ 참여인원 : 약 3,000명
- ▶ 내 용
 - 청소년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 뮤지컬



3. 2017 동대문구 도서관 북페스티벌

- ▶ 일 시 : 2017. 6. 3.
- ▶ 장 소 : 배봉산 야외무대 일대
- ▶ 슬 로 건 : 책을 통해 숲을 살리는 도서관이야기
- ▶ 참여도서관 : 동대문구 관내 32개 도서관
- ▶ 참여인원 : 3,000명
- ▶ 내 용
 - 오프닝 전통예술공연, 숲속동화구연
 - 책 교환장터 “두껍아, 헌책 줄게! 새책다오~” 운영
 - 구민 북토크 콘서트 『3분, 독서 말하는대로』 진행
 - 내 인생의 책 등 다양한 주제로 책 이야기 및 어쿠스틱 추임새 지원 등 소통행사 진행



④ 동대문구 대표축제 활성화 - Story가 있는 문화축제 만들기

1. 배봉산 해맞이 축제 - 희망과 나눔이 있는 축제

- ▶ 일 시 : 세해첫날
 - ▶ 장 소 : 배봉산 정상
 - ▶ 참여인원 : 약 5,000명
 - ▶ 내 용
 - 새해기념 타징, 희망풍선 날리기
 - 포토존 행사, 캘리그래피를 통한 덕담써주기
 - 복떡국 나눔 행사 - 약5,000인분 준비
- ※ 전농2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



2. 봄꽃 축제 - 소통과 나눔이 있는 축제

- ▶ 일 시 : 4월 초
 - ▶ 장 소 : 중랑천 벚꽃길, 중랑천제1체육공원
 - ▶ 참여인원 : 약 30,000명
 - ▶ 내 용
 - 사생대회, 달빛 벚꽃길 걷기, 야외영화제, 마임, 버스킹 공연 등
 - 체험행사 부스 공개모집(참가비 무료) 운영
- ※ 캔들, 드라이플라워, 원예테라피, 풍선아트 등
- 먹거리부스: 동별1개소, 장터분위기로 자율적 판매방식 운영
- ※ 판매 수익금 대부분 저소득층 복지기금 사용



3. 선농대제 -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축제

- ▶ 일 시 : 4월 하순
- ▶ 장 소 : 선농단 (제기동 소재)
- ▶ 참여인원 : 약 3,000명
- ▶ 내 용 : 선농봉행 및 설렁탕 재현 나눔행사 등



4. 세계거리 춤축제 - 꿈과 끼가 넘치는 세계인의 축제

- ▶ 일 시 : 10월
- ▶ 장 소 : 장안동 사거리
- ▶ 참여인원 : 약 500,000명
- ▶ 내 용
 - 거리퍼레이드, 댄스경연대회, 열린음악회
 - 세계 거리춤 공연 등



IV 향 후 계 획

☑️ 우리마을 소규모 무대 조성

○ 사업목적

- 타 구에 비하여 문화공연 시설이 열악한 우리구 실정을 감안하여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조성, 주민들의 문화공연 참여 기회 제공 및 관람을 통한 휴식·힐링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하반기중
- 대 상 : 동별 1개소
- 시설종류 : 야외무대 (데크, 캐노피, 조명 등)

☑️ 동별 무대 조성 내역

동 명	무대조성지	기존 무대유무	신규 무대규모	비 고
용 신 동	용 두 공 원	○		기존무대 활용
제 기 동	정릉천 수변		데크	치수과 추진완료
전 능 1 동	전곡마을마당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행사 추진-구의원, 지역주민		
전 능 2 동	배봉산 근린공원	○		기존무대 활용
답 십 리 1 동	새샘근린공원		데크, 캐노피, 조명	
답 십 리 2 동	쉼터어린이공원		데크, 캐노피, 조명	
장 안 1 동	장평근린공원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행사 추진-구의원, 지역주민		
장 안 2 동	장안근린공원		데크, 캐노피, 조명	
청 량 리 동	청량리 마을마당		데크	
회 기 동	-		-	무대조성 장소 없음
휘 경 1 동	중앙선 체육공원		데크, 캐노피, 조명	
휘 경 2 동	동네뿔산열린공원		데크, 캐노피, 조명	
이 문 1 동	외대역 3번출구		데크, 캐노피, 조명	
이 문 2 동	신이문 1번출구		데크, 캐노피, 조명	
합 계	10개소	2	8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 * 이 소개서는 주민께서 직접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 례 명	마을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사례요약	1. 사업개요 ○ 대 상 지 : 방학3동 주민센터(자치회관)를 중심으로 방학3동 전역으로 확장 ○ 사업기간 : 2015. 7. ~ 현재 ○ 사업내용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을 일컬어 우리는 지역문화라 이야기 함. 도봉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문화가 만들어지고 이웃 서로의 공유를 통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자치회관)의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리노베이션(renovation)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스스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마을에 꼭 맞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고자 함. - 주민 자치력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이 공간의 주민자율운영을 도모하고 이 모든 과정은 행정의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 마을 커뮤니티공간의 주민 직접자율운영은 이후 다양한 지역문화를 양산하고 마을문화 안착의 토대가 됨. - ‘은행나무 마을방송국 개국’, ‘행복학습센터의 설립’, ‘로컬단위 사회적경제의 실천 장 운영’, 이동청소년의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잇는 ‘민학관 협의체 설립’, 전입세대 주민을 주민이 직접 맞이하는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협치를 통한 마을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지역문화 활성화 우수사례 ○ <u>협치를 통한 지역문화 공간의 설립</u> :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민센터 공무원과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그리고 공유공간 기획자 및 사회적 건축가가 함께 실질적인 논의 및 연수를 통해 공간을 완성한 사례임. ○ <u>공간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민직접자율운영 모델 실현</u> : 공간의 구성부터 운영까지 주민 자치력을 통해 완성한 마을 직접민주주의 실천사례임. ○ <u>과정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 촉발</u> : 주민센터 공무원과 주민이 서로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되고 사업 참여주민 이외에 이용주민의 의식전환의 발판이 마련 된 사례임. ○ <u>협치의 4단계 완성</u> : ①주민과 행정이 함께 모여서 ②논의하고 ③해결을 위해 실행하고 ④평가하여 책임지는 4단계 완성.

방학3동 마을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 갈 미래의 대한민국 이야기

“ 우리는 한 여름에 만나 겨울이 오기까지 매주, 매월 만나 이야기 하고 또 이야기 했다.

주제는 오롯이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이었고, 이곳을 주민이 직접 자율운영 할 수 있다면 참여와 협치로 마을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의 이야기였다.

2016년 2월 드디어 마을활력소 ‘은행나무’가 개소했다. 2017년 현재 주민들의 역량으로 상시 운영되고 있는 오늘에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동안의 눈물 나는, 그리고 행복했던 과정 모두를 말이다.”

1. 서론

■ 낯선 공간·낯선 사람·낯선 이야기의 시작

“나를 위한 마을, 그리고 이웃을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간이 처음 든 예감처럼 즐겁게 채워졌다”

2015년 7월 민·관참여단이 되었다. 나와 같은 주민 20여명 남짓, 그리고 주민센터 동장님과 공무원들 사회적건축가와 공유공간기획자라는 전문가들 30여명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20대 젊은 청년부터 60대 시니어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이는 공유공간기획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청년이었다. 주민센터에 마을에 꼭 필요한 공동체 공유공간을 조성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 스스로를 민·관참여단이라고 부르겠다고 한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 낯선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왠지 앞으로의 시간이 재미있게 진행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총 24차례의 공유공간기획 워크숍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마을공동체 모임의 활동가, 공동육아 모임의 엄마들, 사회복지분야의 워커 그리고 실내·외 건축가, 평범한 주부와 교직에서 퇴직한 시니어까지 면면도 다양한 주민들은 주민센터를 탐방하고 필요한 공간에 대한 앙케이트를 하는 등 24차례의 공유공간 기획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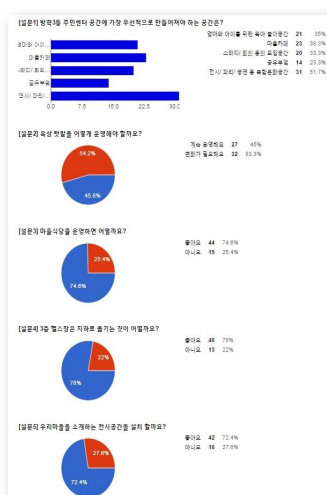
여럿이 시간을 맞추어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럿이 책임을 갖고 모여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나를 위한 마을 그리고 이웃을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간이 처음 든 예감처럼 즐겁게 채워졌다.

“자~벽에 달려 보이시죠? 월요일 저녁 시간에 못 오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절대 못 오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럼 두 분만 손들어주신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마을에 꼭 맞는 공유공간의 필요를 발견하다

“우리는 설문지를 제작하여 가까운 지인들부터 마을 이웃들까지 점진적으로 전했다. 또 마을 이곳저곳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직접 찾아 스티커 설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 표본크기 : '이웃' / ■ 조사방법 : 이웃에서 이웃에게로 / ■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p

24차례의 워크숍은 1분기 :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간을 발견하고 사회적건축가에게 전하는 과정, 2분기 : 공유공간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공간 기획자와 공유, 3분기 : 자율운영의 가치에 동의하는 과정과 자율운영 주체를 설립하는 과정 마지막 4분기 : 실제 자율운영 주체가 구성되어 운영규정을 세우고 차근차근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채워졌다.

더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 우리는 설문지를 제작하여 가까운 지인들부터 마을 이웃들까지 점진적으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 마을 이곳저곳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직접 찾아 스티커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주민들의 필요는 아이부터 시니어까지 언제든지 찾아와

‘차 한 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 /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가 열리는 공간 / 수유기의 엄마와 아이가 편하게 들러 수유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 / 아이들이 안전하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 /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나눔 공간’ 등을 이곳에 만드는 것이었다.

■ 평범했던 주민, 공동체 공유공간의 주인이 되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극복하는 사이 주민센터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자치회관인 이곳에 새로운 기능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 **자치회관의 원주인인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자치회관 운영 권한을 평화롭게 조율해야 하는 과정이다. 민·관참여단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음으로 서로 마주 앉았다. 무거운 공기를 깨고 주민자치위원장의 말이 이어졌다.



‘은행나무’ 개소식
2016. 2. 3.

“자치회관이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면, 매우 반가운 일이에요!”

“이곳을 자율운영 한다면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운영진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원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운영지기
2016. 2. 3.

절로 박수가 이어졌다.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력소분과를 신설하고 운영진 대표는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력소분과 분과장이 되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 중 희망자는 마을활력소 운영진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중재의 역할을 하기 위한 활력소 운영의원회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과장, 방학3동장, 부서담당자와 운영진 대표 및 희망자로 구성).

이렇게 19명의 운영진과 주민봉사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우리 마을에 꼭 맞는

공동체 공간 **은행나무**의 주인이 되었다.

■ 방학천과 중랑천이 만나 한강을 넘어 큰바다로 향하다

은행나무는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2,2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한다

2016년 2월 드디어 마을활력소 ‘은행나무’가 마을에 개소했다. 이름도 은행나무로 정했다. 방학3동의 상징인 은행나무와 중랑천을 만나 한강에 다다르는 방학천의 시작이 희망차길 바라는 이름이다. 주민의 필요를 채운 공간이 이제 마을에 탄생했다.



공간 1_어울터



공간 2_은행나무 갤러리



공간 3_테라스



공간 4_놀봄

술마루(테라스), 어울터(라운지), 채움1,2(세미나실), 나눔부엌(공유부엌), 놀봄(유아·아동 돌봄 공간/수유공간), 은행나무 갤러리(전시공간)로 이루어진 공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2,2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공동체 공간을 연구하는 한 기관은 은행나무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전한다

“ 은행나무는 주민들로만 이루어진 자율운영진에 의해 상시 운영되고 있는 우수사례이다 ”

“ 은행나무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수평적 파트너십과 평화로운 관계 맺기에 성공한 우수사례이다 ”

“ 은행나무는 이곳을 운영하는 주체인 운영지기들의 역량이 매우 고르게 높은 우수사례이다 ”

“ 은행나무는 공간의 운영을 넘어 지역문화의 변화를 촉발한 우수사례이다 ”

■ 전시행정, 탁상공론이 전부라 여겨지던 공무원과 늘 민원만 재기하던 미운 주민의 하모니

공무원과 주민이 수차례 만나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가능 할까?

주민에게 행정의 공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까?

주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면 공무원의 업무량만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

이용 주민역시 공동체 공유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곳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2016년 2월 마을활력소를 개소할 당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대와 바람 그리고 평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마을에 잘 맞는 공동체 공유공간의 주민자율운영’ 속에 숨은 협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변화의 가치실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두 꿈꾸듯 기대가 이어 졌다.

누군가는 이번 마을활력소 사업 역시 전시행정의 하나일 거다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현장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라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되기도 하였다. 한배를 탔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이 바라보는 주민은 늘 책임보다는 요구하는 것에 익숙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떨치기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우려가 더 컸던 이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력소 사업은 **시간의 걸을 늘리며 행정과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 온 마을에 듣기에 좋은 하모니를 만들고 있다.**



3. 결론

■ 하루 아침에 똑딱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하루아침에 똑딱 만들어진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가 아니다.** 주민 서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복지생태계를 복원하는 **관계중심의 공유공간을 만들어 이곳을 주민과 행정이 힘을 함께하여 운영하면서 가지게 된 우리 마을의 귀한 변화이다**



①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개국 기념 공개방송

생생한 마을 소식을 전국으로 송출하고 있는 주민들. 마을미디어 운영주체(PD, MC, 리포터)를 양성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팟빵(팟캐스트)에 업로드도 한다



② 행복학습센터 직장인을 위한 와인 강좌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은행나루’의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직장인을 위한 저녁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7년 현재 은행나무에는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❶ 은행나무 마을방송국이 이곳에서 개국되어 생생한 마을소식을 온 마을에, 그리고 전국에 전파하고, ❷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형을 제안한 행복학습센터가 건립되어 직장인 등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재즈, 와인, 커피, 명리학 등 새로운 강좌를 열고 있다. 또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❸ 마을 수공예 작가들의 프리마켓인 ‘수제Bee 프리마켓’이 주민센터에서 열려 주민들과 함께하는 로컬 단위 사회적경제의 장이 펼쳐진다. 지역문화 활성화의 지속가능을 위해 마을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❹ 혁신교육마을학교가 ‘쌍방소통교육공동체(민학관 교육협의체)’의 주체로 운영되어 연극, 팟캐스트, 프랑스 자수, 마을알기 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❺ 전입세대를 위한 마을여행을 주민이 운영하는 등 주민의 필요로 시작 된 지역문화가 주민의 손으로 공공성 있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 마을에는 김수영문학관과 원당샘공원, 연산군묘와 은행나무, 정의공주묘역과 전형필 옛집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워요! 아동·청소년과 우리 마을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역사문화길의 시작이 되는 발바닥공원에 이 길을 알리는 상징물을 만들어 볼까요?”,

“방학천 옹벽에 재능 기부를 통한 단청부조 벽화를 만들어요.”,

“무엇보다 마을지도를 만들어 곳곳에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좋겠어요.”



❸ 수제Bee 프리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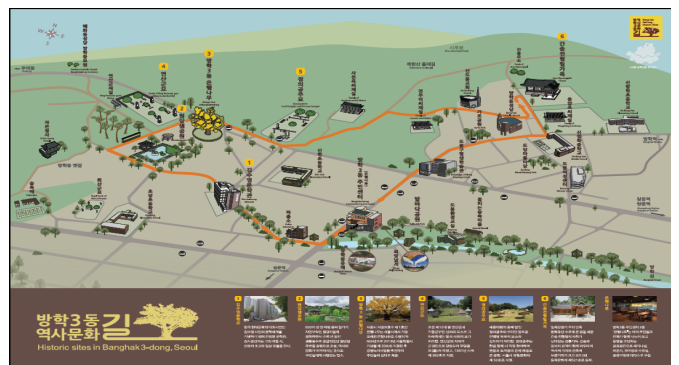
마을 수공예작가들의 연합 판로를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장이자 우리 마을의 축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방학 3동으로 놀러오세요



❹ 혁신교육사업 ‘걸으면서 배우는 마을여행’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연계. 마을과 민·관·학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전인활동. 우리 마을 사랑할 수 밖에 없겠죠?



❺ 희망동 마을여행 : 역사문화길 지도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생활자원으로 흡수한 사례.

마을의 역사자원과 편의시설을 잇는 마을 여행을 마을주민이 직접 가이드합니다



특히 전입세대 및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여행’은 도봉구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을 통해 완성된 사례이다. 도봉구의 8개의 역사문화자원 중 6개의 자원을 하나로 묶는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은 주민의 필요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조성 되었다.

주민의 필요가 일방적으로 행정에게 전하는 숙제가 되지는 않았다. 주민센터 공무원, 도봉구청 문화체육과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필요를 공유한 주민들이 여러 차례 모여 방법을 함께 고민 했다.

다양한 이전 우수사례를 직접 찾아보고, 재능기부를 해줄 마을의 작가를 찾아 함께 할 것을 권하고, 우리의 바람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세대 시각디자인교수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등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도봉구 역사문화길이 조성되어 ‘마을여행’의 코스 뿐만 아니라 마을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 되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여주는 자랑거리가 되었다.

■ 주민역량의 공공성 전환과 확장

우리는 지금 **주민 스스로 이웃과 함께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한다**
 행정은 **지속가능을 위해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방학3동 고유의 생활양식이며, 우리의 미래라고 확신한다**

은행나무부터 전입세대를 위한 마을여행까지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본인의 필요와 여가가 지방자치통해 충족되는 행정서비스 혜택이라 하겠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행정서비스의 구성방식이 예전과 완전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용자 개인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역량이 결합해 운영된 사례인 것이다. **주민 역량의 공공성 전환! 다르게 말해 주민자치와 협치를 통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의 공간에 만들어진 공유공간을 주민의 역량으로 운영하고 마을방송과 다양한 인문 평생학습 강좌, 학교 밖 교육과 로컬단위 사회적경제의 장 등의 주민 여가활동이 행정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주민에 의해·주민을 위한·주민의 혜택이 선순환하며 자생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혁신이라 생각 된다.**

일련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같은 목표를 가진 주민과 공무원이 처음으로 마주한 날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목표를 가진 것이 맞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주민을 위한다는 말이 주민에게 곱지 않게 들리기도 했고, 행정의 공무원도 이전의 경험이 주민의 요구가 민원으로만 여겨지기도 했다. 주민 서로의 역량을 맞추는 것 또한 만만치 않았다.

조금씩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고 맞춰가며 도봉구의 협치는 성숙하고 있다. 우리가 정한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봉구만의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행정은 맞잡은 손을 힘껏 짓고 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 례 명	-청년과 문화의 메카, 신촌!-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문화도시 신촌
분 야	5분야 -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사람이 모이는 문화교육 서대문 -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
사례요약	☐ 추진배경 ○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 인근지역 공공 공간의 부재 및 낮은 접근성으로 청년·문화예술인·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수요 증대 ☐ 사업내용 1.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공간 조성 - 창작놀이센터 건립 ○ 이용자에 의해 공간이 정의되는 가변형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실험과 접목이 가능 - 미니콘서트, 청년예술제, 공공아카데미 등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 ○ 청년예술인, 대학생, 지역청년 등 민간주도에 의한 운영시스템 도입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사업의 전 추진단계에 주도적 역할 - 창작놀이센터 공동운영단 발족 : 창작놀이센터 기획·프로그래밍 및 공동운영 2. 문화로 채우는 신촌 연세로 - 365일 문화놀이터 ○ 1년 연중 거리에서 펼쳐지는 문화마당 - 도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정기적인 버스킹, 클래식공연 등 제공 ○ 광장 중심의 대규모 문화 어울림 축제 - 지역의 남녀노소, 외국인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의 장 마련    ☐ 주요성과 ○ 새로운 공간 문화 재생의 성공사례 구축 - 청년, 문화,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공간으로서 발판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주간 대표 축제 선정 : 국비 120백만원 확보 ○ 상인과 예술가의 협업과 공생, 관광객들의 소통이 활기찬 광장문화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청년과 문화의 메카, 신촌! -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문화도시 신촌 조성

I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 임대료 상승에 따른 문화예술인들의 타 지역 이전으로 소비중심의 신촌 브랜드의 이미지 변화 필요
 - 인근지역 공공 공간의 부재 및 낮은 접근성으로 청년·문화예술인·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수요 증대
- ⇒ 보행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의 공간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

민선6기 핵심추진분야

사람이 모이는 문화교육 서대문 -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

□ 추진방향

신촌 문화 실태	→	추진목표
일회성의 공연·축제	축제의 연속성 강화	신촌 브랜드 발굴 및 통합 기존 축제의 성격과 공간 연계 신촌 브랜드 창출
대학문화 중심지로서의 정체성 상실	청년과 주민이 지역에 머물수 있도록 유도	청년-지역 간 연계 강화 지역내 청년들을 위한 공간마련 청년-지역의 자원 공유
공공공간·문화시설의 부족 소비위주의 거리	다양한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 인프라 강화 목적보행이 가능한 공간 조성

II

사업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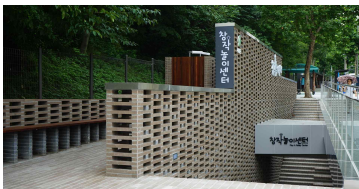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공간 조성 - 창작놀이센터 건립

사업 추진과정

- ☐ 창작놀이센터 사업계획 수립 2015. 1.
- ☐ 다양한 의견수렴 2015. 3.~ 10.
-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2015. 4. ~ 7.
- ☐ 창작놀이센터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시행 2015. 10. ~ 2016. 7.
- ☐ 창작놀이센터 별칭 공모 및 시민 현장투표 2016. 2. ~ 3.
- ☐ 창작놀이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회의 2016. 6. ~ 7.
 - 구성 : 문화예술단체, 지역활동가, 대학생 등
- ☐ 창작놀이센터 공동운영단 발족 2016. 7.
 - 문화예술단체, 학생, 지역활동가 등 6개 단체
- ☐ 창작놀이센터 개소 2016. 7.

추진내용 및 성과

- ☐ 주변환경 및 이용자의 접근성 고려한 공간 마련
 - 북측 출입구에 인접한 가로정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설 뒤편 **녹지공간 마련**
 - 이용자의 접근성 및 **보행자를 배려**한 지상 돌출물의 최소화 (**기존의 캐노피 철거**), **보도 폭 확장**



- ☐ 오픈·가변형 공간으로 이용자가 공간을 정의
 - 소공연장(다목적홀), 세미나실, 연습실, 창업카페 등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 기능이 변화 (**다양한 콘텐츠의 실험과 접목이 가능**)

- 폴딩도어를 통해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되, 전체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또는 개별공간으로 활용 가능



공연장



연습실



세미나실



창업카페

□ 지역 청년활동가가 주도하는 운영방식 도입

- 관 주도 방식에서 탈피, **청년활동가**의 주도 아래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방식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지역주민, 문화예술단체, 대학생, 구청

- 사업추진 단계부터 공간설계, 운영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 모든 과정에 청년예술가, 지역주민, 전문가, 대학생 등과의 **협업체제**로 추진

● <창작놀이센터 공동운영단>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문화예술단체, 지역활동가, 대학생 (6개 단체)



- 청년예술가네트워크, 한국버스킹협동조합,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 서울거리아티스트협동조합, 연세대 총학생회, 서대문소상공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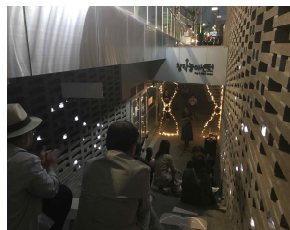
◀ 공동운영단 발대식(2016.7.26.)



- 자체 생산동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간 운영의 주체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공동운영단 포럼



청년예술가네트워크



서울거리아티스트협동조합



연세대학교(오픈캠퍼스)

- 창작놀이센터의 **운영방향, 사업실행**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걸친 모든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의사결정, 사업 시행** (카카오톡 대화방 운영 및 월 2회 정기 회의)
- 공동운영단이 센터의 프로그램 및 관리 운영을 **순번제로 참여함**으로써 **공공의 참여확대 및 행정부담 최소화**

□ 주요성과

프로그램 운영 : 514회 (2016.7.26.~2017.6.30.)

- 문화예술콘텐츠 : 132회 (미니콘서트, 상인마을학교, 청년예술제 등)
- 컨퍼런스·세미나 : 265회 (창작기획회의, 청년포럼, 오픈캠퍼스 등)
- 공공 아카데미 : 14회 (도시재생·관광·소상공인 교육 등 기타)
- 창업 멘토링 : 103회 (창업교육, 네트워킹데이, 스타트업기업 박람회 등)

● 새로운 공간문화재생의 성공사례 구축

- 관 주도방식이 아닌, **문화예술인, 학생 등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방식**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지속적인 오픈형 복합문화공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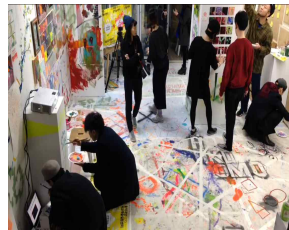
● 청년, 문화, 그리고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발판 마련



청년,피우다
("잘 될거야")



소셜 아트 프로젝트
("감각의 기억")



관객가담전("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지역팟캐스트
(가재울라디오)

● 2016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상생협력] "최우수" 선정 (2016. 11. 2.)

● 언론보도 : 총 92건 (지면·인터넷, 기획보도 등)



파이낸셜뉴스(2016.12.6.)



아시안뉴스통신(2016. 7. 18.)

● 외부 기관 방문 : 총 18기관, 공공디자인 개선 및 주민참여에 의한 운영등 우수사례 전파

- 미국 에덴스시, 중국 해전구, 핀란드 알토대학교,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등
- 워싱턴대·서울대, 서울연구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흥시·용인시·원주시·충주시, 대구시 등



미국 에덴스시('16.10.10)



국토연구원('16.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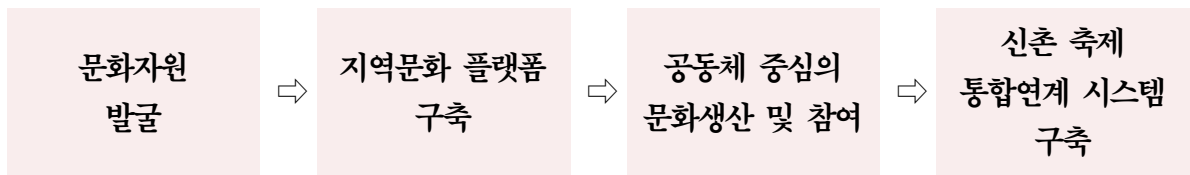


용인시청('17.4.25)

추진내용 및 성과

□ 민·관 축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지역문화 플랫폼 구축

- 대학·상인·기업·대사관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신촌 지역 축제브랜드의 발굴 및 통합



□ 1년 연중 거리에서 펼쳐지는 문화마당

- 도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정기적인 버스킹, 클래식공연 등 제공
- 관내 학생, 아티스트 등 지역자원과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확충



클래식콘서트



달려라피아노



땡큐콘서트



대학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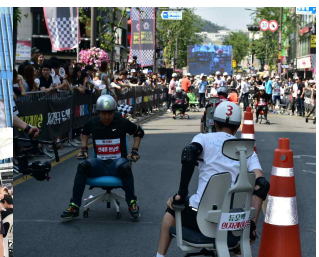
버스킹공연



댄스배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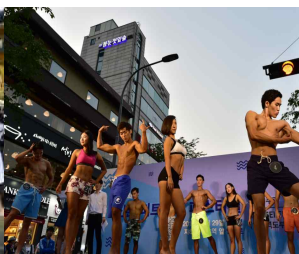
코스프레컬렉션



의자레이싱



싱가포르국경일
기념연주회



신촌피트니스페스티벌



대학연합패션쇼



대학생활박람회
(UnivExpo Seoul)

□ 광장 중심의 대규모 문화 어울림 축제

- 봄·여름·가을·겨울을 대표하는 시즌축제로 신촌만의 킬러콘텐츠 개발
- 기업, 지역주민 등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개발
- 지역의 남녀노소, 외국인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



신촌왈츠축제(봄) 신촌물총축제(여름) 윤동주죽모콘서트(가을) 신촌첫눈에 반하다(겨울)



신촌맥주축제 김현식가요제 신촌 뷰티페스티벌 신촌패션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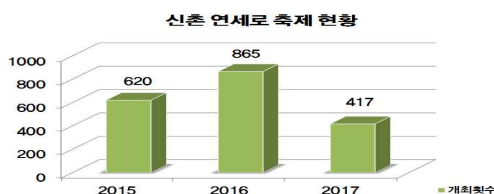


프랑스 거리음악축제 한일 축제 한마당 그레이트브리튼 페스티벌 글로벌페스타

□ 주요성과

-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주간 대표 축제 선정 : 국비 120백만원 확보
- 신촌 연세로 유동인구 증가 등 활성화
 - 주말 연세로 공연·행사 증가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유입효과
 - 상인과 예술가의 협업과 공생, 관광객들의 소통이 활기찬 광장문화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17.6.30. 현재



● **언론보도 : 총 549건 (지면 · 인터넷, 기획보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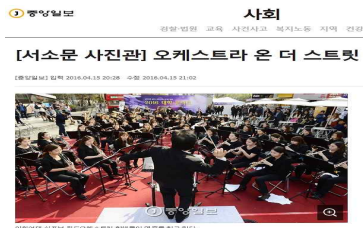
2015.7.18. (KBS)



2015.10.1. (SBS)



2015.10.17. (연합뉴스)



2016.4.15.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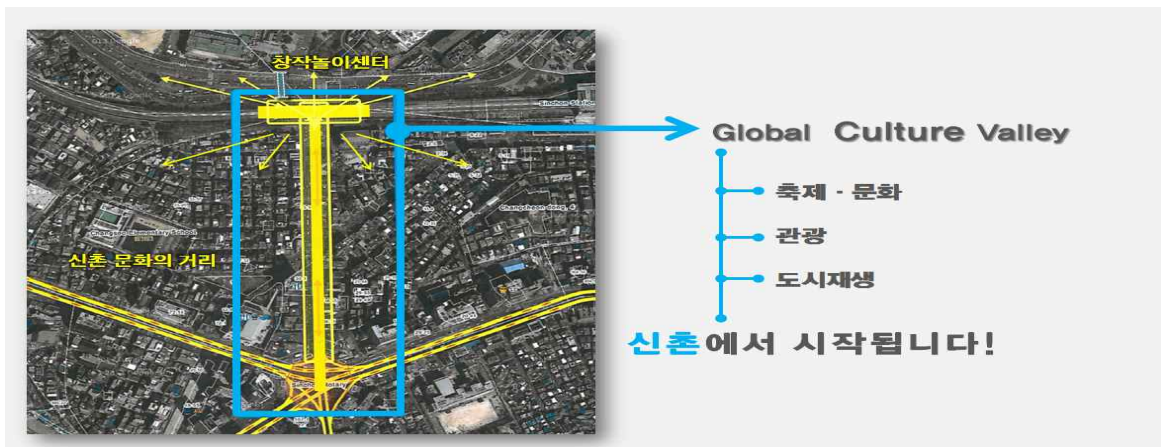
2016.5.23.(연합뉴스)



2017.6.29.(KBS)

III 향후 계획

- 다양한 실험을 통한 창작놀이센터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전략으로 킬러콘텐츠 발굴
 - 공동운영단 소속 단체 고유 프로그램 외에 공동협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창작놀이센터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 발굴
- 민간협력 확대를 통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신촌의 문화예술생태계 통합 커뮤니티 허브 구축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
 -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가군 발굴 및 안정적 창작지원 플랫폼 구축
- 연세로 차없는 거리 전환에 따른 문화 · 관광 · 도시재생사업의 허브로 위상강화
 - 청년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관광컨텐츠 확대 및 경제적 자생력 확보
 -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문화 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기여 및 지역공동체 회복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 례 명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HOT PLACE 서울의 중심, 강서에서 문화에 빠지다.	
분 야	() : 1분야 - 사회적경제 () : 2분야 - 도시재생 () : 3분야 - 청년문제 해소 () : 4분야 - 참여예산제 (✓) : 5분야 - 지역문화활성화	
사례요약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며, 주민주도의 자생적 문화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사계절 문화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문화도시의 기반 조성	
	I.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 <u>허준과 동의보감 활용한 한방건강 축제로 허준축제 정립</u> • 국내 최초 한의학 전문박물관 「허준박물관」 운영(2005.3.) • 허준의 출생지인 가양동에 「허준 테마거리」 조성(2014.4) ※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2009.7.), 국보 등재(2015.6.) • 주민 체험형 한방 건강(웰빙)건강문화 축제로 허준축제 차별화	
	▶ <u>검재 정선의 문화적 유산(진경산수)의 계승·발전</u> • 검재정선미술관(2009), 검재문화예술제(2015)를 통한 검재의 문화유산 계승	
	▶ <u>어린이동화축제를 강서의 대표 문화컨텐츠로 적극 육성</u> •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연계하여 강서의 대표 문화 컨텐츠로 정립	
	II. 지역의 문화 기반(인프라) 확충	
	▶ <u>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허브)시설 건립·운영</u> • 강서구민회관, 강서문화센터,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문화예술창작공간 등 확충	
	▶ <u>도서관을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육성</u> • 구립도서관(8개소), 작은도서관(26개소)을 지역문화 사랑방으로 정착	
	▶ <u>스스로 찾아오는 고품격 문화휴양 시설 유치</u> • 서울식물원(2018 개장), 국립항공박물관(2019 개장), LG아트센터(2020 개장)	
	III. 풀뿌리 지역문화 활성화	
▶ <u>자생적 지역축제(지역특성화축제) 육성</u> •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20개동 마을축제, 허수아비축제, 대보름 축제 등 • 장애인, 다문화,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 제고		
▶ <u>역사문화 자원·전통 보존활동 지원</u> • 양천향교 석전제, 다례제, 양천고성지 체험활동, 역사사 등		
▶ <u>주민의 문화접근성 제고</u> • 구립극단 「비상」, 구립합창단 「여보세요」, 서울시 연계 공연 등 활성화		
IV. 향후 발전방향		
▶ <u>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 컨텐츠 개발</u> • 스스로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컨텐츠 확보 - 고도제한 완화, 마곡지구 개발, 의료관광 특구 활성화와 연계한 항공박람회(에어쇼), 의료관광축제 등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 개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HOT PLACE** 서울의 중심, 강서에서 문화에 빠지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며, 주민주도의 자생적 문화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사계절 문화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문화도시의 기반 조성

II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1 허준과 동의보감을 활용한 한방건강 축제로 허준축제 정립

허준과 동의보감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기반으로 축제 수요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차별화된 웰빙 건강문화축제로 허준축제를 발전시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정착

□ 추진방향

- 허준선생의 애민정신과 **동의보감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구성

허준[許浚](1539~1615)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서 출생하였음. 30년 이상 의원 어의로 활동하면서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비롯한 8종의 의학서적 집필하여 동의(東醫: 한국의학) 전통을 세웠음.

동의보감[東醫寶鑑] 구암 허준이 편찬한 세계 최초의 가정의학서로 2013년에 출간 400년을 맞음. 우리 산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중심으로 기술한 가정의학서. 세계문화유산 지정(2009), 국보 제319 지정(2015)

- **축제의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주민 쌍방향 축제로 정착**
- **전통의학와 현대의학이 공존하는 건강 융합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콘텐츠의 독창성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매년 10월 중[2017. 10. 13.(금) ~ 15.(일)]
- 장 소 : 구암근린공원, 허준박물관, 양천로55길 등
- 주최/주관/후원 : 강서구/강서문화원/강서구의회

□ 추진내용

- 사전 프로그램 : 허준유등, 허준 테마등 점등, 길놀이, 독립영화제 등
- 주(主)무대 프로그램 : 개막식, 문화공연, 허준뮤지컬, 허준가요제 등
- 부(副)무대 프로그램 : 지역예술인(국악, 무용), 학교 재능기부 공연 등
- **주제 프로그램 : 허준, 동의보감, 한의학 체험 관련 주제관 운영**
 - 허준관, 동의보감관, 해민관(한방 침, 뜸 체험관), 건강체험관(건강상담, 사상체질진단, 의료특구 건강체험), 약초체험관 등
- 부대·연계 프로그램
 - 허준축제 성공 지원제, 어린이 놀이마당, 허준 문인화 채색, 허준 테마갤러리, 직거래장터 등

□ 그간성과

- **제1회 허준축제(1999) ~ 제17회 허준축제(2016)**
- **2014년도 대한민국 우수지역축제 선정(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

			
허준축제 포스터	허준축제 개막식(2017)	허준박물관(2005)	허준테마거리(2014)
제17회 허준축제	광해군 임금 행렬	한국 최초의 한의학 박물관	허준/동의보감 테마 거리 (총연장 310m)

2 검재정선의 문화적 유산 계승·발전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선의 진경산수를 계승·발전하고 **검재 정선을 지역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정립**

□ 추진방향

○ 지역의 예술인 및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전국단위의 문화예술제로 정착

-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행사 설계

정선[鄭敼](1676 ~ 1759)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파화법(謙齋派畫法)이라 할 수 있는 진경(실경) 산수의 흐름을 정립함. 1740년에서 1745년까지 양천(강서)의 현령을 지냈으며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들 대부분이 창작됨.



- 겸재문화예술제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통해 **강서구의 문화브랜드 정체성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5월 중
- 사업규모 : 전국단위 예술제
- 사업내용 : 미술제, 음악제, 학술제 등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과 함께 예술제 운영**

□ 추진내용

- **겸재문화예술제 개최 : 겸재진경대전, 겸재 관련 학술세미나 등 집중 연계 운영**
 - 주무대 및 단위 프로그램 : 숲속음악회, 지역 및 신진예술가 문화공연 등
 - 아트마켓 :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지역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겸재문화예술제 BI 및 겸재캐릭터 등을 활용한 **겸재문화예술제와 강서구 연계 이미지 홍보 강화**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SNS 등을 통한 전국적 축제 홍보

□ 그간성과

- **겸재문화예술제 BI 및 정선 캐릭터 개발(2016. 6.)**
- 제3회 겸재문화예술제 개최 : 2017.5.12.(금) ~ 5.13.(토) 공산 일대
 - 내용 : 전국사생대회, 숲속음악회, 예술한마당, 학술심포지엄 등

			
겸재 정선 캐릭터(2016)	겸재문화예술제(2017)	겸재정선미술대전(2016)	겸재정선미술관(2009)

3 어린이동화축제를 강서구 대표 문화컨텐츠로 적극 육성

지역의 전래설화, 위인, 명소를 소재로 한 거리 퍼레이드, 축제 수요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아울러 지역의 문화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추진방향

- 독창적 이야기가 있는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공감가능한 문화축제로 정착
- 축제의 기획단계부터 축제 수요자(어린이, 주민)의 눈에서 프로그램 설계·참여

□ 행사개요

- 축제기간 : 매년 5월 중
- 축제목적 : 전래동화 및 위인전을 통해 알았던 옛날 모습을 재현·체험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정착
- 축제장소 : 방화근린공원 일대
- 참 여 자 : 어린이, 학부모 등 약 1만명
- 주최/주관: 강서구청(구청장 노현송)/강서구립도서관협의회(회장 김동운)
- 행사내용
 - 퍼레이드 : 지역의 전래 설화, 역사적 위인 등을 주제로 한 각 도서관별 시가행렬
 - ※ 개화산, 양천향교 풍경, 곰달래 사랑이야기, 겸재정선, 구암허준, 투금탄 설화 등
 - 체험마당 : 32개 기관(구립 및 작은도서관) 주관의 상상력·창의력 개발 부스 운영
 - ※ 전통공예, 전통놀이, 북아트, 책갈피 만들기 등
 - 공연/전시마당 : 사물놀이, 사자춤, 전통무용, 전통혼례, 전통의상, 전통공예품 등

□ 그간성과

- 2007년 제1회 축제 개최(등빛도서관 개관) 이후 2017년 제9회 어린이동화축제 성공적 개최

				
어린이동화축제포스터	거리행진(퍼레이드)	개막공연(나라사랑 페스티벌)	본 행사	

Ⅲ

지역문화의 기반 확충

1 지역문화 활성화의 거점시설 건립·운영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간 문화적 형평성 제고

□ 강서구민회관

- 목 적 : 구민의 자생적 문화활동 위한 공간 제공, 다양한 문화 강좌 등 운영
- 규 모 : 대지 : 7,300㎡, 건물 : 4,166㎡(지상3층/지하1층)
- 주요시설 : 우장홀(대강당), 우장갤러리(전시실), 노을극장(소극장), 운동마루, 강의실, 다목적실 등
- 이용인원 : 연 219,815명(대관 141,460명, 프로그램 78,355명)

□ 강서문화원

- 운영목적 : 강서 지역사회의 문화계발과 문화증진을 위한 핵심 허브(1994~)
- 활동분야
 - 향토사 연구, 문화자료 수집보존, 문화행사 개최, 문화강좌
 - 문화강좌 : 전세대를 아우르는 수준높은 문화강좌(미술, 음악, 취미, 학술, 건강 등)
 -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위탁 운영
- 향후계획 :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에 현재 강서문화센터 2배 규모 강서문예회관 건립 추진 중(2017 ~ 2019)

□ 곰달래문화복지센터

- 목 적 : 낙후된 화곡동 지역의 문화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화곡8동 지역에 건립(2013.3.)
- 규 모 : 지상 7층, 지하 3층 연건평 1만3천㎡
- 시 설 : 공영주차장(245면), 어르신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서관 다목적 회의실 등
- 성 과 : 고질적 민원 대상이던 버스공영차고지를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하여 지역문화 거점화

□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 조성목적 :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소규모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2016.8.)
- 주요시설 : 연습실, 무대대기실, 다목적실, 전시실 등
 - 문화활동에 최적화된 편의시설, 교류와 소통을 위한 다목적실, 소규모 전시공간 등
- 성 과 : 지역의 신진예술가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강서구민회관



강서문화원



곰달래문화복지센터(2013)



염창문화예술창작공간(2016)

□ 지역소통의 문화사랑방, 도서관

지역역문화의 사랑방이자 지역 문화활동의 근거지로 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도서관이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근린자치의 활성화 거점화

- 추진방향
 -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기존문고 등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공간 제공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 속 평생학습 문화 정착
- 운영현황 : 34개소(구립도서관 8개소, 작은도서관 26개소)
- 사업내용
 - 독서동아리(150개) 지원 및 활성화, 도서관 책마을 축제 등 지역축제 개최
- 기대효과
 - 도서관을 도시형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정착



2 스스로 찾아오는 고품격 문화·휴양시설 집중 유치

첨단 자족도시로 개발되는 마곡지구에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한 서울식물원과 LG아트센터, 김포공항 내에 항공산업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을 유치하여 휴양·문화의 중심지로 강서 정체성 확립

□ 서울식물원(Seoul Bontanic Park)

- 위 치 : 마곡도시개발지구 3지구
- 사업기간 : 2015.11. ~ 2018.6.
- 규 모 : 611,257㎡(유수지 포함)
- 사 업 비 : 1,195억원
- 주요시설 : 열린숲 공원, 호수공원, 식물원 및 식물문화센터, 습지생태원, LG문화센터 등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신개념 공원
- 기대효과 :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휴양의 명소로 우리구 브랜드 이미지 강화

□ LG아트센터(LG Arts Center)

- 위 치 : 서울식물원 내 LG 사이언스파크 연접 부지
- 사업기간 : 2016.1. ~ 2019.12
- 규 모 : 대지 2만3천㎡, 건축면적 1만5천㎡
- 주요시설 : 1500석 이상의 대형 오페라·뮤지컬 공연장, 300석 내외 소공연장, 전시실, 과학관 등
→ 서울식물원 내 다양한 문화공간과 시너지효과 기대
- 기대효과 : 2020년 준공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LG아트센터(강남구 소재) 대체 예정

□ 국립항공박물관(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 위 치 : 김포공항 화물청사 전면(현 아시아나 화물창고)
- 사업기간 : 2017.10. ~ 2019.12
- 규 모 : 대지 약 1만5천㎡, 건축면적 1만8천㎡(지상4층/지하1층)
- 사 업 비 : 923억원
- 주요시설 : 전시관, 학습관, 체험관 등
- 기대효과 : 김포공항과 항공산업을 연계한 특화 박물관운영으로 **“공항과 항공산업”에 차별화된 지역의 정체성(로컬 아이덴티티) 확립**에 기여



IV 풀뿌리 지역문화 활성화

1 주민주도의 자생적 마을축제 육성

□ 자생적 지역축제(지역특성화 축제) 활성화

- 지역특성(역사, 문화, 환경, 문화 등)이 잘 반영된 **마을단위에서 기존에 개최되고 있던 자생력 있는** 소규모 마을 문화축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주민화합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
- 마을축제 : **강서구에서는 동단위로 특색있는 마을단위 축제를 매년 개최**

마을축제 명	지역	시기	세 부 사 항
개화산봄꽃축제	발화동 (1동~3동)	4월	방화 1~3동의 “한마음봄꽃축제(2008)” 구차원의 축제로 발전시킨 축제. 국악콘서트, 풍물마당, 주민노래자랑, 마당놀이, 건기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기획하는 행사
우장산신록축제	우장산동	5월	우장산동에서 2009년부터 개최되던 마을축제를 구차원의 축제로 발전시킨 축제. 신록체험 건강걷기, 어울림문화한마당, 숲속음악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곰달래마을축제	화곡8동	5월	서울시 최대의 생필품 도매시장인 “유통상가” 활성화를 위해 화곡8동 차원에서 개최되는 행사



2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보존

서울시 유일한 향교인 양천향교, 관내 제1사찰인 약사사, 겸재 정선의 예술혼이 살아있는 소악루 및 궁산의 백제시대 고성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 및 보존

양천향교	조선 태종 12년(1411)에 건립된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향교.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석전제(釋奠祭) 를 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문과 서예 및 사군자 등을 가르치는 등 청소년 인성교육 및 옛 전통문화 재현의 중추시설 석전제 [釋奠祭]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에서 선성(先聖)·선사(先師)에게 지내는 제사. 음력 2월과 8월에 행해짐
약사사	관내 전통사찰 중 제1의 위상 을 지닌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사찰. 도량에는 삼층석탑(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9호)과 석불(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호)이 있음
소악루	가양동에 있는 위치한 1737년 이유(1675~1757)가 세운 정자. 중국 동정호의 악양루 경치와 버금가는 곳이라 하여 붙인 이름으로 진경산수화의 창시자 정선이 자주 찾은 장소
양천고성지	양천향교 뒷산 궁산에 위치하는 29,390㎡ 의 백제시대 성터로 백제 22대 문주왕의 웅진 천도(475년) 전 강 건너 고구려를 견제하던 성이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김천일 장군 등이 의병을 이끌었으며 행주대첩 승리에 크게 기여



3 자생적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예술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예술단체의 지속가능성 향상

- **7개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맞는 다양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7개 단체 : 서예, 국악, 미술, 문인, 사진, 꽃예술, 현대음악
- 사업내용
 - **강서구립극단 “비상”, 강서구립합창단 “여보세요” 등 정기공연 실시**
 - 강서구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를 통한 **예술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입춘맞이, 단오, 아리반서예전 등 **신규 전통문화 행사 발굴**
 - 일상속에 찾아온 다채로운 문화행복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1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 ☐ 마곡지구의 특별계획구역에 MICE산업 집적에 따른 관련 콘텐츠 구상
 - MICE 산업 특화지역 : 삼성동 코엑스, 일산 킨텍스, 부산벡스코,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 ☐ 서울식물원 개장에 맞춘 식물박람회, 화훼박람회 등 콘텐츠 확보
- ☐ 고도제한 완화, 항공박물관 개관에 발맞춘 항공박람회(에어쇼) 등 항공관련 콘텐츠 개발
- ☐ 의료관광축제, 강서관광안내센터 건립 등 의료관광 활성화 콘텐츠의 지속적 확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 례 명	- 살아있는 민주주의 체험 문화의 장! - 전국 최초! 구로어린이나라 건국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따뜻한 복지, 안전한 구로(아이키우기 좋은 구로-구로어린이나라 건국 및 운영 지원)
사례요약	■ 추진배경 (필요성) ● 어린이 의견을 대변할 창구 부족하고 민주시민을 위한 조기 체험 필요 ● 출산율 서울시 1위 구로 풍부한 어린이 문화 인프라를 발판삼아 맞춤형 정책 필요 ■ 추진내용 (창의성 등 전 지표) ● 토대마련 : 꿈을 위한 한걸음! '건국준비위원회 구성' - 전국 사례가 전무해 전국을 돌며 유사 사례 벤치마킹 및 자문 실시 - 6개 분과위원회로 건국준비위원회 구성해 어린이헌법 제정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역경극복 : 시행착을 거치면 발전! '임시정부인 구로어린이민주공화국 수립' - 행정부, 입법부, 민통청으로 임시정부 수립해 국민의무 포함한 헌법 개정 등 활동 -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 부족, 경험부족으로 선택과 집중 미흡 등의 문제로 전국지연 - 전문가 의견 조화, 문제 공론화 통해 헌법개정, 조례제정안 협의 등 해결책 마련 ● 건국 : 상상이 현실로! 전국 최초 구로어린이나라 건국 - 어린이선거로 대통령·시민의회장 선출, 구로어린이나라로 명명하고 국가·국새 제작 - 사법부 없는 삼권분립, 놀 권리·괴롭힘 금지 등 가장 어린이나라스러운 헌법 개정 - 실제 영토가 있는 어린이 나라 운영 모색 ● 확대 : 지속발전 가능한 어린이나라 운영 -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제정, 시민의회 정당 창당, 어린이나라 참여분야 확대 ■ 소통과 협력 (소통성) ● 학교, 학부모, 전문기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조언 및 지원 ● 밴드, 네이버 카페, 국민 총회의, 공감 워크숍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소통 ● 구청 내 부서간 참여, 외부기관 협력, 구의회와의 협력 ■ 추진성과(확산가능성 및 체감성) ●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작성 과정에 참여해 조례에 어린이나라 의견 반영 ● 시행착오를 겪으며 체계화된 어린이나라 기틀 마련 및 경험자 양성, 사례 전파 ● YTN, 동아일보 등 100여개 주요 언론매체보도 및 20여개 기관 벤치마킹 지원 ● 어린이 나라 건립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는 자존감 향상,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냄

살아있는 민주주의 체험 문화의 장!

- 전국 최초! 구로어린이나라 건국 -

I

추진배경 ➡ 필요성

■ 민주시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 국가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대두
-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조기교육이 필요

■ 어린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창구 부족하다

- 어른이 어린이의 의견을 대신 판단하게 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부재
- 어른 중심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어린이가 참여하는 어린이 정책 수립 필요

■ 출산율 서울시 1위 도시 구로, 체계적인 어린이 정책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출산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고, 항동·천왕동 중심으로 다자녀 가구 입주가 많아져 초등학교 학생수 증가(천왕초 증축, 천이초 신설)
- 어린이들이 적극적·자발적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 어린이나라 문화 체험 인프라가 준비됐다

-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13년부터 매년)
 - 총 53개국 1,472편 출품작 중 600여편 상영
 - 스마트폰 영화학교, 감독과의 만남 등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15년부터 확대)
 - 초등학생 위주로 연 50회, 1,000여명 참여
 - 가상 조례 만드는 과정에 구청장, 구의장 등으로 참여하는 역할극 운영 등



민주주의 체험 필요성 + 어린이문화 인프라 = 구로어린이나라 건국

추진내용 ➡ **창의성 등**



어린이나라 건국 진행도



꿈을 위한 한걸음! ‘건국준비위원회 구성’

■ 전국 최초란, 힘들지만 의미있는 노력들

- 어린이나라 사례가 국내에 전무해 전국을 누비며 유사 사례 벤치마킹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어린이 연구원, 나미나라공화국, 스페인의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 등
- 관내 초등학교 공문 발송 및 설명회 실시('15.1~3월) : 총 21회
- 각종 회의를 통한 학부모 설명회 실시('15.1~3월) : 총 18회

■ 건국의 디딤돌, '건국준비위원회' 구성·운영(총 22개 초교 52명)

- 정책개발연구소 등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
- 공감 워크숍, 임시회(2회), 정기회 등 실시해
운영규정, 헌법안, 임시정부국가명 등 논의
- 어린이나라 헌법 제정 : 분과위원회중 헌법재정

위원회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제정

※ 구청이 헌법 전공 강사 초빙 사전 헌법 교육 및 실습 지원

- 학부모, 교사,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해 지원
 - 건국 준비사항, 초기정부시 인원구성, 과제 설정 방법 등 자문
- 국회·헌법재판소 견학, 어린이영화제 심사위원 참여 등 **다양한 활동 전개**



‘15.7.21 동아일보(거주위 출범)

■ 정부체제로 전환! '구로어린이민주공화국' 임시정부 수립

- 행정부, 입법부, 민통청으로 구성된 '구로 어린이민주공화국'(임시정부) 수립

※ 민통청(民通廳) :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구로 어린이공화국에만 특색있는 기구

- 총 80명으로 구성(중1 18명, 초교생 62명)

※ 건준위 위원 중 중학교 입학 학생도 멘토 참여 - 학부모자문단 의견 반영

- 총회(6회), 공감워크숍 등 적극 활동

- 건국선포일, 운영규정안, 헌법, 위원회별 활동 결과 발표 등 다양한 논의 진행

- 헌법 개정('16.10.) : 국민의 의무 조항, 소수의견 존중 위한 만장일치시 재의결제, 중요안건 삼의제 등 포함



■ 문제점 발생! 준비 부족으로 건국 지연

- 정부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인력, 예산 등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 부족
- 초기 경험부족 상태에서 민통청 운영의 한계 및 정책 반영 안전 선정 시스템 미흡 등 선택과 집중의 부족으로 활동 정체

■ 해결을 위한 노력! 소통을 통한 방향 설정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리더십개발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하! 열린교육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 방문 의견 조회('16.11)
 - 어른들이 만든 형식에 얽매어 있고 경험에 비해 과도한 의욕 발생
- 어린이 총회를 통해 내부적 문제점 공론화 및 개선방안 공개 논의
 - 헌법 개정 논의 : 민통청 폐지,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간소화
 - 정부 명칭변경 논의 : 어린이들 헌법에서 따온 생소한 공화국이란 말이 아닌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명칭 논의(구로어린이정부, 어린이국가)
 - 구청 조례 제정시 내용에 대한 공동 논의 의견 제시

건국

상상이 현실로! 전국 최초 구로어린이나라 건국

■ 나라명, 국기, 국새 등 나라 건국 기초 마련

- ‘어린이’가 독립된 주체임을 부각, 더불어 살아가는 구로공동체 강조 - ‘구로어린이나라’ 명명
- 어린이들의 상상력 풍부하게 반영된 국기 제작
 - 어리니 : 좌우는 행정부, 시민의회, 중앙은 국민
 - 올린 손 : 자기의사 표현(왼손 : 소수의견 존중)
 - 왼손을 알파벳 i로 표현 : 어린이나라 활동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변해감



어린이나라 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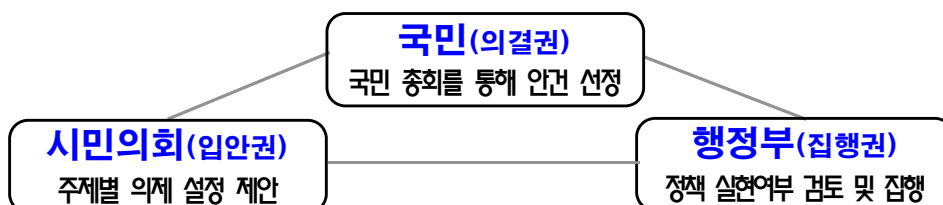
- 대외적 문서 전달을 위한 어린이나라 국새 제작
- 학교추천, 자발 참여 등 국민 대표들을 선발해 선거로 대통령 및 시민의장 선출

■ 구로어린이 나라 헌법 개정

- 어른들의 헌법 모방 지양, 가장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규정으로 전면개정
- 제1장제1조 ‘어린이는 키가 작은 어른이다’
조항 신설 등 어린이가 어른과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
- 장래희망 선택권, 놀 권리 등의 국민의 권리와 어린이 괴롭힘 금지, 스마트폰 자제, 자살 불가 등의 의무사항 등



■ 삼권분립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지 없는 나라 꿈구며 사법부 제외)



■ ‘영토가 있는 어린이 나라’ 운영

- 일년에 1회, 2일동안 광장·공원 등 이용 영토가 있는 어린이 나라 운영
- 여권, 출입국관리소, 화폐, 은행, 상점

- 등 운영해 실제 어린이 나라 체험
- '17.5.27 전국 선포식 개최 때 영토
가 있는 어린이 나라 시범 운영



확대

지속발전 가능한 어린이 나라 운영

■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재원조달, 자문위원회 구성, 멘토단 구성 등 지원 내용 수록
- '17.7월 입법예고 중으로 '17.10월 공포 예정 및 시행

■ 시민의회에 정당 만들어 토론과 심층 연구의 장 조성

- 관심 분야가 같은 의원들로 당을 형성해 각자 심층 연구 및 안건 제시
- 의회에서 국민총회의에 상정할 안건 설명시 자유로운 토론 및 결정

■ 어린이나라의 참여 분야 확대

- 어린이영화제 심사위원, 구민 리포터 등 어린이나라 참여분야 점차 확대

III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하는 나라 소통성

학 교 학부모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전·현직 교장, 교사 등 학교 관계자 자문 지원

- 오시형 동구로초등학교 교장, 변용주 오류남초등학교 교장, 천왕초·구일중·구로중 교사 등 다수가 자문가로서 참여



■ 학부모 자문단을 결성해 학생들 참여 지원

- 학교 공부 이외에 민주주의 체험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공감분위기 조성 및 의견 제시



학 생

각종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소통 및 활동

■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국민(학생) 소통

- 밴드 개설('16.3.) : 행정, 의회, 자문단 등
- 연구과제,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실시간 논의
- 네이버 카페 개설('16.11.) : 국민
- 어린이나라에 개선을 바라거나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제시



■ 오프라인 국민 소통

- 시민의회 제출 안건을 국민 총회의를 개최해 최종 선정(상시운영)
- 공감 워크숍 실시(연1회) :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공감대 형성

기관(부서)간

구청 내 부서간 및 외부 기관과의 협조

■ 구청 내 부서간 참여

- 언론매체, 구청 SNS 등을 통해 구민 홍보, 홈페이지 제작 : 홍보전산과
- 참여학생들에 대한 스펙관리 지원 :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 행사 회의장소(강당, 공원 등) 대여 : 총무과, 공원녹지과

■ 구청 외 기관 협력

- 세종리더십 개발원, 아하! 열린교육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등 외부 기관 자문 협조

의 회

어린이 나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제정 및 장소 지원

- 지원 조례안 작성시 조언 및 정책반영 위한 조례 승인
- 구의회 본 회의장을 어린이나라 안전 회의장으로 지원



■ 구청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 나라 예산 확보 지원

- 어린이 나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예산 반영 지원

IV

추진성과 ➡ 확산가능성, 체감성

시책 반영

어린이 나라 지원 조례안에 의견 반영

■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작성 과정에 참여

- 초안 작성 및 검토 의뢰(구청) → 의견제시(어린이나라)
→ 조례안 재작성(구청) → 입법예고 중
- 요구내용 : 조례에 어린이나라 활동 내용까지 규정해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내용만으로도 제정 요구

전파 가능

전국 최초 체계화된 어린이 나라 기틀 마련

■ 건준위-임시정부-건국 과정을 거치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15년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안정화된 어린이 나라 체계 마련

■ 건국 참여자들의 경험 축적 및 전파자 역할

-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학부모, 전문기관, 구청 등 자문역할을 수행한 모두 건국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에 대한 전파자 역할 가능

사례1) 동구로초 교장이자 서울시 초등학교 교장회(회원 603개 학교) 회장인 오시형 교장이 자문단하면서 겪은 내용을 교장회에서 전파

사례2) 학생과 학부모들이 개인 및 관공서 SNS 통해 진행사항 홍보

전국 공유

언론을 통한 사례 공유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지원

■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돼 전국으로 전파

- 방 송 : YTN, 연합뉴스TV, MBN, TBS 등
- 신 문 :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65건
- 기타매체 :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17건 보도



■ 도봉구, 성남시, 시흥시, 여주시 등 20여개 기관 문의 및 벤치마킹 방문

체감 효과

어린이들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적 관심 제고

■ 구로어린이나라 국민

- 어린이나라 참여과정에서 자존감 향상 및 민주주의의 관심도 증가

손지우(구로어린이나라 대통령)

친구들과 토론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어린이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물론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에듀동아 인터뷰 발췌)

-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린이 내부 문제를 들여다 보는 계기 마련 및 변화의 필요성 자각(괴롭힘 금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 학부모 등 일반 주민

- 어린이라고 무시하는 인식 변화 및 어린이 학대 등 사회문제 변화 계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 례 명	작은 마을 큰 소통, 신나는 마을문화축제 영등포 마을장터 가는 날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
사례 요약	#1 주민들에게서 영감을 얻다 □ 배 경 ○ 도심 속 사라지는 우리네 정(情) 넘치는 공동체문화를 되살리겠다는 의지 ○ 지역주민이 자기 고장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가꿔갈 수 있는 촉매제로서 마을장터를 주민과 함께 구상 - 기존 마켓 + 공공 + 문화적 요소 □ 방 향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한 영등포형 지역문화 활성화 영등포 마을장터 운영 주민 중심의 문 화 재 생 주인 자체적으로 만든 마을 기획단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정, 추진 상생하는 문 화 협 력 지역예술인, 소상공인, 재능기 부자, 마을기업, 예비청년창업 자, 영등포구청 등이 참여 지속가능한 나눔 공 동 체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여러 지원이 주 민의 관심과 자발적 지원으 로 이뤄지는 매개체 □ 추진과정 1단계 2016. 10. ~ 2017. 2. 문화자원 조사 및 발굴 ▶ 2단계 2017. 3. 시범운영 ▶ 3단계 2017. 4.~추진 중 확대운영 #2 ‘함께하는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다 ① (문래동)마을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참여한 문래목화마을장터: 화합 ② (양평2동)문화와 복지 나눔의 정이 가득한 양평2동 선유마을장터: 나눔 ③ (영등포본동)이웃이 선사한 감동의 장터 내 결혼식: 마을공동체의 회복 #3 영등포 마을장터, 대한민국 대표 지역문화축제를 꿈꾸다 “장터 너머의 공동체라는 가치를 회복하고 공유하는 세대간 소통의 장”

작은 마을 큰 소통, 신나는 마을문화축제 영등포 마을장터 가는 날



어느 작은 마을의 토요일 오후,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 한입 떡을 베어 무는 작은 입가에 천진난만한 미소가 퍼진다. 공연을 준비하는 어린 아이들에게선 사뭇 긴장되지만 굳은 다짐마저 느껴진다. 젊은 예술가들이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을 기념하고자 연신 셀카를 찍어대는 한 무리 여고생들의 웃음소리가 생기를 더하고, 저 멀리 하모니카 선율에 맞춰 몸을 흔드는 할아버지의 흥겨움. 예쁘게 단장하고 장수사진을 찍는 할머니의 어색한 미소 속에서는 세월을 간직한 아름다움이 엿보인다. 5일장의 옛 추억을 말씀하시던 어르신이 시장을 훑듯 돌아보며 “이런 게 바로 사람 사는 모습이지!” 라 하시고는 오랜만인 듯 큰 웃음을 지어 보이신다.

현대화 물결 속에서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왁자지껄 봄비는 시장,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도심 속 영등포 마을장터. 그 옛날 광대의 춤과 옛장수의 가위질 소리는 없지만 그것을 대신 하는 것은 우리네 인정(人情)이요, 서로에게 지어주는 미소요, 나눔 속에서 느끼는 삶의 활력이다. 영등포 마을장터는 문화(文化)이자, 나눔의 정(情)이자, 공동체 의식의 회복(回復)이다.

#1 주민들에게서 영감을 얻다

주민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선유5일장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영등포 마을장터 가는 날」은 잊혀진 추억의 5일장 모습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심 속에 재현해 간다. 마을 주민 간 어울림과 소통의 기능은 물론 지역 내 예술인과 상공인, 학생들도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여 보고 즐기는 문화적 요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사업들도 가미함으로써 지역상생의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을 목표로 한다.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소통하며 지역상생 마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략)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마켓과 공연, 나눔과 기부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구에서는 율타리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 2017. 3. 13.(월) 구청장 지시사항(제297호)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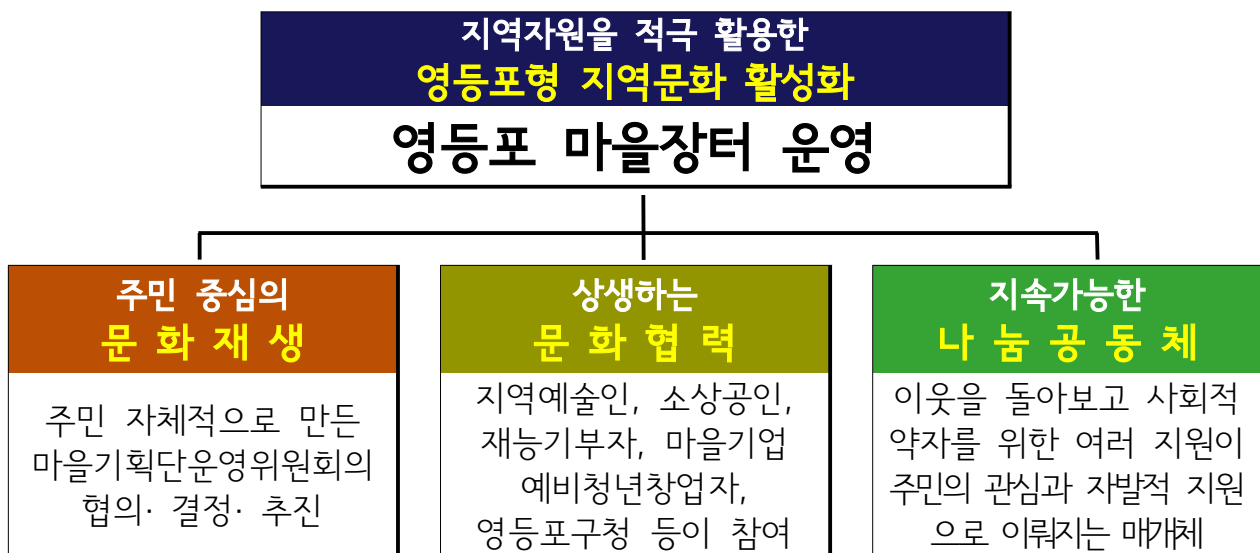
1 배 경

- 도심 속 사라지는 우리네 정(情) 넘치는 공동체문화를 되살리겠다는 기관장의 의지
- 지역주민이 자기 고장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가꿔나갈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
- 생산과 소비 중심의 경제기능만 존재했던 기존의 폴리마켓에서 나아가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주민이 문화를 직접 생산·소비하는 차별화된 영등포만의 마을장터 운영안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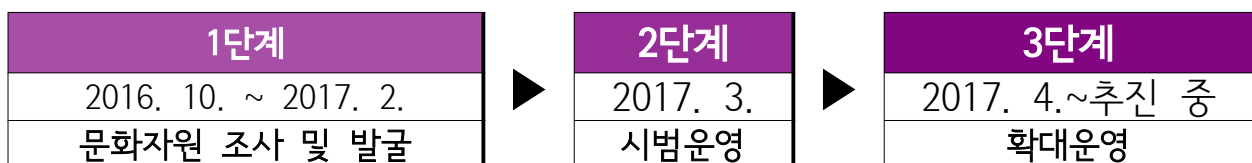
2 방 향

- 프로슈머(Prosumer): 지역주민들이 직접 문화를 생산 및 소비, 공유하여 도심 속에서 사라져가는 마을문화 회복
 -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장터운영진(모임) 구성
 -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추억의 전통 5일장 운영방식을 재현한 마을장터 구성
-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및 공유의 장 마련
 - 지역 예술동아리, 예술인, 학교동아리 등의 재능기부로 공연 및 전시 병행
 -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지역주민들이 기획하고 운영 중이던 자생(自生)적 폴리마켓에 공공(公共)의 문화, 경제, 복지, 행정영역을 접목하여 함께 사는 지역문화 조성

- 자생적 플리마켓: 지역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및 운영방식 제공
- 문화영역: 지역 내 문화 관련 예술인, 기관, 단체 등의 재능기부로 공연 및 전시 등 함께 즐기는 볼거리 제공
- 경제영역: 지역 내 상인, 소상공인,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판로개척 지원
- 복지영역: 기업체의 기부 및 성품, 마을장터 운영수익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으로 환원
- 행정영역: 지역주민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구정 홍보 등



3 추진과정



1 (1단계) 문화자원 조사 및 발굴

2016. 10. 17. 구청장 지시사항(제238호) 중 훈시

- 우리구의 특색있는 문화자산인 문래예술창작촌과 지역문화와의 연계에 대한 고민
- 양평2동의 자생적 지역행사인 '시월의 선유' 플리마켓에서 마을장터 착안

2017. 1. ~ 2. 주민참여단체 모집 및 협력회의 개최(총 4회)

- 주민참여 시장개설 마을 선정: 5개동(양평2동, 문래동, 대림2동, 신길5동, 영등포동)
- 「영등포 마을장터 가는 날」 운영 계획 수립

2017. 1. ~ 3.

시장 운영동(洞) 마을장터 운영진 구성 및 협력회의 개최

- 지역에 거주 혹은 활동하는 각계 각층의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20인 이내 구성
- 사업을 기획, 참여자 모집, 예산운용(수입·지출 관리, 정산보고) 등 마을장터 운영전반에 대한 의견 수립 및 토론 후 자체 결정
-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영등포구청 및 주민센터와의 피드백을 통한 사업의 방향 점검

■ (2단계) 시장개설

2017. 3. 11.(토)

(양평2동) 3월의 선유장터 개최

- 시간 및 장소: 선유도공원 가는 길
- 주 최: 선유마을 문화축제 추진단
- 참여규모: 총 59개 부스, 자원봉사자 200명
- 내 용: 추억의 먹거리, 나눔마당, 목공체험 등

2017. 3. 18.

(문래동) 목화마을장터 개최

- 시간 및 장소: 문래역 로데오거리(문래역 5번 출구)
- 주 최: 문래동 마을계획단
- 참여규모: 총 67개 부스, 자원봉사자 20명
- 내 용: 테마마당, 지역예술인 전시 및 공연, 플리마켓



2017. 3. 25.

(대림2동) 다사랑장터 개최

- 시간 및 장소: 신대림자이아파트~BYC 사이길
- 주 최: 다사랑장터 추진단
- 참여규모: 총 64개 부스, 자원봉사자 70명
- 내 용: 도농 직거래 및 지역상인 물품판매, 장터 먹거리, 공연 및 체험마당 등

■ (3단계) 확대운영

2017. 3. 30.

「영등포 마을장터 가는 날」 전 동 개설행을 위한 18개동 주민 추진 협의회의 간담회 개최

2017. 4.

마을장터 확대운영을 위한 지역 공공 단체 간 협의

2017. 5. ~ 추진 중

확대운영 실시

#2 '함께하는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다

① 마을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참여한 문화향기 그윽한 장터

문래동 목화마을장터

문래목화 마을장터가 가진 특징은 '문화가 살아숨쉬는 예술장터' 이다. 쇠소리 가득 한 철공소 거리에 둥지를 튼 젊은 예술인들과 지역주민, 소상공인들이 보이지 않던 경계의 벽을 허물고, 예술마을로써 문래동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들만의 자긍심과 색깔을 담아 매번 색다른 테마가 있는 마을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과 문화의 마을, 타 지역에서어도 찾아오는 마을, 문래동, **문화가 지역주민들을 자발적으로 나서게 한 화합의 대표사례**이다.



②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을 실현하는 정(情) 가득한 마을 장터

양평2동 선유 마을장터 이야기

선유 마을장터의 자랑거리는 “십시일반(十匙一飯)”. 조금씩이지만 서로를 위해 내어놓는 그 따뜻한 나눔의 정이다. 지역 내 기업체는 물품을 후원하여 마을장터의 수익금을 만들어주고, 그 수익금은 지역 내 복지센터를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데 이용된다. **마을장터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가 복지로, 복지가 다시 문화로 이어지는 행복한 나눔 구조**로 이웃을 돌아보고, 동질감을 느끼고, 사람다움을 만들어 간다.

<양평2동 선유 마을장터(2017.6.)>



공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마을장터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참여단체(체험분류)	체험내용
- 영등포교육복지센터 - 영등포노인복지센터	▶ 손거울만들기, 비즈악세사리만들기, 스위치커버만들기 ▶ 노인체험 프로그램
보노보씨	▶ 목공체험
- 당산초 학부모회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인식개선 퍼즐맞추기 ▶ 타투스티커 ▶ 풍선아트 ▶ 다트던지기
생활과학교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교육센터)	▶ 3D펜을 이용한 나만의 작품만들기 ▶ 들어올려라! 자화크레인 ▶ 바람의 힘으로 움직여요-풍선자동차 ▶ 미는힘! 당기는 힘! 자기부양탑
한강미디어고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 관내 독거 어르신 20명 내외(한강미디어고 15명)
롯데제과롯데홈쇼핑	▶ 과자(5천만원 상당) 잡화·의류(6백만원 상당) 바자회
음료시음	▶ 커피·맥주·와인 시음(관내 카페 3개소)
추억장터	▶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6개 지역단체, 기관)

※ 추억장터 참여단체: 선유고학부모회, 통친회, 채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평2동구립어린이집, 선유문화공방

3 우리네 이웃의 힘으로 만들어낸 감동의 결혼식

영등포본동 무료 결혼식 개최

영등포본동 기찻길 옆 마을장터는 우리네 마을장터의 궁극적 목표인 ‘**마을공동체의 회복**’ 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다. 이웃의 경조사가 나의 기쁜 일, 슬픈 일이었다 그 시절의 감동이 마을장터에서 작은 결혼식을 통해 부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결혼한 지 30여 년 만에야 마을장터에서 열린 이 무료결혼식은 마을주민들이 부케와 풍선아트부터, 청소년 소케스트라, 지역 내 NH공사 등 기관들의 도움으로 도배부터 신혼집 꾸미기, 결혼식까지 모두가 주인공인 날이었다.

<마을장터에서 열린 무료결혼식과 이웃의 힘으로 만들어진 신혼집>



#3 영등포 마을장터, 대한민국 대표 지역문화축제를 꿈꾸다

□ 사례의 강점

“영등포 마을 장(場)터는...”

- 🌱 추억을 공유하며 세대간 단절을 극복하는 대화의 장(場)
- 🌱 숨겨놓은 재능을 발휘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보람의 장(場)
- 🌱 내 고장 유래와 특색을 알게되는 배움의 장(場)
- 🌱 한마을 이웃임을 깨닫게 되는 공동체 회복의 장(場)

□ 향후계획

- 🌱 마을장터에서 느낀 이웃 간 공동체의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이달의 장터」 홍보물 제작·배포, 마을특색을 나타내는 캐릭터 발굴로 차별성 부여
- 🌱 지속적으로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환경 조성
- 🌱 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이 있는 마을시장을 선별하여 지역수익 창출 및 주민의 자부심 증대를 꾀함

“그런 영등포 마을장터는 **문화**이며, **정**이며, **사람**이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 례 명	지역 어디서나 문화예술활동이 펼쳐지는 동작은 예술마을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사 례 요약	☐ 추진목적 ○ 주민주도의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일상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 관내 문화예술단체·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구민들의 주체적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를 제공 ○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재 가치 제고 ☐ 추진내용 1. 주민주도의 지역축제 활성화 ○ 브랜드축제 : 도심속 바다축제 ○ 주민밀착형축제 : 신대방벚꽃축제, 인문학축제, 젊음의거리축제, 사당만남의공원축제, 가을낭만음악회, 대방골옹마예술제 ○ 동(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 : 동주민센터축제 ○ 문화예술단체 지원행사 : 노들가요제, 동작구민백일장,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사육신추모제향, 장승제 2. 문화예술단체·동아리 활성화 ○ 문화예술단체·동아리 현황 기초조사 ▶ 권역별, 장르별 단체·동아리 현황 조사 ○ 관내 유휴 문화공간을 발굴하여 단체·동아리 활동 공간 마련 ▶ 문화예술단체·동아리 커뮤니티공간 운영(신설), 문화원·복지관·문화회관 등 동아리 거점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예술단체·동아리 문화지도 제작 ▶ 단체·동아리 연습장소 및 공연장소로 활용 ○ 기존 축제와 연계하여 문화예술단체·동아리 네트워크 축제 개최 3.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용양봉저정·사육신묘 : 문화재 해설, 연극 관람 및 배다리 만들기 체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 양녕대군 이제묘역 : 종가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 사육신역사관 : 열린 청춘·가족극장 운영, 평생교육강좌, 어린이 역사·예절 프로그램 문화공연 및 전시 등 ☐ 추진성과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며, 마을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동작형 축제 활성화 ○ 문화예술단체·동아리 커뮤니티 공간 신설 운영을 통해 동아리 전용 활동 공간 제공 ○ 공연팀이 필요한 지역 소규모 축제와 문화예술단체·동아리를 연계하여 동아리 발표회 기회 제공 ○ 문화예술지도 제작을 통하여 관내 문화예술단체·동아리 가이드 맵을 제시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단체·동아리 관심도 향상 ○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속 역사문화 힐링 공간으로 명소화

지역 어디서나 문화예술활동이 펼쳐지는

동작은 예술마을

주민주도의 지역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동아리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어디서나 문화예술활동이 펼쳐지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상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예술마을 조성

I “동작은 예술마을” 을 소개합니다

- ☐ 목 표 : 모두가 행복한 문화환경 조성
- ☐ 추진전략
 - 일상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지역 문화행사 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단체·동아리 활성화
 -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 ☐ 내 용
 - 주민주도의 지역축제 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단체·동아리 기초조사 및 동아리 참여자 역량 강화(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 단체·동아리 활동공간 제공 및 지역축제 연계 참여 및 공연무대 제공

II 주민주도의 지역축제 활성화

브랜드 축제

- ☐ 도심속 바다축제
 - 시 기 : 9 ~ 10월
 - 장 소 : 노량진수산물시장 일원
 - 내 용
 - 문화공연 : 개막식, 콘서트, 노들가요제, 지역예술단체공연,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등
 - 체험행사 : 모의경매, 활어맨손잡기 등(수산물시장 협조)
 - 상설운영 : 먹거리장터, 지역농산물·수산물 염가판매 등

주민밀착형 축제

- ☐ 신대방 벚꽃 축제
 - 시 기 : 4월
 - 장 소 : 신대방 제방길 일대(도림천)
 - 주요내용 : 밴드연주, 풍물가두행진, 난타공연, 먹거리장터 등

☐ 인문학축제

- 시 기 : 10월
- 장 소 : 동작문화복지센터
- 주요내용 : 인문학 콘서트, 윤동주 시·노래극

☐ 젊음의 거리 축제(이팝나무)

- 시 기 : 5월
- 장 소 : 송실대 주변
- 주요내용 : 젊음의 거리, 패션쇼, 체험부스, 청소년 공연 등

☐ 사당 만남의 공원 축제

- 시 기 : 9월
- 장 소 : 사당역 만남의 공원
- 주요내용 : 문화공연, 작품전시회, 플리마켓 등

☐ 가을 낭만 음악회

- 시 기 : 10월
- 장 소 : 사당동
- 주요내용 : 초청가수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 대방골 용마예술제

- 시 기 : 11월
- 장 소 : 대방동
- 주요내용 : 뮤지컬, 청년난타, 마을밴드 공연, 퍼포먼스 등

동(마을) 단위 축제

- 시 기 : 4 ~ 11월
- 지원대상 : 동주민센터(주민 밀착형 축제 지원 동 제외)
- 주요내용
 -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마을에 뿌리 내릴 소규모 축제 발굴
 - 마을공동체를 발굴하여 마을공동체 주도로 축제 개최
 -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문화예술단체 지원 행사

☐ 노들가요제

- 시기/장소 : 10월 / 동작문화복지센터
- 대 상 : 만 19세 이상 구민 및 관내 직장인
- 주요 내용 : 동작구민 노래경연대회, 초대가수공연

☐ 동작구민백일장

- 시기/장소 : 10월 / 동작구민회관
- 대 상 : 만 19세 이상 구민 및 동작문화학교 수강생
- 주요 내용 : 시, 수필 우수작 선정 시상

☐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 시 기 : 9월 ~ 10월중
- 상 영 관 : 이수 아트나인
- 주요 내용 : 초단편영화 경쟁 공모 및 상영, 국내외 우수작 초청 상연

☐ 사육신추모제향

- 시기/장소 : 10월 9일 / 사육신공원 내
- 대 상 : 사육신현창회원 및 유림대표, 주민 등
- 주요 내용 : 전통제례의식, 기념행사

☐ 장승제

- 시기/장소 : 10월중 / 장승배기 장승터
- 주요내용 : 전통제례의식, 사물놀이

III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 활성화

문화예술단체·동아리 현황 기초조사

☐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 현황 기초조사

[권역별]

계	노량진	상도	흑석	사당	(신)대방
76	8	21	7	22	18

[장르별]

계	무용	음악	미술	연극	공예	문학	사진
76	27	35	8	2	2	1	1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 역량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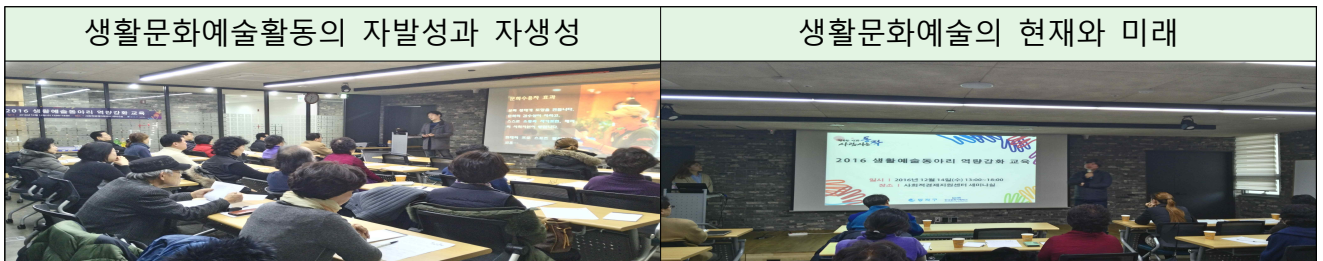
☐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

- 일 시 : 2016. 12. 12.(월) 13:30 ~ 17:30
- 장 소 : 대방동 무중력지대
- 참석인원 : 생활예술동아리 회원 90명
- 내 용 :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특강, 오픈테이블,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



☐ **자립적인 문화예술동아리 문화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 일 시 : 2016. 12. 14.(수) 13:00 ~ 18:00
- 장 소 :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참석인원 :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 이끔이(대표자) 30명
- 내 용 : 생활문화예술활동의 자발성과 자생성 및 사례와 분석 등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 활동공간 및 무대 제공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공간**

- 문화예술동아리 커뮤니티 공간(2016 신설)
 - 위 치 : 동작구 상도로53길 70
 - 지원사항 : 동아리 활동(연습, 회의 등) 공간 및 활동 기자재 지원
- ※ 서울시 소유의 SH-빌 무상임대 받아 문화예술 동아리 공간으로 직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무대 제공**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과 문화예술 동아리 연계
 - 일 시 : 2016. 10. 8.(토) 12:30 ~ 13:25
 - 장 소 : 노들섬 내 헬기장
 - 내 용 : 3개 동아리(무용, 가야금, 풍물) 28명 참석



○ 거리예술존 연계 버스킹 공연

- 일 시 : 2016. 8월 ~ 11월
- 장 소 : 이수역 앞, 무중력지대, 노량진역 앞, 송실대입구역 앞
- 내 용 : 4개 동아리(풍물, 연극, 뮤지컬, 댄스) 20명 참여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 축제

□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 네트워크 축제

- 일 시 : 2016. 11. 25.(금) 17:00 ~ 19:00
- 장 소 :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
- 내 용 :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 공연 및 발표회
- 추진방법 : 동작문화원 노들가요제와 연계하여 공동기획 추진
- 추진실적 : 참여동아리 14개팀 공연, 250명 참석
(댄스스포츠, 명품전통예술, 하모니카, 난타, 라인댄스, 한국무용, 기타동아리 등)



문화예술 지도제작

□ 문화예술 지도의 제작

- 목 적 :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의 주체적 문화콘텐츠 조사 및 지도 제작으로 동아리 자립기반 강화 및 동아리 활동편의 제공
- 방 법 : 동별 적극적으로 활동중인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를 중심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 · 동아리 현황 및 문화시설 등 파악

□ 문화예술지도의 배포 및 활용

- 배 포 : 오프라인(주민센터 등)
- 활 용
 - 동아리회원들에게 배포하여 동아리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
 - 일반 구민들에게 배부하여 문화예술동아리 홍보물로 활용

Ⅳ 문화재 개방 · 활용하여 문화프로그램 운영

용양봉저정, 사육신묘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 · 8호

☐ 동작에서 멈추다

- 대 상 : 초등학생 및 일반가족
- 장 소 : 용양봉저정, 사육신묘
- 내 용 : 문화재 해설, 연극 관람 및 배다리 만들기 체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양녕대군 이제묘역(지덕사)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1호

☐ 종가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 대 상 : 학생 및 일반인
- 장 소 : 양녕대군 이제묘역 일원(지덕사)
- 내 용 : 인문학강좌, 종가음식 만들기, 전통예술 공연 및 체험 등

사육신역사관

|| 시설현황 ||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91 (사육신공원 내)
- 규 모 : 지상2층 / 지하1층 (연면적 812.64m²)
 - 지상 2층 (237.94m²) - 주 전시실
 - 지상 1층 (490.92m²) - 영상관, 교육체험관, 구정홍보관, 사무실, 화장실 등
 - 지하 1층 (237.94m²) -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동절기 (11월~2월) 09:00 ~ 17:30
 - 개관일 - 매주 화~토 (주5일)
 - 휴관일 - 매주 일·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 열린 청춘 · 가족극장 운영

- 상영시간
 - 청춘극장 - 매주 수요일 14:00
 - 가족극장 - 매월 둘째주 토요일 14:00
- 대 상 : 동작구민 누구나
- 장 소 : 영상관, 교육체험관
- 좌 석 수 : 130석 (영상관 60, 교육체험관 70)
- 내 용 : 최신·고전 영화 및 애니메이션 무료 상영

☐ 문화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강좌

- 대 상 : 역사관 이용객 누구나
- 장 소 : 교육체험관 및 영상관
- 운영내용 : 평생교육강좌 (여가활동 및 인문소양 프로그램)
- 운영횟수 : 월 1~2회

○ 문화공연 및 전시

- 대 상 : 역사관 이용객 누구나
- 장 소 : 영상관, 교육체험관, 구정홍보관
- 운영내용 : 관내 예술인단체 활용 문화공연 및 작품전시 (거리예술존, 작품전시회, 야외 영화상영 등)
- 운영방법 : 열린 청춘극장 상영과 연계 영화 상영 전·후 공연 및 전시

☐ 어린이 역사·예절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관내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원아
- 장 소 : 교육체험관
- 내 용 : 어린이 대상 다도, 전통놀이 체험 및 전래동화 연극 감상

V 추진성과

☐ 추진성과

- 주민주도의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일상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 문화예술단체·동아리 커뮤니티 공간 신설 운영을 통해 동아리 전용 활동 공간 제공
- 공연팀이 필요한 지역 소규모 축제와 문화예술단체·동아리를 연계하여 동아리 작품 발표회 기회 제공
- 문화예술지도 제작을 통하여 관내 문화예술단체·동아리 가이드 맵을 제시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단체·동아리 관심도 향상
- 우리구 대표 문화재인 용양봉저정과 사육신묘, 양녕대군 이제묘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작구의 대표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우수사례

○ 지역축제 등과 문화예술단체·동아리 매칭을 통한 win-win

- 단체·동아리 활동무대 제공 : 9개 단체·동아리
 - 지역행사, 거리예술공연, 버스킹 공연 등에 7개 문화예술단체·동아리팀 활동
- 지역축제와 연계한 문화예술단체·동아리 축제

○ 문화예술동아리 전용 커뮤니티 공간 신설

- 문화예술동아리 커뮤니티 공간(2016 신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 례 명	프로듀스 469  - 주민프로듀서가 만드는 전국 최대 지식 모임 '관악 독서동아리'-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사람에 대한 미래투자, 인문학 도시 (독서동아리 양성지원 및 동아리 도서관 공간활용)
사례요약	햇볕이 내리쬐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듯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 지식의 혜택을 누리는 지식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10분거리 도서관을 통해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주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독서동아리' 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역 독서문화진흥 사업 적 합 성 21C 빌게이츠를 위하여 ○ 도서관이 밥 먹여주는 곳 ○ 도서관을 채우는 사람들 창 의 성 프로듀스 469 ○ 주민 프로듀서가 만드는 전국 최대, 469개 독서동아리 ○ 전국최초! 관악구 독서동아리 등록제 소 통 성 책으로 소통하다 ○ 관악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운영 ○ 독서동아리는 24시간 운영 중 ○ 주민이 주도하는 독서 축제 확산가능성 관악에서 전국으로, 전세계로 ○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관악구 독서 시스템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의 힘 ○ 지역과 상생하는 독서동아리 체 감 성 구민만족 no1 ○ 관악구 주민 선정 '최고의 정책' ○ 그래서, 관악에 살고 싶다

적 합 성

21C 빌게이츠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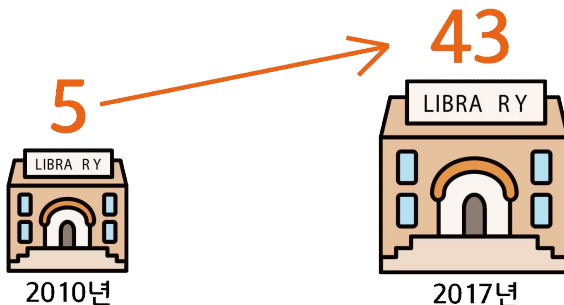
1 도서관이 밥 먹여주는 곳

■ 모든 것은 책으로부터 나온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21.6%)가 21위
- 1960~70년대 도심재개발사업 및 상습수재지역 주민 강제이주 정책에 따른 이주민 집단정착지로 도시가 형성되어 도시 인프라가 매우 취약
- '봉천동=달동네'를 넘어 책의 도시로

■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것은 조국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동네 작은 도서관'** -빌게이츠-

- 10분만 걸으면 누구나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도시
- 2010년 5개였던 도서관이 2017년 43개로 폭발적 증가



주민의 삶을 바꾼 '걸어서 10분, 작은도서관'

동행 2017-08-18 1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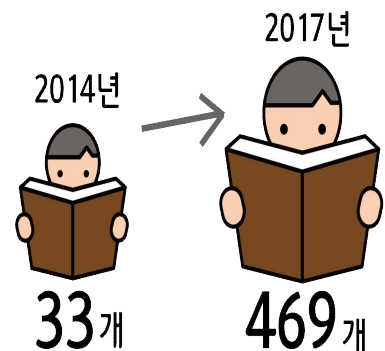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것은 조국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동네 작은도서관"이라는 빌게이츠의 말은 도서관의 접근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도서관을 교문 근처로 옮기자 이용자가 두 배로 늘었다는 보도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복잡하고 시대는 빠르게 변하지만 인류가 발명한 것 중 책과 도서관만큼 현자들의 지식과 지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생활에 바쁜 사람들은 이 유용한 발명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책과 도서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 관악구의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도서관'과 '지식 도서관 배달' 사업이다.

2 도서관을 채우는 사람들

■ 독서동아리 469개, 도서관 회원 16만명

- 10분거리 도서관이라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책을 읽고 나누는 독서동아리라는 소프트웨어 조성
- 2014년 이후 **33개**에 불과하던 독서동아리가 **469개**로!
- 서울 전체 독서동아리의 **30%**
- 도서관 회원 73,092명 → 164,680명
- 장서수 480,017권 → 632,906권 보유



1 주민 프로듀서가 만드는 전국 최대, 469개 독서동아리

주민의 아이디어로 출발~ 독서동아리 활성화

- 2013년 독서동아리 지원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주민이 제안
 - 제안자 : 권영출 위원(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위원)
 -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는 민간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위원회
- 주민이 제안한 동아리 활성화 방안 적극 수용

복잡한 절차 보단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본격적 독서동아리 지원정책 시작

2 전국최초! 관악구 독서동아리 등록제

책 읽는 주민들의 도시 관악

- NO나이, NO성별, 조건불문 오직 5명의 주민만 모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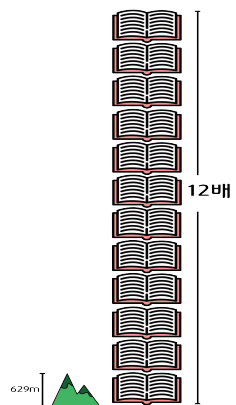
관악독서동아리



독서토론 및 독서체험 활동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5명 이상이 월 1회 이상의 정기모임을 갖는 모임**

-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이끌이**
- 독서 동아리별 매월 1회 오프라인 활동
-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30~50만원)
- 지원 동아리 수 증가 : 45개(10,000천원) → 125개(50,220천원)
- 지식도시락 배달서비스 : 읽고 싶은 책 원하는 도서관으로 배달
 -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동아리 활동이 가능해요!

'작년 한해 관악산 높이(629m)의 12배에 달하는 40만권 이상의 책 배달'



[혜옴나래] 활동모습



[글꿈] 활동모습



[다독다독] 활동모습

■ 동아리 길잡이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이끌이** 연수

- 청주 초롱이네 오혜자 도서관장을 초빙하여 8주에 걸쳐 이끌이 연수 실시
- 이끌이 연수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도서선정, 동아리 운영모임 등 각 동아리의 숨은 노하우를 공유
- 컨설팅 경험이 있는 1기 이끌이들이 주축이 되어 예상되는 질문이나 공통적인 어려움을 정리한 컨설팅 매뉴얼도 준비
 - 모임 꾸리기, 독서계획 세우기 등
 - 동아리 운영사례분석 및 토의
- 교육을 받은 동아리 회원이 지역 독서동아리를 방문, 컨설팅 실시



이끌이(컨설턴트) 양성교육



독서동아리 방문 컨설팅

소통성

책으로 소통하다

■ 관악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독서문화진흥위원회

1. 독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변경
2. 독서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사업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민이 제안하여 운영된 책잔치 프로그램



북 앤드 뮤직 콘서트



동화작가와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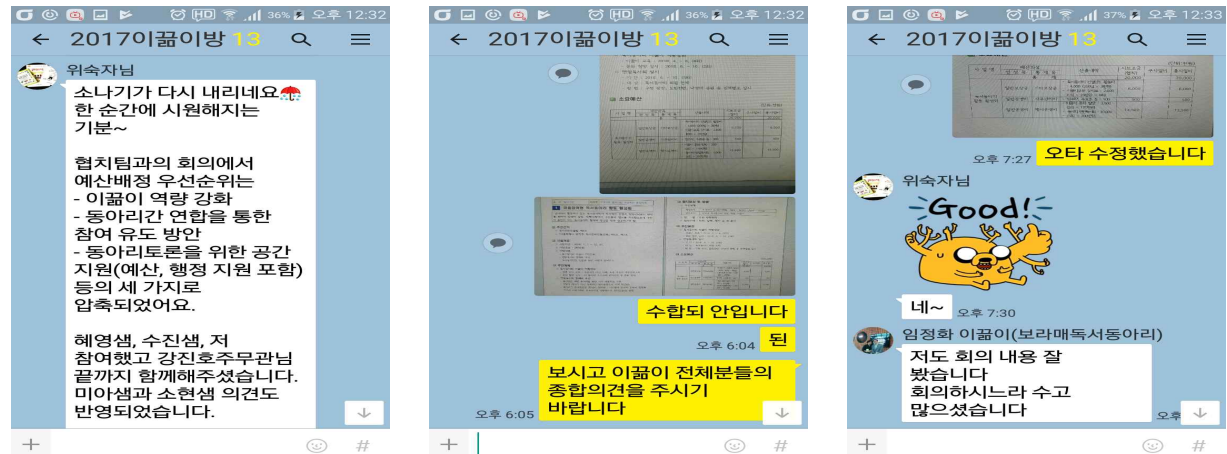
독서골든벨

■ 독서동아리는 24시간 운영 중

● 네트워크로 동아리간 만남

- 동아리 성질별로 3분류 【A그룹(공공기관) B그룹(학부모) C그룹(일반성인)】
- 동아리간 경계를 허물고 그룹 내 동아리 간 만남 시작

● SNS를 이용한 실시간 의견교환



구민의 지역사회 혁신사업 제안



담당주무관 사업 구체화



구민의 최종안 결정

- 다음카페 '책으로 미래를 여는 관악독서동아리', 네이버 밴드 '관악은 언제나 책모임 중!' : 동아리 회원들의 의사가 실시간으로 공개, 토론을 거쳐 정책에 반영

■ 주민이 주도하는 독서 축제

●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 한여름 밤을 수놓다

관악구, 18일 '별 헤는 독서캠프' 개최
(서울=뉴스1) 권영우 기자 | 2016-08-11 08:23 송고

가사보기 | 네미존의견 | 좋아요 0개 | 공유하기 | 트위터 | 밴드 | 인쇄 | 확대 | 축소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18일 오후 5~11시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야외광장에서 '별 헤는 독서캠프'를 개최한다.

독서캠프에는 초·중·고교생과 가족 등 400여명이 참여한다. 텐트와 돛다리를 펼쳐 자리를 잡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윤동주의 시를 낭송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윤동주에 대한 OX 퀴즈, 윤동주의 시를 부채에 멋지게 그려보는 부채시화, 나만의 별자리 램프 만들기, 가족 별자리 팝업카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관악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독서동아리 활동비를 지원받는 학부모 독서동아리가 문체 기획했다.

관악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활동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79개의 독서동아리가 등록해 활동 중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올해는 관악혁신교육지구를 통해 자발적인 독서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독서캠프가 관악구 학부모 독서동아리의 응집된 역량을 확인하고 독서동아리가 더욱 활성화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관악구 독서 시스템

- 지식도시락 배달서비스 시행 이후 일본, 덴마크 등 해외 9개소 및 국내 타 공공기관 44개소 등 총 53개소에서 관악구 지식도시락 배달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

서울신문

2015년 01월 13일 화요일 014면 사회

관악의 '도서관 혁명' 세계가 반하다

코펜하겐 시찰단 17명 방문

스마트폰 활용 'U-도서관' 호평
지하철역 대출기서 손쉽게 빌려
작은도서관 43곳에도 관심 보여
작년 해외 언론 등 20여 차례 방문

"보고 싶은 책을 주문하면 지하철역에서 찾을 수 있다나... 발상 자체가 놀랍습니다." (모르텐 카벨 덴마크 코펜하겐 기술환경 부시장). "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지역의 모든 책을 빌려 볼 수 있다니 이걸 '도서관 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군요." (코펜하겐시 사절단 참가자)
관악구의 지식복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우리가 한 수 배워야 할 상대로



9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덴마크 코펜하겐 사절단이 관악구의 U-도서관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생각하는 북유럽의 덴마크 사절단이 17명이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방문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는 표정으로 시찰을 시작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고 싶은 책을 간단하

게 주문해 받아보는 U-도서관 시스템을 시연하자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변했다.

'U-도서관'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한 책을 지하철역 무인대출기에서 손쉽게 빌려보는 서비스이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해부터 구의 모든 지하철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서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다"면서 "2012년에만 1만 5000여권이 대출됐고,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5만여권이 대출됐다"며 자랑했다. 코펜하겐 사절단 참가자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우리가 훨씬 앞섰다고 자부했는데, 관악구의 도서관 서비스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면서 "벤치마킹해야 할 시스템이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코펜하겐 사절단은 구청 1층에 있는 '용 꿈꾸는 작은도서관' 도립천에 있는 '용 나는 작은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다. 작

은도서관 43곳이 보유한 책은 52만여권에 이른다. 모르텐 카벨 부시장은 "더 많은 주민에게 책을 읽고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관악구의 U-도서관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우리도 스마트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식복지의 메카'로 자리 잡은 관악구는 최근 해외 언론과 단체의 순례지가 되고 있다. 일본 희망제작소, 일본지역자원학회, 중국 CCTV 등이 이미 다녀갔다. 지난해 해외 언론과 단체의 방문만 20여 차례가 넘는다. 유종필 구청장은 "도서관 뿐 아니라 평생학습, 인문학 등 모든 사람이 지식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관악구의 지식복지'는 선진국에서도 반할 만한 정책"이라면서 "올해도 지식복지사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ose@seoul.co.kr



일본 동경신문, 주니치신문에 다채로운 도서관, 민관거버넌스 추진 도서관 사업 등 소개



중국 관영방송 CCTV 특집 방영
"지식도시락서비스(U-도서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의 힘

중고생 자살원인 1위는 '성적'... 학업 스트레스 크다

이세영기자 | 입력 2015-05-25 03:00 | 수정 2015-05-25 03:00

도 넘은 점수경쟁의 비극... 성적비판 자살학생 급증

김수영 기자 | 입력 : 2015.08.30 17:19:08 | 수정 : 2015.08.30 17:20:15

[사설] 학생 자살 증가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입력 : 2017-07-05 [23:01:13] | 수정 : 2017-07-05 [23:01:13] | 게재 : 2017-07-06 (99면)



꿀등도 기 펴고 독서토론하는 학교

'독서동아리'로 소문난 영락고

'사고력 향상', '진로 탐색' 계기로

"책 읽고 활동하는 동아리 열자"

활동비·책값, 독서시간 등 확보하고

대입 독서활동 중요해진 상황에서

독서 교육 가치·현실적 필요성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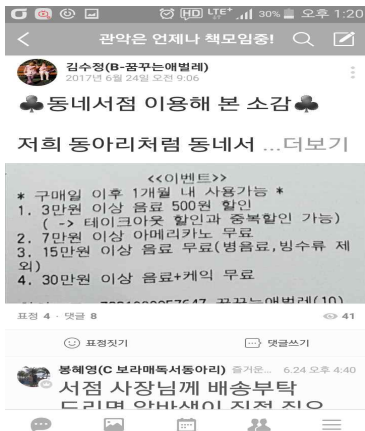
학교 뒷밭길 속 전교생 약 60% 참여



지난 19일 독서활동을 책으로 읽기가 한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는 영락고 2학년 독서동아리 '연속 화가들'.

- 독서동아리를 통해 꿈을 찾는 학생들
- 수험에서 벗어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의 통로로 작용

지역과 상생하는 독서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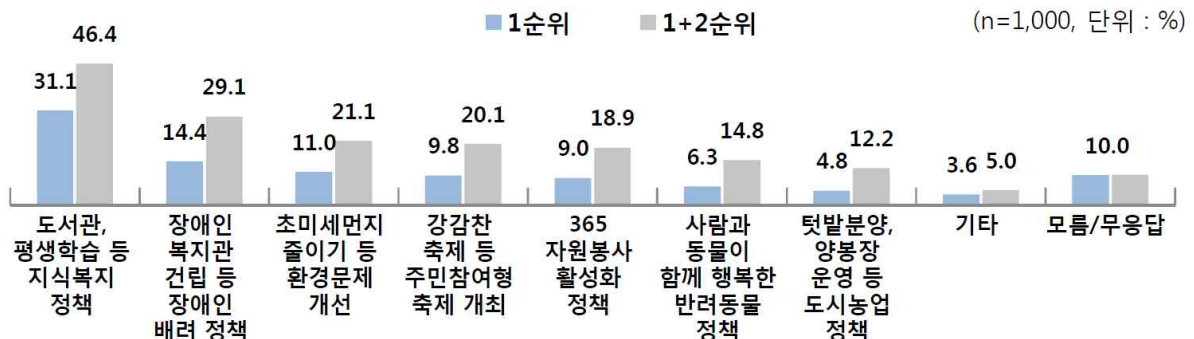
- 동네 서점의 영업부진
 - 서울시 전체 382개 중 관악구는 13개 영업중(2016년 기준)
- 독서동아리의 동네 서점 이용도 증가
 - 지역서점 이용하도록 워크숍에서 적극 홍보
- 밴드를 이용한 동네서점 후기 등록
 - 독서동아리 회원 간 가까운 동네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체감성

구민만족 No1.

관악구 주민 선정 '최고의 정책'

- 관악구민은 '도서관, 평생학습 등 지식복지 정책'(31.1%)을 관악구 시행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1순위기준)으로 평가



그래서, 관악에 살고 싶다.

- '학군 이사' 마저 주저않힌 관악구의 독서 생태계

"얼마 전까지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미리 인기 있는
학군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이 났죠.
하지만 그냥 남기로 마음을 굳혔고 이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도서관 과 독서동아리였어요"

- 관악구 삼성동 전순옥(47)씨 -

한재

'학군 이사'마저 주저않힌 독서구의 힘

독서 동아리가 273개로 서울 25개구 27%를 차지하는 관악구의 독서 생태계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 살고 있는 전순옥(47)씨는 얼마 전까지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미리 인기 있는 학군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이 났던 탓이다. 하지만 그냥 남기로 마음을 굳혔다. 전씨의 이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특이하게도 도서관과 독서 동아리였다.

"상호대차가 잘되는 도서관 시스템과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도서관, 독서 동아리 지원 등이 너무 맘에 들었어요. 다른 구로 가면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봤지요."

전씨는 도래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인 독서 동아리 '책의 선물'에 참여하고 있다. 전씨는 "독서모임은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친목 모임으로 변질되곤 해요. 하지만 이곳은 구의 지원과 네트워킹 활동으로 정체성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물론이고 다른 애들까지 볼 수 있게 시아가 트였습니다. 이름 높은 학군보다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전씨의 말처럼 관악구는 독서 동아리 생태계가 어느 구보다 잘 갖춰져 있다. 구에 등록된 독서 동아리가 모두 273개로, 서울 25개 구 전체인 1006개의 27%나 된다.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관악구는 '지식문화도시' '평생학습 인문학도시'를 표방하고 일찍부터 '책'의 가치에 주목해 왔다. 주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청에 도서관과를 운영하고 독서 동아리 관리와 지원에 힘을 쓰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 등록제가 대표적이다. 관악구에 사는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월 1회 이상 모임을 하는 동아리면 모두 등록할 수 있다. 구는 1년에 한 차례 공모를 해 선발된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한다. 2015년에는 80개 동아리가 총 3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89개 동아리에 각 30만~5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지원한다.

● 책 읽는 아이, 공부하는 엄마 - 책으로 경험하는 가족행복

한국일보

2016년 03월 23일 수요일 A25면 기획

‘줌마 놀터’에서 만난 책, 세상 보는 눈이 열렸죠

(돈 출판에 만든 공부방)



책, 공동체를 꿈꾸다

〈20〉 관악 보라매독서동아리

어느새 봄이 내렸다. 보라매 하늘은 맑아서 높고, 불어오는 바람은 산들산을 파스라다. 두꺼운 외투 앞 단추를 풀고, 골목을 새이 길 찾아 들어간다. 한때 이 언덕 가득 층층이 쌓였던 판잣집들은 건재했다. 재개발을 거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무성히 맞을 뿐이다. 가까이 풍채로 빛나는 기본이다. 철저한 가난 속에서도 인정을 다지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생계에 쫓겨서 고향을 옮기다 보니 보라매독서동아리다.

2층 다사랑문고 책들이 빼곡한 작은 공간이 아늑하다. 창으로 들어온 오후 햇빛이 가득한 중에 울렁울렁 아이들이 코를 비고 책을 읽는다. 재마단 대목이라도 읽는지 온 얼굴이 웃음이다. 아득해하던 마음이 찔로 누그러진다. 봄햇살씨가 입을 연다.

“오랫동안 서로 함께했습니다. 2006년부터니까 벌써 감성이 바뀌었네요. ‘밤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소비자생협이 들어왔어요. 생선자의 직접 연



생협협동조합 활동을 하다 이 길에 이리 길인지 공공해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는 보라매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모임 장소인 다사랑 문고에서 각자 좋아하는 책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다.

‘생협’ 조합원 주부들이 모여 시작 공부방 마련해 ‘줌마 놀터’라 불러

보라는 일은 사마를 걷는 일과 같다. 오아시스에 이를 때까지 체력을 아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에 간혹을 얹혀 두

가지 상상을 함께 실현했던 경험은 무척 소중한 다. 보라매 독서동아리가 2011년 이래 총체적 거르지 않고 한 달에 두 번 독서모임을 계속한 것은

일에 지친 힘이있어요. 아이를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여기서 독서모임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재밌게 찾아왔어요. 눈빛만 봐도 아는 분들이라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잘 받아 주셔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모임에 나오면 여행 떠나는 기분이 들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보라매 독서동아리 같은 오래된 독서공동체의 경우, 서트 다져진 관계로 생김 고유한 분위기 때문에 자칫 새로운 이가 참여하는 데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기존 회원들의 넉넉한 배려와 의식적 노력 없이는 외연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보라매 독서동아리는 이 부분에서 노하우가 생기면서 고비를 넘어선 듯하다. 한세에 이어 최근에는 장현선씨가 모임에 합류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유주희씨가 책으로 맘을 풀린다.

“예뻐 아자크의 ‘자기 앞의 생’을 읽고 이야기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슬프고 아름답고 행복한 작품입니다. 문장이 정말 좋았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살아있는 세월의 깊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 있었어요. 저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

“다른 모임이 햄버거를 먹는 간식이라면, 책 읽는 모임은 한 상 잘 차려서 먹는 정식입니다.

아주 영양가 있는 시간이지요. 책을 같이 읽는 모임은 나 자신을 축복하는 일과 같습니다.

읽고 이야기 하면서 한없이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죠.”

- 보라매 독서동아리 회원 임정화씨 -

● 독서왕 구두미화원, 독서홍보대사 되다

독서왕 구두미화원 “힘들 때 책은 마음 상처 치유”

관악구 독서홍보대사 임명된 구두미화원 김성자씨

출처: 2017-03-28

f w + ★

“책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긴다.
나보다 힘든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구나하는 생각에
나도 힘을 내자는 마음을 갖게 됐다”

지난 2년 동안 무려 400여권의 책 빌린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의 최고 단골! ‘관악구 독서홍보대사’로 임명된
-구두미화원 김성자(53)씨-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 례 명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직업진로체험부터 취미동아리활동, 학습과 소통까지 열린 청소년공간)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V)
관련공약	V-5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확대
사례요약	□ 목 적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을 조성하여 집 가까이에서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고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1. 1. ~ 계속. ○ 사업내용 - 지역의 유휴공간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자율 문화·소통공간 마련 - 직업진로체험부터 취미동아리활동, 자유로운 학습과 소통까지 열린 청소년공간 - 사업추진절차 <pre> graph LR A[공공·민간 유휴공간 발굴] --> B['또래울' 지정 운영] B --> C[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운영] C --> D[또래울 네트워크 및 운영활성화] </pre> □ 추진내용 : ① ‘또래울’ 발굴·조성 ② 프로그램 운영 ③ 네트워크&활성화 ○ 또래울 공간 운영 : 31개소 - 진로직업체험 12, 취미동아리 11, 학습&소통공간 8 ○ 또래울 조성 및 운영방법 ① 공공 및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로 지정·운영 ⇒ ②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 제공 ⇒ ③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 일부 지원(공모사업 방식 등) ⇒ ④ 신규 또래울 추가 발굴 및 운영 확대,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또래울 네트워크를 통한 운영활성화 - 또래울 버스 운영 : 2개소(송파·마천 청소년수련관) - 참가자 모집 ⇒ 버스운행(픽업) ⇒ 또래울 방문 ⇒ 체험활동 - 또래울간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및 운영활성화 ○ 또래울 연합 발표회 개최(연말) - 또래울 활동발표회(문화공연), 부스운영(진로직업체험, 청소년상담 등) - 청소년들의 재능 발휘의 기회 제공,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 추진효과 ○ 청소년시설 직접건립 없이 기존 공공·민간시설을 적극 발굴·활용 ➡ 예산절감 효과 UP ○ 민간 부문의 다양성과 전문성 적극 활용 가능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가능 ○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활용가능성 증대 및 지속가능한 정책모델 제시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직업진로체험부터 취미동아리, 학습과 소통까지 열린 청소년공간)

I

추진배경 및 방향

- ☐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공간 필요
 - PC방, 노래방이 아닌 건전하고 발전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 공공 및 민간의 유휴공간 활용
 - 대규모 청소년 시설을 신설하기에는 지방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태임.
 - 공공 및 민간의 작은 유휴공간들을 발굴하여 예산 투자없이 청소년들을 위한 새롭고 유익한 공간으로 탈바꿈.
- ☐ 자율적인 민간시설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극복
 - 새로운 시설, 새로운 인력 투자없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 시설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장려
- ☐ 민간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사업 추진을 장려
 -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및 장려하고, 그러한 시설들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 및 자부심 제고
- ☐ 건전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작은 공간 및 시설들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집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여가·체험공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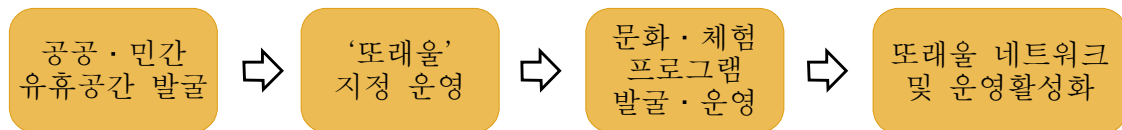
사업개요

□ 또래울 공간 운영 : 총 31개소

- 내용별 : 진로직업체험 12, 취미동아리 11, 학습&소통공간 8
- 시설별 : 동주민센터 9, 민간시설 11, 주민편의시설 5, 기존 청소년시설 6

□ 추진개요

- 사업추진 : 2015. 1월 ~
- 시설형태 「 유휴공간 : 직업체험, 취미동아리, 학습&소통
↳ 유타리 없는 공간 : 길거리축제, 공원&체육시설, 캠핑카 등
- 사업추진절차



□ 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운영

- 공모사업을 통한 운영단체 선정 및 지원
 - 지원기준 : 신규 특화사업 및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 지원분야 :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 일부 지원
- 또래울 연합회 회의 정례화
 - 참석대상 : 또래울 시설 대표자 및 실무자
 - 또래울 시설간 교류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연합회 전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사항 도출



시설별 운영사례발표



또래울 현안사항 회의

Ⅲ 운영 Theme

1. 집 가까운 곳에 우리들의 공간이~

- 송파구 총 27개동에 또래울 총 31개소 운영
- 조성사례
 - 동 주민센터 유허공간을 활용하여 또래울 9개소 조성
 - 밴드, 댄스, 난타교실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
 - 잠실대교 위 조형·미술 예술 작가 전시공간 개방을 통한 예술활동 경험

송파구 곳곳에
또래울이 있어요~



석촌동 주민센터
(학교밖 청소년 난타교실)



잠실본동 주민센터
(1:1 학습지도멘토링)



송파마을예술창작소
(송파사거리 지하보도)

2. 자유학기제를 알차게~, 진로직업체험 공간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 ➡ 진로직업체험 장소에 대한 수요 급증
-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제공하는 또래울
 - 한식에서 퓨전까지 요리실습 ⇒ 일촌공동체 또래울
 - 방송 카메라 기사를 꿈꿔요 ⇒ 또래울 미디어센터
 - 제과제빵 기술도 배우고, 빵나눔 봉사까지 ⇒ 다우리 또래울

내가 원하는
직업은 뭐까요?



일촌공동체 또래울
(영 셰프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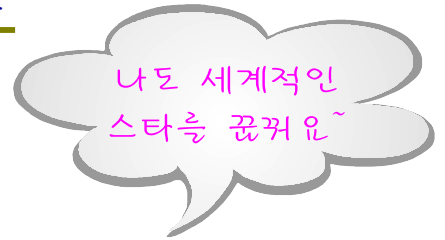
또래울 미디어센터
(행복주택 내)



다우리 또래울
(외국인 청소년 한국탐방)

3. 내일은 나도 K-POP 스타, 취미동아리 공간

- K-POP&한류의 거센 물결
 - ➡ 건전한 연습공간에 대한 수요 급증
- 청소년들 사이에도 문화공간의 다양성
 - ➡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용한 울타리 없는 문화공간 필요
- 조성사례
 - K-POP 또래울 : 아시아 지하보도 유희공간에 열린 댄스연습장 및 소공연장
 - 송파사거리 지하보도 내 청소년 기타 연주 및 재봉·목공·가죽 예술창작



K-POP 또래울
(아시아 지하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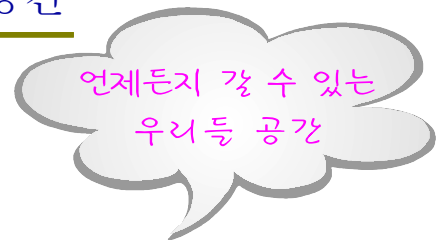
삼전동 주민센터
(악기 연습실)



송파예술마루
(잠실대교 위)

4.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학습&소통 공간

- 유해환경 없는 건전한 청소년 공간 필요
 - 독서실&공부방&상담실
 - 휴카페 ⇒ 청소년 쉼터, 학교밖 청소년 직업체험터



한빛 청소년 휴(休)카페



빛소 휴(休)카페



거여1동 문고

IV 지역자원 연계

□ 공공 및 민간의 유허공간 활용

- 대규모 청소년 시설의 신설 대신, 민간시설의 청소년 활동공간을 활용
- 새로운 인력 투입 없이, 기존의 민간 인력자원 연계

□ 운영사례

- 신축 행복주택 내 주민편의공간을 무상으로 지원
 - '또래울 미디어센터' 조성 및 '또래울 TV' 인터넷 사이트 운영
 - 운영자는 전직 방송국 카메라 기자의 재능기부로 운영
 - 학교 방송반 및 동아리 등 방송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방송교육 및 체험활동 등
- 좋은사람들 품물 자원 봉사단체
 - 송파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원봉사단체로 좋은사람들 또래울 운영
 - 전통가락(품물,난타)을 가르치어 마천·거여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예술적 재능 함양
 - 사회복지관 등 꾸준한 자원봉사활동
- 일촌공동체 또래울 슬로푸드(Slow Food) 문화전과
 - (사)일촌공동체 송파지점에서는 요리사 출신의 센터 대표의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 요리 프로그램을 개발
 - 패스트푸드에 양상 됨에 따른 비만·기억해체 등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청소년들에게 각인시킴
 -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직접 밥을 조리 또는 차려먹어 가정에서의 조리를 통한 집밥의 중요성 전파
 - 건강한 천연 식재료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여



또래울 미디어센터
방송장비 진로체험



좋은사람들 품물봉사



일촌공동체
어르신 밥차려드리기

V

네트워킹 및 운영활성화

□ 찾아가는 ‘또래울 버스’ -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 추진주체 : 청소년수련관 2개소(송파·마천)
- 사업기간 : 연중 ※방학기간 집중운영
- 대상인원 : 송파구 관내 아동·청소년(초·중·고)
- 체험내용 : 방송미디어, 요리, 수공예(한지·목공), 로봇공학, 과학실험 등
- 기대효과 : 또래울간 연계 및 교차이용을 통한 체험기회 확대
- 추진절차 : 참가자 모집 ⇒ 버스운행(픽업) ⇒ 또래울 방문 ⇒ 체험활동

진로체험
수요조사



참가자
모집&선
정



진로체험
버스운행



또래울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평가



□ 청소년축제 참여 및 부스운영 - 축제도 우리가 만들어요~

- 공연&행사 : 지하철역 음악공연 ‘행복나눔콘서트’ 외 5
- 부스 운영
 - 아동·청소년 **농자 페스티벌**(9개 또래울, 15개 부스운영)
 - 한빛마을축제(11개 또래울, 12개 부스운영)
-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
 - 청소년들 주도의 행사 운영 및 참여로 자존감 및 자신감 제고



□ 또래울 연합발표회 - 자랑하고 싶어요~

- 시 기 : 매해 연말
- 내 용
 - 또래울 활동 발표회(청소년 동아리 문화공연 등)
 - 또래울 운영 프로그램 체험부스 운영(진로체험 및 청소년 상담 등)
-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
 - 또래울 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로 프로그램 다양화
 - 또래울에 대한 홍보효과 등



청소년동아리 문화공연



부스체험활동

VI 추진효과

- 지역 문화공간을 토대로 한 테마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활용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청소년과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한 문화적 감성 함양
- 지역사회를 토대로 한 민간 부문의 재능기부와 연계한 다양성과 전문성 적극 활용
 - ▶ 민관 거버넌스(민관협력 사례) 구축 및 활용 가능
- 또래울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역 내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부산광역시 중구
사 례 명	전통과 현대의 양날개, 지역 문화 활성화로 문화도시 중구 비상하다 !!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선남·선녀 만남의 축제 등 개최, 보수동 책방골목 특화
사례 요약	□ 근현대 시설물을 재단장하고 스토리를 더하여 주민앞에 선보이다 ! ○ 전국 유일의 현책방골목인 보수동책방골목 특화 - 신독서거리 조성(2014년), 어린이도서관 건립(2014년), 차양 및 간판 설치(2014년), -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2014년~), 보수동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추진(2017~2020년), 글로벌스트리트 조성사업(2017~2018년) ○ 1934년 건설, 1966년 도개중단, 2013년 재도개를 거친 사연많은 영도대교를 새단장하고 스토리를 더하여 선보인 선남·선녀 만남의 축제 개최 - 사업기간 : 2014~2018년 - 사업내용 : 만남의 행사, 그 시절 가요공연, 악극 연주 등 □ 일상 속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 문화 활동공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다 !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 2017.7.4 개관, 총사업비 331억원(BIL), 국내최초 체험형 영화박물관 ○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 2010.12.8. 개관, 건립예산 2,100백만원, 책방골목특화 책문화관 ○ 고맙습니다. 글마루 작은도서관 : 2010.12.21. 개관, 건립예산 523백만원, 공립작은도서관 ○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 도서관 : 2014.8.23. 개관, 건립예산 700백만원, 공립작은도서관 ○ 40계단 문화관 : 2003.2.12. 개관, 총사업비 34억원, 복합역사문화공간 ○ 백산기념관 : 1995.8.15. 개관, 총사업비 24억원, 부산 유일 현충시설 ○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 2017.7.20. 개관, 총사업비 5억원,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 커뮤니티문화센터(금수현의 음악살롱) : 2013.7.25. 개관, 469백만원, 북카페/마을커뮤니티센터 □ 역사와 전통이 녹아있는 품격있는 원도심 대표 문화행사를 개최하다 ! ○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 매년 10월 개최, BIFF광장, 핸드프린팅개봉 등 ○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축제 : 매년 5월 개최,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 조선통신사의 밤 등 ○ 광복로 연등문화제 : 매년 4~5월, 광복로·광복중앙로일원, 개막점등식, 행렬, 축하공연 등 ○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 매년 12월 개최, 광복로등, 트리장식, 점등식, 문화공연등 ○ 중구송년음악회 : 매년 12월 개최, 50인조 오케스트라, 구립합창단, 성악공연 등 □ 장소별 특화된 문화공연으로 사계절 문화와 예술의 향기로 가득하다 ! ○ 원도심 관광명소 열린이벤트 : BIFF광장 중앙무대, 광복로 차없는거리 ○ 영도대교 문화공연 : 영도대교 도개시간에 맞추어 불거리 제공, 친수공간 활용 ○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구청 작은콘서트, BIFF광장 문화공연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으로 내실있는 문화단체 육성에 힘쓰다 ! ○ 문학·예술분야 지원 : 부산소설가협회, 부산초량왜관연구회, (사)국제PEN클럽부산지회 ○ 영상·미술·무용 분야 지원 : 부산국제단편영화제조직위원회,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등

전통과 현대의 양날개, 지역 문화 활성화로 문화도시 중구 비상하다 !

1. 근현대 시설물을 재단장하고 스토리를 더하여 주민앞에 선보이다 !!

1950년 6.25전쟁이후 군부대에서 나온 헌잡지.만화, 고물상으로 수집한 각종 헌책 등으로 노점을 시작했던, 현재 국내 유일의 헌책방인 “보수동책방골목”을 새롭게 재단장하고, 문화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34년 일본인의 자금과 기술로 건설되었던 도개교인 영도대교가 1966년 도개를 중단한 이후, 전면 개.보수를 거쳐 2013년 11월 27일 47년만에 도개하게 되면서, 힘들었던 그 시절 사연 많았던 영도대교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보수동책방골목 특화

- 책문화관 건립.운영 : 지상8층, 부지 112.7m², 연면적 568.9m², 21억(2010년)
- 신독서거리 조성 : 골목·계단 특화 L=635m, B=1~8m, 사업비 17억(2014년)
- 어린이도서관 건립 : 지상4층, 부지 89.90m², 연면적 195.39m², 7억(2014년)
- 차양 및 간판 설치 : 차양 46개소 간판·조명 47개 신규 설치, 2억(2014년)
-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 매년 10월 셋째주 금~일 3일간 개최, 1.5억, (2014~2018년)
-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 책방골목 콘텐츠 개발 지원 및 마중물 사업, 10억(2017~2020년)
- 글로벌스트리트 조성사업 : 보수동책방골목 환경개선사업 추진, 5억(2017~2018년)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전경	책문화관 내 북카페
	
보수동책방골목어린이도서관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 선남선녀 만남의 축제 (영도다리 올드앤영 만남의 축제)

- 사업위치 : 유라리 광장 일원
- 사업규모 : 공연, 이벤트, 체험행사 등
- 사업기간 : 2014~2018년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만남의 행사, 그 시절 가요공연, 악극 연주 등

올드앤영 만남의축제(선남.선녀 만남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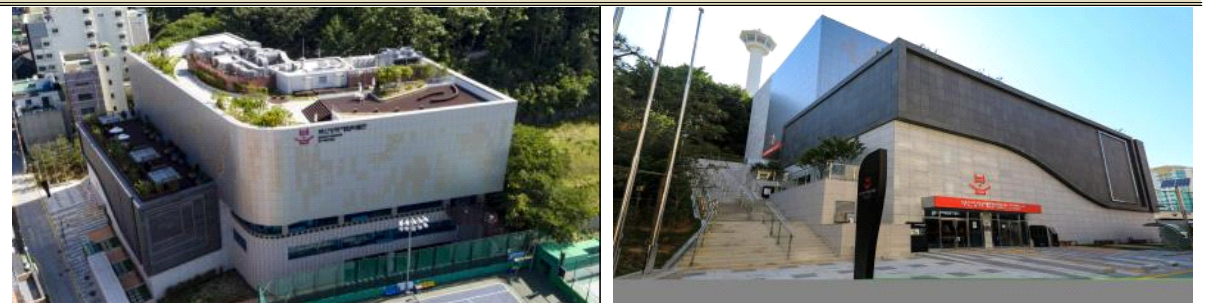
2. 일상 속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 문화 활동공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다 !!

2007년 12월 중구청장으로 취임이후, 원도심이 타지역에 비해 문화소외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문화사랑방 역할을 해 줄 문화 활동공간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민선6기에 이르러 “문화도시 중구”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음.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 개 관 일 : 2017. 7. 4
- 규 모 : 부지 4,469.1㎡, 연면적 11,300㎡(지하3층, 지상4층)
- 총사업비 : 331억원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임차기간 : 20년
- 주요시설 : 영상홀, 강의실,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장, HMD, VR 체험관 등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외부전경



□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 건립일자 : 2010. 12. 8 [규모 : 지상 8층, 연면적 568.85㎡]
- 수용시설 : 안내실(1층), 책박물관(2~3층), 이벤트홀(4층), 사무실(5층), 북카페(6층), 어린이 책사랑방(7층), 하늘정원(8층 옥상)

□ 고맙습니다. 글마루 작은도서관

- 건립일자 : 2010. 12. 21 [규모 : 지상 2층, 연면적 198.85㎡]
- 수용시설 : 서가, 다목적실, 강연회장, 공중화장실 등



□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 도서관

- 건립일자 : 2014. 8. 23 [규모 : 지상 4층, 연면적 195.39㎡]
- 수용시설 : 열람실, 북카페, 서고, 사무실 등

□ 40계단 문화관

- 건립일자 : 2002. 12. 9 [규모 : 지상 6층, 연면적 1,466.21㎡]
- 전시자료 : 상설전시실 패널 24점, 영상기계 4점, 전시소장품 190점



□ 백산기념관

- 건립일자 : 1995. 8. 7 [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430.52㎡]
- 전시자료 : 유품 10종, 44점, 사료 43점

□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 건립일자 : 2016. 6. 20 [규모 : 지상 3.4.6층, 연면적 728.18㎡]
- 주요내용 : 문화강좌 운영, 전시, 시설대관 등



□ 커뮤니티문화센터 금수현의 음악살롱

- 건립일자 : 2013. 7. 25 [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132.7㎡]
- 주요시설 : 소공연장.사무실(지하1층), 북카페(지상1층)



□ 포따포가 (원도심창작공간)

- 포따포가 의미 : 관용, 배려,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톨’레랑스 (Tolerance)에서 ‘포’를 가져오고 ‘따’로 활동하지만 ‘포’ 같이 활동한다는 의미와 거리나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 ‘가’(街)를 합성한 우리말
- 명 칭 : 원도심 창작공간(포따포가) 운영지원 사업
- 위 치 : 부산시 중구 중앙동/동광동 일대(40계단 반경 500미터 안)
- 기 간 : 2010년-2012년(1차), 2013년-2015년(2차), 2016-2018(3차)
- 사업규모 : 23개소 77실 ▷ 3년간 임대료 지원
- 입주현황 : 음악, 문학, 영상, 미술 예술가 및 단체 (개인 38명, 단체 31팀)
- 입주조건 : 창작 공간 통합사업 참여,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등
- 사 업 비 : 시비400백만원(2016년 400백만원, 2015년 430백만원, 2014년 400백만원)

3. 역사와 전통이 녹아있는 품격있는 원도심 대표 문화행사를 개최하다 !!

중구만이 가진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품격있고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 BIFF광장에서의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개최, 조선
 통신사 행렬 재현, 전국 규모의 문화축제 원도심 대표 문화행사 지속적인 추진

□ 원도심 대표 문화행사

연번	행 사 명	기 간	장 소	내 용
1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매년 10월	BIFF광장 일대	경관조명점등식, 핸드프린팅 개봉 등
2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축제	매년 5월	용두산공원, 광복로.광복중앙로	조선통신사 한마당, 평화의 행렬 등
3	광복로 연등문화제	매년 4~5월	광복로.광복중앙로	개막식, 장엄등 및 거리등 전시, 연등행렬 등
4	백산전통문화한마당	매년 5월	광복로 시티스폿 일대	전통음악 공연 및 풍물마당 등
5	산복도로 달빛 작은음악회	매년 5, 9월	대청공영주차장	크로스오버 클래식, 퓨전국악, 중창공연 등
6	40계단 문화축제	매년 10월	40계단	40계단가요제, 전통문화 공연 등
7	부산자갈치축제	매년 10월	자갈치시장 일대	개막식, 수산물체험프로그램 등
8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매년 10월	보수동책방골목 일원	개막식, 1책방1이벤트, 심포지엄, 게릴라콘서트 등
9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매년 11월	광복로, 부산근대역사관	작가서명회, '밀다원시대' 세미나 등
10	영도대교 올드앤영 만남의 축제	매년 11월	유라리광장	공연, 이벤트, 체험 등
11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매년 12월	광복로.광복중앙로	트리장식 및 점등식,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12	중구송년음악회	매년 12월	롯데백화점 문화홀	오케스트라, 성악공연 등
13	부산해맞이축제 시민의종 타종식	매년 12월31일	용두산공원	송년음악제, 타종, 부산찬가 합창 등



4. 장소별 특화된 문화공연으로 사계절 문화와 예술의 향기로 가득하다 !!

생활 속 문화향유를 위해 관광객을 위한 관광명소 열린이벤트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산복도로 달빛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장소별 특화된 문화공연으로 문화.예술향기로 가득한 중구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원도심 관광명소 열린이벤트

- BIFF광장 중앙무대 : 청년층 중심 프로그램 구성
 - 2014년 3~11월 매월 둘째주 금요일, 마지막 수요일 매년 총 5회 실시
- 광복로 차없는 거리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2014년~ 3~11월, 매월 셋째주 일요일, 매년 총 9회 실시



□ 영도대교 문화공연

- 영도대교 도개시간에 맞추어 볼거리 제공, 친수공간 활용
 - 2014년 3~6월 9~11월, 매주 토요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매년 35회



□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구청 작은콘서트 : 클래식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12:30~13:00)
- 직장인을 위한 BIFF광장 문화공연 : 젊은 트렌드 반영(18:30~20:00)



□ 함께 나누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

- NICE 중구 갤러리 운영 : 주민자치회 수강생 도자기전, 시화전 등
- 산복도로 달빛 작은음악회 : 연2회, 클래식중창단 공연 등



5.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으로 내실있는 문화단체 육성에 힘쓰다 !!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원도심 문화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문화예술분야 지원

- “중구 거리시 한마당” 행사 지원 : 매년 5월 중, (사)국제PEN한국본부부산지회
- “백년어서원 서평쓰기 공모” 행사 지원 : 매년 9월 중, 문화사랑 백년어
-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 매년 11월 중, 부산소설가협회
- “새띠벌의 메아리” 책자 발간 : 연2회 발간, 부산초량왜관연구회

□ 영상·미술·무용 분야 지원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 매년 4월 중,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산전승공예전 지원 : 매년 5월 중, 부산전승공예보존회
-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전 지원 : 매년 10월 중,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 민주공원 예술문화축전 지원 : 매년 10월 중,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구립합창단 운영 활성화

- 대 상 : 참숯합창단(34명), 아라소년소녀합창단(21명)
- 공연일정 : 정기발표회(9월중), 송년음악회(12월중) 등 수시 문화예술공연 참여

□ 문화예술분야 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액(천원)
1	(사)부산불교연합회	부산연등축제 광복로 연등문화제	2014 ~2017	30,000
2	(사)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2014, 2015	20,000
3	(사)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2016, 2017	50,000
4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추진위원회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2014 ~2017	30,000
5	문화사랑 백년어	백년어서원 서평쓰기 공모	2014 ~2017	3,000
6	(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중구 거리시 한마당	2014 ~2017	3,000
7	부산초량왜관연구회	<새띠벌의 메아리> 도서 발간	2014	5,000
8	부산초량왜관연구회	<새띠벌의 메아리> 도서 발간	2015 ~2017	6,000
9	부산초량왜관연구회	초량왜관 역사문화지도 제작	2017	10,000
10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공원 예술문화축전	2014 ~2017	3,000
11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전 및 부대행사	2014 ~2017	3,000
12	부산전승공예보존회	부산전승공예전	2014 ~2017	1,000
13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우리 골목 전시회	2014 ~2017	3,000
14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2014 ~2017	41,000
15	40계단문화사업회	40계단문화축제	1999~계속	12,000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부산광역시 서구
사 례 명	우리나라 제1호 송도해수욕장의 사계절 관광·명품해수욕장으로 도약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사례 요약	○ 사업개요 ▷ 명 칭 :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 위 치 : 부산 압남동 송도해수욕장 동·서편 일원 ▷ 규 모 : 송도1구역 - 거북섬테마휴양공간(거북섬정비, 배조형, 구름산책로 등) 송도2구역 - 오션파크조성(축제의 광장, 젊음의 광장, 힐링 광장 등) ▷ 사업비 : 171억원(공사 116, 매립 44, 기타 11) ▷ 기 간 : 2012 ~ 2017년 ○ 추진사항 ▷ '16. 05 : 송도1구역 공사(거북섬정비 및 구름산책로) 완료 ▷ '17. 03 : 송도2구역 공사(오션파크 상부시설) 완료 ○ 주요성과 ▷ 문 제 점 :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의 여름철 한계절 관광객 집중되어 4계절 다양한 연령층이 찾을 수 있는 국민해양휴양 관광인프라 구축이 요구 ▷ 장애극복 : 4계절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부지확보, 콘텐츠 개발 - 국가 선도사업 지정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육성사업 선정('11. 12)으로 100억원 지원 - 인프라 구축 부지 확보 : 방치된 거북섬, 오션파크(공유수면 매립) 부지 확보 - 콘텐츠 개발 : 거북섬 스토리텔링, 구름산책로,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주요성과 - 적합성 : 4계절 관광객 방문이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창의성 : 방치된 거북섬을 정비하고 스토리텔링(어부와 인용의 사랑)을 발굴, 바다위를 걷는 구름산책로, 도심속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조성 - 소통성 : 주민설명회, 의회보고, 정부 설명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송도 구름산책로의 이름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소통을 통한 화합 도모 - 확산가능성 : 신문, TV를 통해 전국 홍보가 이뤄졌으며, 다른 지자체의 방문, 자료 요청 문의가 많으며 SNS를 통한 관광인프라의 파급효과가 뛰어남 - 체감성 : 관광객의 급증과 상권의 다양화로 인해 지역주민 호응도가 아주 높음

1 | 사업 개요

○ 주요 현황

- ▶ 부산 송도해수욕장은 대한민국 공설 제1호(1913년 개장) 해수욕장으로 2005년 연안정비사업 후 년 5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품 해수욕장임
- ▶ 그러나 여름철 한계절 관광객의 집중으로 사계절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국민여가 해양휴양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대두
- ▶ 이를 위해 ‘11년 정부(해양수산부)의 「연안 유희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 선도사업으로 부산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을 추진

○ 사업 개요

- ▶ 명 칭 :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 ▶ 위 치 : 부산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동·서편 일원
- ▶ 규 모 : 송도1구역 - 거북섬테마휴양공간(거북섬정비, 배조형, 구름산책로 등)
송도2구역 - 오션파크조성(축제의 광장, 젊음의 광장, 힐링 광장 등)
- ▶ 사업비 : 171억원(공사 116, 매립 44, 기타 11)
- ▶ 기 간 : 2012 ~ 2017년

2 | 추진 사항

- '11. 12 : 정부(해양수산부) 연안휴양시설 조성 선도사업 지정
- '12. 05 : 오션파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부산 항만청)
- '13. 07 : 송도1구역 1차공사(거북섬정비) 완료
- '15. 10 : 송도2구역 공유수면 매립 완료
- '16. 05 : 송도1구역 2차공사(구름산책로) 완료
- '17. 01 : 송도2구역 오션파크 상부 기반시설 완료
- '17. 03 : 송도2구역 오션파크 상부 편의시설 완료

○ 송도해수욕장의 한계

- ▶ 2005년 연안정비 사업으로 해수욕장의 기반시설(양빈, 잠제 등)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송도해수욕장 조성
- ▶ 그러나, 여름철 한계절 관광객 집중 되어 있고 다른 계절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임
- ▶ 횃집 등 상권의 획일화와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 되지 않음
- ▶ 송도해수욕장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4계절 다양한 연령층이 찾을 수 있는 국민해양휴양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

○ 노력(장애극복 대책)

☞ 4계절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부지확보, 콘텐츠 개발

- ▶ 예산확보 : 정부 해양관광육성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유치('11. 12) 후 사업비(100억원) 확보
- ▶ 부지확보 : 해양관광육성사업을 위한 배후 부지 조성 노력하여 방치된 거북섬과 오션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추진
 - 공유수면 매립 추진 : 당초 매립비의 정부지원에 대한 방침 변경에 따라 매립비에 대해 전액 구비로 재정사업 추진
 - 매립예산 확보 : 당초 매립비 96억원이었으나, 매립토의 무상무대 반입 유관기관 협의 및 공법개선 등을 통해 사업비 46억원 절감
- ※ 구 재정사업 추진 : 50억원(지방채 발행)
- ▶ 콘텐츠 개발
 - 송도1구역
 - ┌ 거북섬을 정비하여 장수굴, 거북조형물 등 조성
 - └ 스토리텔링(어부와 인룡의 사랑)과 구름산책로 조성
 - 송도2구역
 - ┌ 축제와 운동여가 시설인 축제의 광장 및 젊음의 광장
 - └ 저가형 숙박시설(오토캠핑장)을 위한 힐링의 광장

4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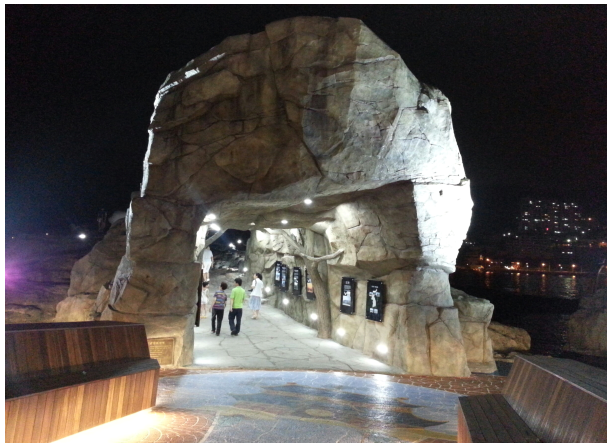
○ 4계절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송도해수욕장 관광객 증가

연 도 별	관 광 객	전 년 대 비	비 고
2016년	948 만명	증 26 %	송도1구역 전체 준공
2015년	753 만명	증 54 %	송도1구역 부분 준공
2014년	490 만명	감 26 %	
2013년	668 만명	증 14 %	
2012년	584 만명	증 5 %	
2011년	555 만명		

※ 2017년 예상관광객 : 약 1,100만 (증 16% 정도, 송도2구역 준공)

○ 송도1구역 - 거북섬테마휴양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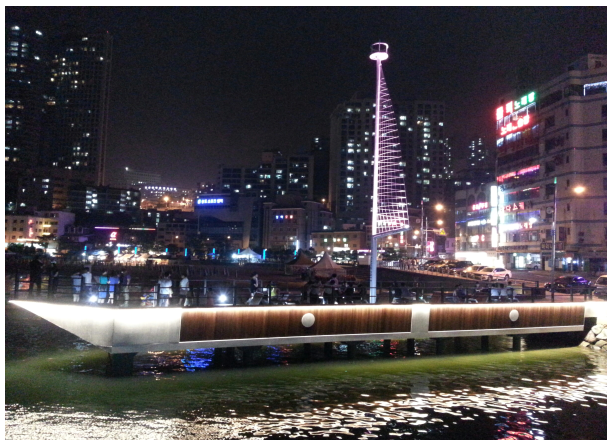
- ▷ 거북섬 정비 : 장수굴, 거북조형, 연육교 정비, 해상카페 조성, 방파제정비, 파제벽 디장인타일 시공(송도100년사, 서구10경 등)



장수굴



연육교



해상카페



거북조형



장수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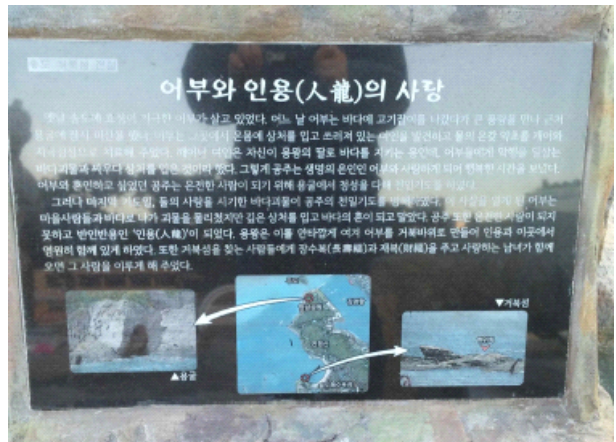


연육교

- ▶ 스토리텔링 구축 : 어부와 인룡의 사랑이야기 개발하여 송도를 찾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재 개발



어부와 인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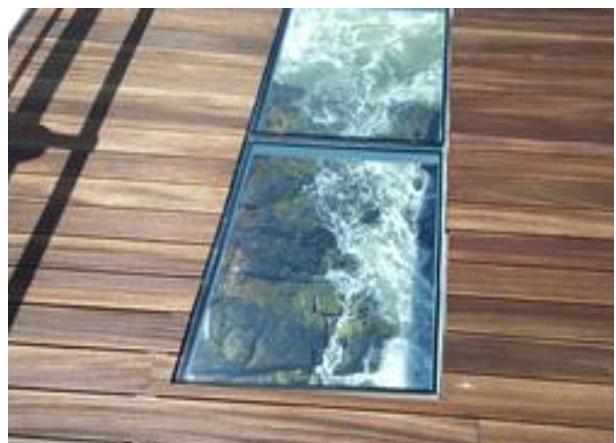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 ▶ 체험시설 마련 : 바다를 조망 할 수 있고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구름산책로를 조성하여 여가와 휴식, 재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테마구성



구름산책로



강화유리

○ 송도2구역 - 송도오션파크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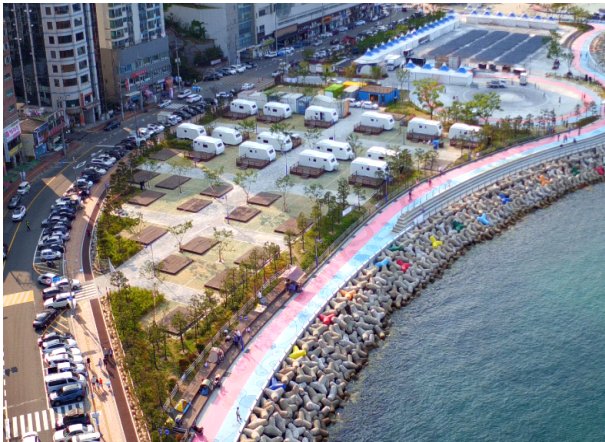
▷ 축제·젊음·힐링의 광장 및 해안산책로 구성



축제의 광장



젊음의 광장



힐링의 광장



해안산책로

▷ 지역축제유치 : 오션파크내 부지 활용 다양한 지역축제 유치공간 확보



전국노래자랑



송도케이블카 개장식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 례 명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체험하는 즐거움이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사례요약	■ 추진배경과 목적 ○ 사하구는 도시기반 시설과 생활환경,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부산 16개 구·군 중 발전이 가장 더딘 지역으로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낮음 ○ 이에 사하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생태자연 자원의 고유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최대한 살리는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추진방향 ○ 주민이 문화공급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창의력을 발휘 ○ 지역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 일상 속에서 주민을 문화생산자, 매개자로 육성해 문화공동체 구현 ○ 사하의 역사적 문화유산과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 ■ 문화예술 생활 조성을 위한 노력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 속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 • 1동 1작은도서관, 두송생활문화센터, 지역 커뮤니티공간, 젊음의 거리 ○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지원을 통한 특색 있는 지역문화 융성 • 사하 모래톱문학상, 사하 예술제, 생활문화예술연합회, 골목축제 ○ 사하의 옛 이야기를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 • 다대진성 흔적찾기, 창작오페라 운흥신 제작, 다대포 후리소리 ○ 사하의 생태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 • 사하 에코문화탐방,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 나타나는 성과 ○ 동네에 뿌리 내린 생활문화 공간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을 통해 거점·생활권형 조성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접근성 향상 ○ 문화시설이 늘어나면서 자생적인 문화단체의 설립 ○ 이름조차 낯설었던 ‘사하’라는 지역의 친근감 상승, 높아진 주민만족도



문화와 예술이 주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 사하



I 추진배경 및 목표

- 사하구는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공장 등 기피시설이 많고 임대주택 밀집 지역이 있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반면, 보고 듣고 즐길 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여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낮음
-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필수이며,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드웨어적 발전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사하구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 을숙도를 비롯한 낙동강, 다대포해수욕장 등 훌륭한 생태자원과, 다대진성 등 가치 있는 문화유적과 역사적 인물이 있어 이를 발굴해 **현대적인 가치로 재해석**한다면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많음
- ▶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지역의 고유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최대한 살려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미를 찾아 즐기면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체화시킴

II 지속가능성을 위한 추진방향

■ 문화공급의 주체인 주민과 행정의 유기적 관계 형성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즐거움을 만들어가며, 행정은 문화 공급의 주체가 아니라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공간 제공 등 환경을 조성

■ 지역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 10명 내외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전동 작은도서관에 구성하여 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결정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 지역주민이 문화생산자, 문화수요자, 문화매개자로 동참하여 문화 활성화에 기여

■ 일상 속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공동체 구현

- 생활 속 어디에나 있는 문화공간에서 주민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화를 공급하고 소비하며, 길을 가다가도 멈추어 서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조성

■ 역사적 문화유산과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

- 오래되고 낡은 역사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찾고, 기존 사하가 가지고 있는 경관과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컨텐츠 개발로 도시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상승

III 문화예술 생활 조성을 위한 노력

1.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 속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

1-1 아이들의 지식·문화 놀이터, 어르신들의 문화사랑방 1동 1작은도서관

- 사하구의 아파트 보급률은 부산시 전체 4위(15.6%)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화 노인 인구의 증가 등, **세로 골목 형성 및 고령화 시대에 따른 근거리 문화 공간 필요**
- 동별 1개소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6개 작은도서관을 구축, 주민생활권 내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즐기는 평생학습 및 문화소통 공간을 창출
- ※ 2016년 「평생학습 주민 요구조사」 결과 ⇒ 참여기준 : 1위 학습주제(50%), 2위 거리(24%)

- **부산 유일** 전동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區운영협의회를 통해 발전방안 강구
- **주민의 힘으로 재탄생되는 동별 특화**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 ① 무지개 작은도서관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작은도서관
- ②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 민·관협업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 ③ 두송 작은도서관 : 주민들의 기부와 참여예산 제안, 명칭 주민공모로 재탄생
 - ▷ 주민참여예산 2천만원, 단체·주민 기부(1천만원)로 10년 만에 리모델링한 작은도서관
- ④ 노을나루길 작은도서관 : 무궁화 복지월드와 주민들의 **도서 기증 및 재능기부**

- ▷ 주민의 힘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 내 최고의 공간 재탄생

- 작은도서관 운영자 순회·역량강화교육, 워크숍 등 실시

- ▶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체험하기·만들기, 다독왕 선발대회,** 구민과 함께하는 책 나눔 행사 등 **지역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주민들의 지역 문화 거점으로써의 역할 수행**

- ▶ 작은 도서관은 대부분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등에 QR코드 제작·배포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16번째)



1-2 창작예술가와 공단근로자, 주민이 함께 문화를 교류하는 **홍티예술촌**

- **부산 최초** 공단 내 문화예술 거점시설인 「**홍티아트센터**」를 조성하여 예술인 창작지원,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홍티아트센터가 해오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2015년부터 「**홍티예술촌**」 조성을 시작하여 주민과의 예술적 교류 강화
 - ☞ 홍티아트센터를 연계한 홍티마을 예술촌 조성으로 낙후된 오지마을을 문화공간으로 창조적 재생



1-3 폐목욕탕의 이유있는 변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예술공간 **두송생활문화센터**

- 저소득 밀집지역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방치된 유휴시설인 폐목욕탕**을 **부산시 최초** 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근접성 높은 지역 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함
- **두송생활문화센터 건립 개요**
 - 은광탕은 2006년 3월 문을 닫은 뒤 9년간 방치되어 미관 및 주민 안전 저해
 - 2014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공모사업 선정 ▷ 865백만원
 - 2015년 5월 다목적홀, 갤러리, 연습실, 연주실을 갖춘 문화시설로 개관
- 예술가들의 재능기부와 문화창작활동 공유로 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욕구 충족
- 수혜자로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제공자로서의 능동적 문화 창출의 주체**로 성장 토대 마련



1-4 예술과 문화가 숨 쉬는 버스킹 공연 거점 **젊음의 거리**

- 하단오거리 일대는 동아대 승학캠퍼스와 하단오일장이 위치하고 전국 100대 상권 가운데 52위를 기록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문화시설 확충 필요성이 큼
-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리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여 길거리 공연 등 **젊은 문화콘텐츠 개발**과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인근 상인들과 함께 중심이 되는 일상 속 생활문화행사로 발전



☞ **젊음의 거리공연! 불금 버스킹데이** :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젊은 취향의 장르 거리 공연

1-5 문화축제의 장(場) 친수 문화공간 **다대포 해변공원**

- 방사림, 해수천, 생태탐방로 등의 조성으로 드넓은 **백사장이 주민 친화공간**으로 변모하여 문화·예술·복지·체육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며 **주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함
-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여 책 나눔 행사,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화를 창출**함



1-6 아파트 사이의 회색 공간이 도서관과 녹색공원으로 **창조커뮤니티 존**

- 5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에 둘러싸여 삭막한 **회색공간**이었던 아파트 사이의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책을 읽고
-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작은도서관**과 **낮게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용 공간으로 재탄생



1-7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 **회화나무샘터공원**

- 마을공동체 여러 요소를 그대로 품고 있는 650년 수령의 회화나무와 샘터, 공동빨래터를 원형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감각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
-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샘터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 제공



☞ IAEC 세계총회 우수사례 선정·발표,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장관상 수상

2.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지원을 통한 특색 있는 지역문화 육성

2-1 사하人, 사하예술의 어울림 ‘일상이 예술이 되는’ **사하예술제**

- 지역문화예술단체, 동호회, 학교 등이 해마다 한자리에 모여 문화 화합의 장을 통한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을 펼치는 종합문화예술행사
 - 축제를 통해 지역민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예술인들은 무대공연을 통해 성장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품격도 함께 높이질 수 있는 계기 마련
- ▷ 2016년 개최 실적 : 문화예술단체 등 85팀(전년대비 12팀 증가), 3,800여명 참여

사하구, '제3회 사하예술제' 성황리 개최
민간리더스협세신문 readers@readers.kr



2-2 1300리 낙동강을 흘러 사하로 모여든 **사하 모래톱 문학상**

- 사하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역사·문화 등을 소재로 한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학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2015년에 첫 제정되어, 제2회 공모전에선 전국에서 소설·시 등 419점이 접수되어 사하구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함



2-3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동아리 **생활문화예술연합회**

- 2016. 6월 **부산 자치구 중 처음**으로 '사하구 생활문화연합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50여개의 동아리가 참여하는 '사하구생활문화예술제'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
- 아마추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예술창작활동, 동아리 연합공연, 전시 등 네트워크 기반 지원으로 생활문화도시 구현에 기여함

2-4 엄마아빠 추억의 놀이·먹거리 찾아 골목여행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 기획부터 운영까지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마을주민협의회에서 주도하는 **부산의 대표축제**로 주민의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축제로 마을의 문화·지역자원을 활용
- 올해 7회째를 맞이한 골목축제는 매년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꾸준한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임 ▷ '17년 61천명 방문

2-5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기관·단체 지원

- 사하구 거주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소년소녀합창단」은 2012년 5월에 창단한 이후로 구 대표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며 지역문화예술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
 - ☞ 제주세계합창경연대회 금상 수상(2014), 이즈미시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2017)
- 「장미여성합창단」은 여성의 자기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1990년 5월에 창단되어 지역문화 봉사 활동에 힘씀

3. 옛 이야기를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사하

3-1 알려지지 않은 임진왜란 첫 승지 다대진성 흔적찾기

- 다대포는 낙동강 하구에 자리하고 있어 예부터 국방의 요충지로 주목받은 곳이며 다대진성은 부산진성, 동래읍성과 더불어 3대 성곽으로 역사적 의미가 큼
- 다대진성의 복원을 통하여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역사와 충절의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되살림
- 「임진왜란 첫 승지, 다대진성과 만나다」 포럼 개최로(17.5.26.) 축성과 역사적 의의, 다대진성 전투, 복원과 활용방안 토론
- 인식제고를 위한 주민 참여 연극 '여가 바로 다대진성이라카이!' 연극단 출범



3-2 다대진성을 지켜라! 잊혀진 역사 재조명 창작오페라 윤희신

- 윤희신 장군은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명문가에서 태어나 임진왜란 당시 다대진성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고 순절하기까지의 일대기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만함
- 윤희신공의 일대기를 오페라로 재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다대진성과 스토리텔링 요소를 결합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창작오페라 추진개요
 - 2016. 3~10월 : 프로젝트팀 및 데스크포스팀 구성
 - 2017. 1월 : 작품완성 ■ 2017. 3월~ : 섭외 및 홍보
 - 2017. 7월 : '을숙도 오페라 축제' 시 최초공연



【제3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좋은 공연, 저렴한 입장료’라는 목표 아래 2015년부터 시작된 오페라 축제는 지역예술인들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오페라를 생활 속에서 손쉽게 접하도록함

3-3 멀치잡이 후리질에 따라 부르는 어로 노동요 다대포 후리소리

- 1987년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대포 후리소리는 가사와 곡조가 완벽하게 전승되어온 귀중한 민속자료로
- 사하만이 가진 특색 있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임
 - ☞ 후리소리 전수교육 매월 2회, 후리소리 전수 장학생 선발('16년 10명)



4. 사하구만이 지니고 있는 자연, 생태 그리고 문화 이야기

4-1 자연·생태·문화가 어우러지는 체험투어 **사하에코문화탐방**

- 을숙도, 아미산전망대, 다대포, 감천문화마을 등 사하구의 거점별 대표 문화명소 체험을 통한 사하 알리기, 차별화된 문화체험 기회제공으로 사하 기억하기, 문화자원 소개로 사하 이미지 제고
- 사하구와 사하문화원의 협력사업으로 2016년 처음 시행하여 13회, 361명이 참가하는 등 인기리에 운영



4-2 자연과 내가 하나되는 생태체험 교육의 장 **다대포 생태체험학습장**

- **부산 유일**의 모래 갯벌 체험 장소로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 특성상 재첩, 엽낭게와 조개 등의 관찰이 가능하며
 -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갯벌체험도구 무료 대여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체험 기회 제공
- ☞ 2016년 이용인원 : 20,727명



IV 나타나는 성과

1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접근성이 높아져 주민들은 “동네에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합니다.

● 동네마다 구석구석 뿌리내린 **생활문화 놀이터**

- 동네마다 조성된 「작은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운영할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의논하면서 마을의 사랑방이자 지식·문화의 놀이터로 마을 문화공동체의 거점역할
- 문화시설을 갖춘 「두송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들은 노래하고 악기를 익혀 다목적홀에서 성과발표회를 열고, 직접 만들고 꾸민 ‘작은 전시회’ 작품전을 개최

●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우리동네 음악회**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 공원·아파트 단지 등 유휴공간에서 전문예술인, 지역문화예술동호회 등이 참여하여 기악, 성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개최
-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생활문화동아리에게는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 ☞ 2016년 추진실적 : 2,300여명 관람

● 우리 동네 영화관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 공원, 아파트 등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최신 영화 상영으로 일상 속에서 손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이웃 간 만남의 기회도 제공

● 수동적 문화향유에서 능동적 문화체험으로~ 길거리 라이브(버스킹) 공연

- 다대포해변공원, 회화나무샘터공원, 동아대 젊음의 거리에서 무대공연 희망자에게 라이브 공연 무대를 제공하여 문화소통 및 흥겨운 사하 만들기 실현

☞ 2016년 추진현황 : 총 23회 공연, 16개팀 참가 1,790여명 관람



2 지역사회의 자생적 문화예술단체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하구를 활동 지역으로 정한 「부산베누스토주니어오케스트라」

- 부산 동구에 자리를 잡은 성인 연주자들이 주축이 된 베누스토오케스트라와 달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단원들이 2015년 12월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부산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BRPO)

- 2015년 패기 넘치는 지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며 사하구민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오케스트라로 올 7월 창작오페라 '윤홍신' 공연 예정



사하?? 에서 사하!! 로 자신이 사는 지역을 자랑스러워합니다.

● 이름조차 낯설었던 '사하'라는 지역의 친근감 상승

- 감천문화마을, 다대포해변공원 등이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부상해 해마다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세계 외신기자단이 방문하는 등 국내·외 벤치마킹 쇄도
- 대내외적으로 사하구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주민들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도시가 조성 되자 구민의 만족도는 높아짐

V | 향후계획

■ 유허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나누는 동네방네 학습관 운영



- 지역 내 각종 시설의 유허공간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모여서 학습하고 소통하며, 주민 거주 근거리에 커뮤니티 문화 공간으로 활용 ▷ 2017년 20개소 지정 목표

■ 지역 예술인과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문화단체의 출범이 문화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 방안 강구

■ 빈 공장을 활용하여 창작·전시 등을 위한 다기능 복합문화공간 조성

-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전시·판매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합형 문화건물 건립

■ 사하구만의 생태자연 자원을 활용한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 콘텐츠 지속 개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 례 명	“ 결혼! 저출산 극복의 첫 단추 ”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지원팀” 신설(공약 16)
사례요약	 추진배경 ○ 최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독신가정 증가,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심각 ○ <u>결혼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2016.8.10~9.9)한 결과, 만남의 장 마련, 결혼장려 홍보 캠페인, 작은 결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특색있는 작은 결혼식 공간확대, 부모님의 인식전환</u> 등으로 <u>다양한 결혼장려 시책 필요</u>  추진체계 구축 ○ (2016.07.13) 전국 최초 결혼장려팀 신설 → 타자치단체 파급(전파) ○ (2016.12.01)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전국 최초)  추진내용 ○ (실태조사) 결혼 토크쇼, 결혼관련 인식 설문조사, 게릴라인터뷰 및 움직이는 보드판 ○ (인식개선) 결혼전략 설명회, 홍보부스, 컬러풀퍼레이드 참여, 결혼친화 서포터즈단구성 ○ (만남) 책만남 깜짝 이벤트, 썸남썸녀 매칭행사,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고고미팅’, 미혼남녀 싱글커뮤니티 ‘썸타는 동아리’ 운영, 사랑의 끈맺기 워크숍 ○ (결혼준비/결혼) 결혼장려추진협의회 구성, 공공장소 결혼식장 확대 개방, 결혼친화 공원조성, 웨딩플래너 양성과정 ○ (결혼생활) 맞춤형 결혼상담실 운영, 홈페이지 및 달서웨딩카페구축, 지원내용 리플렛 배부  사업효과 ○ “만남에서 결혼”이 “행복한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저출산 극복 및 건강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희망 청년도시 건설 ○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및 예비(신혼)부부 교육 등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작은 결혼식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 ○ 결혼의 의미와 중요성 확산으로 청년 결혼친화 도시조성 및 인구절벽 문제에 선제적 대응 ○ 생애주기별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한 건강한 청년 결혼문화 제고 ○ 타 자치단체 전파 : 충북 청년지원과, 대전 서구 여성가족과,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 ‘가정의 달 기념 유공 포상’ 에서 전국 지자체 중 대통령상 수상(여성가족부 주관)  향후계획 ○ 저출산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등을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확대 하고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와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

추진배경 »

- 최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독신가정 증가,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저출산·고령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는 2016년 7월에 전국 최초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였음.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국민 36.3%가 미혼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미혼비율 증가는 저출산·노령화 등 인구절벽사회를 초래하고 있어, 출산 이전에 결혼,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결혼과 가족 생애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변화를 위한 결혼장려가 선행된 출산장려정책 필요
 - ※ 30대 미혼인구비율 : (’05년) 21.6% → (’10년) 29.2% → (’15년) 36.3%
- 2016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결혼건수(추정)는 29만명으로 전년대비 1만2800명 감소, 출생아수(추정)는 42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 결혼기피 주요인은 아래 표와 같으며

-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2), MBC뉴스 -

84%	결혼을 위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82.4%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가 어려워
77%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출산을 주요 변동요인으로 평균 초혼연령 상승, 혼인건수 감소, 출산 연령 25~34세 여성인구 감소 등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해 우리구 미혼남녀 1천명 대상으로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장려를 위해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으로 전체 응답자 중 36%가 ‘만남의 장 마련’, 30%가 결혼장려 홍보 캠페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36%가 작은 결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24%가 특색있는 작은 결혼식 공간 확대, 23%가 부모님의 인식전환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다양한 결혼장려 시책 필요(설문조사결과 별첨)

추진체계 구축 »

○ 조직 및 지원기반 마련

(2016.07.13) **전국 최초 결혼장려팀 신설**

(2016.12.01)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전국 최초 조례**

(2017.05.01) 저출산 대응 T/F단 구성(10명)

○ 민관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2016.10.24)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맞춤형 작은 결혼식 혼례교육)

(2016.12.19) 결혼장려추진협의회 구성(14명)

(2017.03.08) 달서구-8개 공공기관 '사랑의 끈 맺기' 결혼장려사업 업무협약(MOU)

(2017.03.30) 관내 공공장소 결혼식장 확대 개방(3곳→10곳 확대)

(2017.03.31) 결혼친화서포터즈단 구성(40명)

(2017.04.04) 대구웨딩연합회 연계 : 맞춤형결혼상담실 운영(주1회)

(2017.05.20) 대구광역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연계 : 야외 작은 결혼식 (1회)

주요 추진내용 »

1 결혼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청년) 참여형 사업

실태조사

- 결혼에 대한 문제점 및 인식파악을 위한 주민(청년)의견수렴
⇒ 청춘남녀 솔직담백 토크쇼, 설문조사, 게릴라인터뷰

인식개선

-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청년) 참여형 사업 발굴
⇒ 결혼전략 아카데미, 홍보부스운영, 결혼친화서포터즈단 구성, 축제 참여

사업명	일시	추진내용	사업비 (천원)
청춘남녀 솔직담백 토크쇼 	2016. 7. 28	• 대상 : 구청 청춘남녀 직원 100명 • 장소 : 달서구청 대강당 • 내용 : 구청장과 함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토크쇼 • 효과 : 결혼에 대한 솔직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사업추진 ※ 좌측 예시 사진물 참고	(비예산)

사 업 명	일 시	추진 내 용	사업비 (천원)																													
청년 결혼인식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2016. 8 ~ 9월	- 대상 : 관내 청춘남녀 1,000명 - 내용 :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 효과 :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	(비에산)																													
결혼홍보부스게릴라인터뷰 등 운영 	2016. 9 ~10월 2017. 5월	<결혼홍보부스> - 행사명 :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외 5회 - 장 소 : 엑스코 외 5곳 - 효 과 : 주민접점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게릴라인터뷰> - 대 상 : 관내 대학가 및 행사·축제 참여 청년 - 장 소 : 계명대학교 외 다수 - 효 과 :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사업운영	5,300 (지방비)																													
결혼전략 아카데미 	2016. 10~12 월	- 대 상 : 청년, 예비(신혼)부부, 부모 등 - 내 용 : 대상자별 특화된 결혼전략 설명회 - 민관협업 : 가건모,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16년 결혼전략 아카데미</th></tr><tr><th>10.10</th><th>10.24</th><th>10.31</th><th>11.14</th><th>12.01</th></tr><tr><td>대상</td><td>부모</td><td>예비(신혼)부부</td><td>대학생</td><td>예비혼주</td><td>미혼남녀</td></tr><tr><td>인원</td><td>170</td><td>20</td><td>60</td><td>60</td><td>120</td></tr><tr><td>장소</td><td>구청 대강당</td><td>장기동행정 복지센터</td><td>구청 대강당</td><td>진천동행정 복지센터</td><td>구청 대강당</td></tr></table> - 효 과 :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구분	'16년 결혼전략 아카데미					10.10	10.24	10.31	11.14	12.01	대상	부모	예비(신혼)부부	대학생	예비혼주	미혼남녀	인원	170	20	60	60	120	장소	구청 대강당	장기동행정 복지센터	구청 대강당	진천동행정 복지센터	구청 대강당	4,300 (지방비)
구분	'16년 결혼전략 아카데미																															
	10.10	10.24	10.31	11.14	12.01																											
대상	부모	예비(신혼)부부	대학생	예비혼주	미혼남녀																											
인원	170	20	60	60	120																											
장소	구청 대강당	장기동행정 복지센터	구청 대강당	진천동행정 복지센터	구청 대강당																											
결혼친화 서포터즈단 구성 	2017. 3.31	- 대상 : 관내 거주자 40명(청년, 주부 등) - 구성 : 활동분과 서포터즈단(31명), 정보분과 서포터즈단(9명) - 내용 : SNS, 카페운영 및 건작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결혼장려 홍보부스 및 이벤트 정보 제공, 행사지원 등 청춘남녀 연애주선 활동지원 등 - 효과 :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	1,400 (지방비)																													
결혼을 주제로 한 '2017컬러풀대구페레이드'참여 	2017. 5.27	- 대상 : 관내 청년 등 250명 - 내용 : 청혼에서 결혼까지의 스토리 퍼포먼스 연출 등 으로 달서구의 결혼장려 홍보 - 효과 : 결혼장려를 위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홍보효과 극대화 ※ 컬러풀 인기상 수상	18,000 (지방비)																													

2 만나봄시데이 운영을 통한 썸타는 청년 결혼문화 조성

만 남

- 청춘남녀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결혼문화 조성
⇒ 청춘남녀 매칭(만남)행사, 데이트 비용 지원, 결혼원정대 운영, 썸타는 동아리 데이트 비용 지원, 기관 간 MOU체결(사랑의 끈맺기 워크숍)

사 업 명	일 시	추 진 내 용	사업비 (천원)
청춘남녀 매칭(만남) 행사 	2016. 10월 ~ 2017. 6월	• 행사명 : 썸팅/ 고고팅 • 대 상 : 달서구 거주자 및 사업장이 달서구인 청춘남녀 • 장 소 : 관내 웨딩홀 및 카페 등 • 횟 수 - 썸남썸녀 매칭행사(2회) : 2016.12.2 / 2017.6.9 - 고고팅 매칭행사 (4회) : 월 1회(2017.2월 ~ 6월) • 참여인원 : 총 138명(남 69, 여 69) • 추진실적 : 매칭 138명 / 23커플 / 성혼 1커플('17.5.20)	12,330 (지방비)
청춘남녀 데이트 비용 지원 (*복지포인트 1인당 20만원)	2017. 연중	• 대 상 : 달서구청 청년(미혼남녀) 직원 누구나 • 지급인원 : 125명('17.6.30.기준) • 추진실적 : 성혼 16명(2017.1월 ~ 6월까지)	25,000 (지방비)
청춘남녀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2016. 10월 ~ 2017. 6월	• 대 상 : 달서구 거주자 및 사업장이 달서구인 청년 • 모집방법 :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 등록인원 : 총224명(남 171, 여 53) • 효 과 : 달서구의 미혼남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극적인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570 (지방비)
사랑의 끈맺기 워크숍 	2017. 5.18	• 대 상 : 9개 공공기관 MOU체결기관 청년 90명 • 장 소 : 알리앙스웨딩 • 내 용 : 팀빌딩, 미디어 퀴즈쇼, 도전 99초, 커플게임 등 • 효 과 : 미혼직원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건강한 결혼 문화 가치관 함양 ※ 달서구청, 남부교육지원청, 성서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서소방서, 강서소방서, 남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달서우체국	5,000 (지방비)
청춘남녀 썸타는 동아리 	2017. 연중	• 대 상 : 달서구민 미혼남녀(만20~50대) / 163(남119, 여44) • 장 소 :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외 • 내 용 : 취미가 같은 미혼남녀를 모듬으로 구성하여 강좌진행 • 프로그램 : 사진, 재테크, 생활 DIY, 여행동아리 • 효 과 : 공통의 취미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을 통한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 마련	1,000 (지방비)

3

달서형 작은 결혼식 메카 구축

결혼준비
결 혼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고 뜻깊은 결혼문화 정착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

⇒ 결혼장려추진협의회 구성, 공공장소 결혼식장 확대 개방, 결혼친화 공원조성, 웨딩플래너 양성

사 업 명	일 시	추진 내용	사업비 (천원)
결혼장려추진협의회 구성 	2016. 12.19	• 성 격 :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민·관·학의 기관·단체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 • 위원수 : 14명(위원장 포함) • 구성원 : 당연직 2명(구청장, 복지문화국장) 위촉직 12명(구의원, 웨딩업체, 언론계, 경제계, 공공기관, 대학, 외식업계, 단체 등) • 내 용 : 결혼장려 지원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및 작은 결혼식 협력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850 (지방비)
공공장소 결혼식장 확대 개방 	2017. 연중	• 공공장소 결혼식장 확대 운영 : 10개소 ※ 달서구청 대강당, 웃는얼굴아트센터 야외공연장, 월광수변공원, 배실상공원, 이곡장미공원, 계명문화대학교 스텍관벽오실, 계명문화대학교 잔디광장, 대구시종합복지회관 참살이예식장, 대구도시철도공사강당, 대구시교육연수원 연리지홀	530 (지방비)
결혼친화 공원조성 	2017. 7~9월	•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 등에 결혼친화 웨딩 조형물 조성 등을 통해 결혼친화도시 구축 • 기 간 : 2017. 7 ~ 9월 • 장 소 : 월광수변공원 / 배실(상)공원 • 내 용 : 포토존 등 조형물 및 작은 결혼식 공간 조성	103,000 (지방비)
웨딩플래너 양성과정 (*청년 일자리 창출)	2017. 9~11월	• 기 간 : 2017. 9 ~ 11월(총2기/14주과정/주1회) • 장 소 :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대 상 : 결혼과 재능기부에 관심있는 자 • 인 원 : 총 40명 정도 • 내 용 : 웨딩컨설팅의 이해, 예식 및 결혼준비 전반에 관한 과정 • 효과 : 여성일자리 창출 및 재능기부 활성화	5,000 (지방비)

4 민간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행복한 결혼생활 정착

결혼생활

-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결혼관련 정보 제공
⇒ 맞춤형 결혼상담실 운영, 홈페이지 및 카페 구축, 정보 리플렛 제작

사 업 명	일 시	추진내용	사업비 (천원)
맞춤형 결혼상담실 운영 	2017. 4월~	• 시 행 : 2017. 4월~ (주1회) • 장 소 : 달서구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부스 • 대 상 : 달서구민, 관내 상공인·직장인 • 상담건수 : 11회 17명 상담 • 분 야 : 결혼토털 컨설팅 • 효 과 : 결혼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 자원연계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대구웨딩연합회 등	740 (지방비)
홈페이지 및 달서웨딩카페 구축 	2017. 7월~	• 시 행 : 2017. 7월 ~ • 내 용 : 구 홈페이지에 알기쉬운 결혼정보, 결혼이야기 등 코너운영 및 달서웨딩카페 구축을 통하여 민·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결혼 정보 제공	(비예산)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관련 지원내용 리플렛 등 배부	2017. 8월	• 지자체, 지역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관련 지원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구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정보제공	5,000 (지방비)

사업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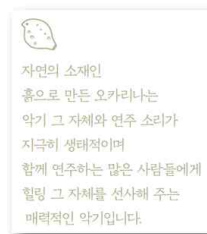
- “만남에서 결혼”이 “행복한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저출산 극복 및 건강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희망 청년도시 조성**
-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 및 예비(신혼)부부 교육 등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작은 결혼식**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저출산 극복의 시작점인 결혼장려를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별 지역맞춤형 정책추진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형성의 소중함을 제고하여 **청년 결혼친화도시 조성**
- 청년 결혼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문제에 선제적 대응**
- “인식개선-만남-결혼준비-결혼-결혼생활” 등 생애주기별 교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정책을 통한 **건강한 청년 결혼문화 제고**
- **타 자치단체 사업 전파** : 충북 청년지원과, 대전 서구 여성가족과,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에서 벤치마킹
- 비혼 및 저출산 등 인구절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초 결혼장려팀 신설로 가족 가치 확산 및 가족 정책을 선도한 성과로 여성가족부 주관 **‘가정의 달 기념 유공 포상’** 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 수상(2017. 7. 13.)**
 - ※ 일반 구민 만남 행사를 통한 **138명 매칭 / 23커플 탄생 / 성혼 1커플**
 - ※ 달서구청 청춘남녀(직원) 데이트비용 지원 **125명 지원 / 성혼 16명**

향후계획 »

- 초저출산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통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 확대** : 결혼친화 협력업체 구성(‘17.9월 중), 공공기관간 업무협약 MOU체결 확대(‘17.8월 중)
- 생애주기별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을 통해 누구나 부담없이 만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와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광주광역시 남구
사 례 명	우리는 행복해요!!! 오카리나 선율이 흐르는 『음악도시 남구』
분 야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 오카리나 음악도시 조성
사례요약	 추진배경 ○ 문화교육특구로서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색 있는 지역문화자원 개발의 필요성 ○ 주민과 함께하는 “1인 1악기” 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 활력 제고 ○ 오카리나 대합주”를 통한 감성적 콘텐츠로 지역화합의 매개체 역할 및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조성 ○ 음악도시 조성을 통해 개인의 정서 함양은 물론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지역 내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음악을 통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추진방향 ○ 주민주도형 문화복지 시스템 기반 강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문화교육특구와 창조지역에 부합하는 음악도시 콘텐츠의 대표성 선점 ○ 광주지역 문화자원 간 연계를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 정립  추진비전 및 전략 ○ 비 전 : “지역주민 문화 향유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전략 : 운영조직 구축사업 /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문화복지 실천사업/ 마케팅 및 연계협력사업  주요 추진실적 ○ 주민주도의 오카리나 음악도시 문화진흥회 구성 운영 ○ 마을밴드 조직·운영 (전문가 코디네이터 양성) ○ 오카리나 레지던스 사업 추진 ○ 푸른음악 정원 사업 추진 이전 ○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8,647명) 세계 기네스북 등재 ○ 마케팅 연계협력사업 추진  향후계획 ○ 오카리나 문화 스토리텔링 사업 ○ 국제 오카리나 경연대회 개최 ○ 음악도시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 문화 예술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도시와의 연계 협력사업 발굴 추진  기대효과 ○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로 “사람중심 건강남구” 이미지 제고 ○ 오카리나를 통해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교육특구 위상 정립 ○ 오카리나 공예산업 육성과 문화관광산업 기반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도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시 경쟁력 향상



우리는 행복해요!!!

오카리나 선율이 흐르는 『음악도시 남구』

단일악기 합주 세계 기네스북 등재 (8,647명)



I. 추진배경

- 문화교육특구로서“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색 있는 지역문화자원 개발의 필요성
- 주민과 함께하는 “1인 1악기”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 활력 제고
 - 오카리나 연주는 문화예술교육과 평생학습 측면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아 왔음
- “오카리나 대합주”를 통한 감성적 콘텐츠로 지역화합의 매개체 역할 및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조성
 - 광주 남구의 도심공동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 등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문화기획 차원에서의 대합주 시도
 - 배우기 쉽고 친근한 오카리나를 활용한 소통과 공감, 화합의 기회 마련
- 음악도시 조성을 통해 개인의 정서 함양은 물론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지역 내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음악을 통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2014년 국토교통부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어 오카리나 중심의 주민참여형 Cross-Culture 문화복지 조성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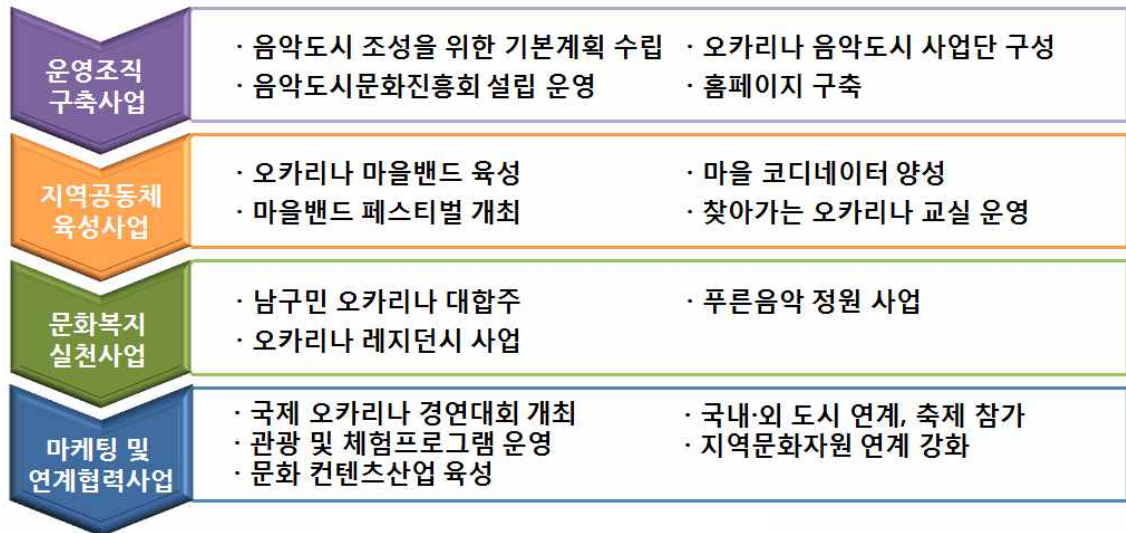
II. 추진방향

주민 차원	- 세대 간,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장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력 증진 - 주민주도형 문화복지 시스템 기반 강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남구 차원	- 문화교육특구와 창조지역에 부합하는 음악도시 콘텐츠의 대표성 선점 - 관광상품화, 강사양성, 악기제작 등 산업연계를 통한 일자리 및 지역활력 제고
광주 차원	- 특화 교육, 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브랜드 향상 및 성장 잠재력 강화 - 광주지역 문화자원 간 연계를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 정립

Ⅲ. 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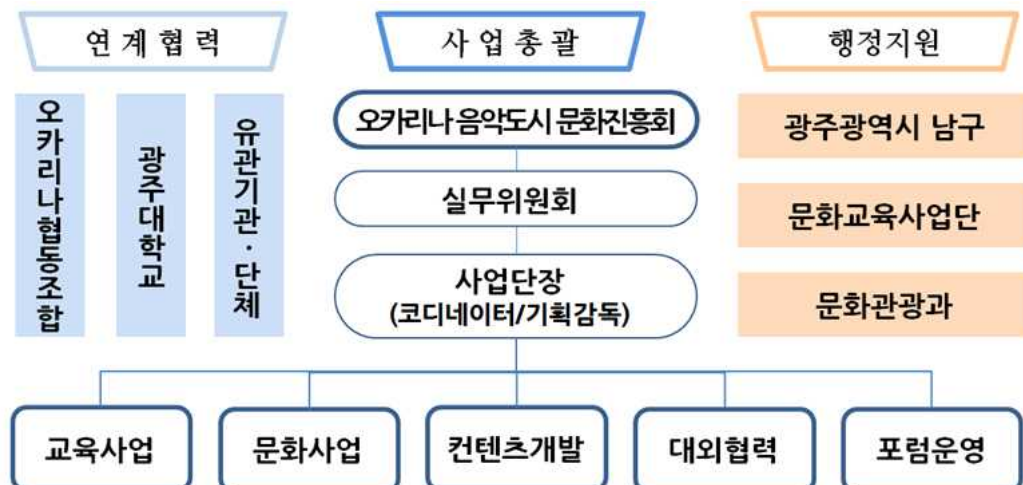
🚩 비 전 : 지역주민 문화 향유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 ➡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로 “사람중심 건강남구” 이미지 제고
- ➡ 오카리나를 통해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교육특구 위상 정립
- ➡ 오카리나 공예산업 육성과 문화관광산업 기반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도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시 경쟁력 향상

🚩 추진체계



IV. 전략별 추진성과

① 운영조직 구축사업

🚩 오카리나 음악도시 문화진흥회 구성 운영(2015.2.)

- 구성인원 : 16명(위촉직 12명, 당연직 4명 / 위원장 : 고재유 전 광주광역시장)
- 기 능 : 운영규정 마련, 사업계획 수립,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 및 재능기부 등

🚩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인원 : 7명(위촉직 4명, 당연직 3명)
- 기 능 : 현안사업 발굴 및 추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 오카리나 음악도시 사업단 구성

- 구성인원 : 3명(사업단장 1, 코디네이터 1, 기획감독 1)
- 기 능 : 오카리나 창작 스튜디오 운영(마을밴드 음악 녹음 및 CD제작 지원 등)
- 참여 기관·단체 : 협동조합, 학교, 관내 기관·단체, 동아리 대표 등



②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 마을밴드 조직·육성 (2015.9.~2016.8. / 총 13개 마을밴드 결성)

- 목 적 : 오카리나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밴드를 조직 후 운영 역량 강화에 필요한 코디네이터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
- 내 용
 - 교육협력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 전문가(1개월 과정) 코디네이터 및 오카리나 전문가(3개월 과정) 코디네이터 양성
 - 교육협력단체 : 마을공동체협력센터, 광주대학교음악학과, 함세아협동조합, 남구청
 - 과정수료 코디네이터 오카리나교실 강사 및 마을밴드 활동 지원



오카리나 마을밴드 현황

연번	마을밴드명	활동장소	강 사 명	참여(연인원)
합 계				4,164명
1	송화마을	노대동 문화사랑방	박숙현/이현숙	180
2	주월동	푸른길도서관	박영례	312
3	승촌마을	무학초등학교	장영순	372
4	까치마을	백운1동 주민자치센터	윤경옥	156
5	양림동	양림커뮤니티센터	윤미정/신복희	456
6	방림동	방림휴먼시아 작은도서관	정인자	216
7	봉선동	봉선시장 상인교육장	이선미/양혜경	192
8	효덕동	효덕동 주민자치센터	김춘덕	315
9	월산동	화월주 커뮤니티센터	김정임	108
10	노대동	빛고을 건강타운	김미자	1,452
11	송하동	진아리채 5차아파트	박애란	216
12	월산동	남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고은영	185
13	백운동	남구 자원봉사센터	지은화	167

찾아가는 오카리나 교실 운영(2015.9.~)

- 목 적 : 주민 1인 1악기 연주 실천을 위해 오카리나 중심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내 용 : 주민차지 프로그램(16개동), 사회복지관 등 오카리나교실 운영
강사 파견 및 교육
- 운영실적 : 대성평생교육원 등 11개 교실(연인원 1,191명)



오카리나 마을밴드 페스티벌 개최

- 목 적 : 대표축제인 “굿모닝 양림 축제” 참가로 공연문화 확산 및 마을 밴드 활성화
- 내 용
 - － 오카리나 전문 앙상블, 마을밴드 공연, 아카펠라 및 오케스트라 협연
 - － 오카리나 연주 및 제작 체험부스 운영, 오카리나 버스킹 공연 등
- 장 소 : 사직공원 야외공연장 등 양림동 일원



③ 문화복지 실천사업

📌 오카리나 레지던시 사업 추진 (2015.12.)

- 목 적 : 남구 오카리나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창작 레지던시 사업으로서 남구 마을이야기가 담긴 오카리나 창작곡을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오카리나 콘텐츠 내용 확보에 기여
- 대 상 : 12개 마을밴드 및 남구 주민
- 사업내용
 - 12개 마을밴드 창작곡 완성 및 편곡 MR 제작
 - 마을밴드 별 창작곡 녹음
 - 창작곡 앨범, 악보집 디자인 및 제작 등



📌 「푸른음악 정원」 사업 추진 (2016.10.~2017.4.)

- 목 적 : 경관이 좋은 푸른길공원 등 주요거점을 오카리나 밴드 및 연주자들이 상시공연을 할 수 있는 음악도시 사업의 공간으로 브랜드화하여 주민 소통 및 여가문화 공간 조성
- 사업장소 : 4개소
 - 푸른길공원, 사직 통기타거리, 무등시장 오카리나 거리, 양림동 일원
- 사업내용
 - 야외공연장 설치
 - 오픈스튜디오 설치
 - 상징조형물 설치



④ 2016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1주년 기념 “2016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6. 9. 11.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광장
- 내 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1주년 기념 공연 일환으로 창조지역사업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 마련
 - 남구민 15,000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오카리나 대축제
 - 오카리나 선율이 흐르는 음악도시 남구 선포
 - 부대행사 : 오카리나 페스티벌 진행(버스킹, 전시, 체험, 판매 등)
- 참여기관 : 총137개 기관단체(학교 38, 기관 54, 단체 45)
 - ※ 단일악기 동시연주 세계최다 인원 8,647명(기존 2013.11.5. 영국 알버트홀에서 열린 오카리나 앙상블로 3,018명)으로 도전곡 아리랑 등 5곡, 도전시간 14분39초로 “KRI한국기록원” 및 “기네스월드레코드” 동시 도전 성공



📌 세계 기네스북 등재 기념식 및 제막식

- 일시 및 장소 : 2017. 1. 19. / 남구청 일원
- 내 용
 - 3년간 추진해 온 오카리나 음악도시 조성사업 성과물 공유
 - 기념식 및 기념비 제막식, 축하공연 등



⑤ 마케팅 연계협력사업



광주FC 개막전 축하
남구민 300명 오카리나 합주



5.18민중항쟁 기념
시민대행진 오카리나 퍼레이드



광주 아리랑 대축전
길거리 퍼레이드

V. 향후계획

- 🚀 오카리나 문화 스토리텔링 사업
- 🚀 국제 오카리나 경연대회 개최
- 🚀 음악도시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 🚀 문화 예술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
- 🚀 국내·외 도시와의 연계 협력사업 발굴 추진

VI. 언론에 비친 오카리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 례 명	마을단위 문화예술과 공동체를 키워가는 작은도서관
분 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작은도서관(민간, 공공) 활성화 지원 내실화
사례 요약	□ 추진배경(필요성) ○ 급격한 인구증가로 다가오는 인구40만시대 대비 교육·문화인프라 확충 ○ 전국 젊은도시 5위(평균연령 35.6세), 학생수 32%(11만) → 교육·문화 수요증가 ○ 교육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마을단위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보 ○ 사회양극화로 붕괴된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사랑방 거점공간 확보 □ 추진과정 / 제도, 조직, 지역협력, 성공전략 마련, 조성(10개소) ○ ('10~'13) 조직개편, 조례제정, 민관거버넌스 협력(협약, 자문위) 등 ○ ('10~'13)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실패) 요인 분석 ○ ('11~'16) 걸어서10분! 작은도서관 8개소 조성 ('17~'18) 2개소 추가조성 — <유성형 작은도서관 모델 성공전략> — ◆ 운영체계 : 민관협치 + 마을자치 - [민] 도서관 운영(자원봉사) [관] 도서관 조성, 운영비 등 지원 ◆ 기본방향 : '교육+문화예술+지역공동체' 융합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 수요자 대상별 맞춤형 문화콘텐츠 운영 / 어린이, 주부, 가족형, 직장인, 어르신 등 - '작은도서관 + 지역사회'와의 만남·소통 커뮤니티 활성화 □ 우수사례 / 마을단위 교육·문화예술 활성화, 지역연계, 특화운영 확대 ○ 작은도서관 거점 마을단위 문화공동체 활성화 : 문화예술 직접 참여 - (축제) 유성오일책장(나는 시장에 책보러 간다), 영미문화축제(할로윈 등), 북콘서트 - (연극) 부엉이마을연희단(춘천인형극제 참여), 온천마을인형극, 전통탈춤 - (체험) 숲체험, 아흔넷봉명동안갑수(생애사책만들기), 현장탐방 등 - (취미·동아리) 캘리그래피, 목공예, 자수, 북아트, 요리교실, 독서클럽 - (지역네트워크) 부엉이마을수다방, 과학·학습멘토링, 찾아가는 영어교실 ○ 특화도서관 운영 : 다양한 도서관 수요변화에 대응, 도서관서비스 확대 - 영어마을(2015), 별뿔별과학마을(2016), 문학마을(2017) □ 향후계획(발전방안) / '교육+문화예술+지역공동체' 거점 정착 ○ 책+문화예술을 매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강화 ○ 작은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성장 지원 ○ 작은도서관 숨씨한마당 축제 개최 / '17.10월, 문학마을개관기념 ○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강화 / 재정지원, 전문성장화

마을단위 문화예술과 공동체를 키워기는 작은도서관

- ❖ 급격한 인구증가에 발맞추어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
- ❖ 「교육+문화예술+지역공동체」를 직접 체험하는 융복합 문화콘텐츠 운영

1 추진배경

① 지역적 배경

- (인구증가) 글로벌 과학도시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세종시와 동반성장을 이루며 활발한 도시개발 및 급격한 인구증가

▶ 인 구 : 281,692명('10. 12월) → 346,445명('17. 6월) → 약 40만('20)
* 연평균 1만여 명씩 지속 증가 ▶ 면 적 : 176.33km²(대전시의 32.7%)
▶ 관광특구('94), 과학특구('05), 과학벨트거점지구('09), 연구소 등 입주기관 1,575개

→ 2020년 다가오는 인구40만 시대를 대비한 교육·문화인프라 확충 시급

- (젊음·문화) 유성구는 울산북구와 함께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유일한 도시로 주민 평균연령 35.6세(전국 젊은도시 5위), 학생수가 전체인구의 32%(11만925명)를 차지하는 젊음과 문화의 도시

→ 교육·문화에 대한 요구도 및 관심도가 매우 높은 지역, 다양한 교육·문화콘텐츠 개발·운영 필요

② 사회적 배경

- (문화공간 확충) 수도권과 지방 주민 간의 문화향유 기회 불평등 심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보 시급

* 공공도서관서비스 소외지역 중, 문화·예술로 도심활력이 필요한 원도심,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 (공동체문화 회복) 가파른 경제발전에 따라 심각해진 불평등, 사회양극화로 붕괴된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한 마을사랑방 거점 공간 마련 필요

- (민관협력·지속성 확보) 재정의 열악성, 전문 역량부족으로 도서관 운영의 지속성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의 운영한계를 민관협력으로 극복

2 | 구체화과정

① 제도마련과 조직개편(2010~2011)

- (조직개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전담조직 신설 / 평생학습원 작은도서관 담당
- (조례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② 현장견학 및 성공전략 마련(2010~2013)

- 타시도 우수운영 사례(모델)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실패) 요인 분석
 - (방 문 지) 포항시·순천시(직영), 파주시(주민자치), 수원시, 부천시 등
 - (벤치마킹) 주민자치형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차별화 사례 등

③ 공감과 신뢰의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2011~)



[협약]유성구-동화초(2011)



[협약]유성구-자운대(2012)



자문위원회 운영(2011~)

유성형 작은도서관 모델 성공전략 도출

마을단위 문화예술과 공동체를 키워가는 작은도서관

④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및 기본방향

마을단위 문화예술과 공동체를 키워가는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	• 민관협치 : [민] 도서관 운영(자원봉사) + [관] 도서관 조성·운영비 등 지원 • 마을자치 : 주민스스로 기획+운영, 지역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문화욕구 반영 - 작은도서관 운영자 양성 : 1개소당 20~30명, 도서관 교육 10차시 이수 - 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의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 및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
기본 방향	• ‘교육 + 문화예술 + 지역공동체’를 융합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운영 • 교육문화 수요자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운영 - (어린이) 문화예술적 감수성,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중심 / 문화예술캠프, 문화공간 탐험 등 - (주 부) 교양·평생학습 등 문화강좌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핵심인력으로 참여 유도 - (가 족) 주5일제 확대, 휴일 가족프로그램 운영, 여가형(여행+체험) - (직장인) 문화소외계층, 주말·저녁을 이용한 문화휴식 프로그램 운영 • 작은도서관 + 지역사회와의 만남·소통 커뮤니티 활성화 - 온천문화축제 참여, 유성5일장 속 책축제, 전통탈춤배우기, 연희학교 운영, 지역문화명소 탐방 등

3 | 걸어서10분! 작은도서관 10개소 본격 확충(2011~2018)

구분	도서관명	운영현황	주요프로그램	개관사진
1호점 (2011)	동화마을	• 관평동, 288㎡(87평) • 장서 22,376권 * 1일 155명 이용	• 독서페스티벌 • 노벨과학교실 • 한국사교실 • 세계사교실 • 독서의달, 책의날 책축제	
2호점 (2011)	온천마을	• 온천2동, 196㎡(59.3평) • 장서 15,351권 * 1일 35명 이용	• 온천마을인형극단 • 전통체험교실 • 작가탐구(신영복, 윤동주 등) • 핵융합과학교실 • 학습멘토링	
3호점 (2012)	자운마을	• 신성동, 99.42㎡(30평) • 장서 10,574권 * 1일 74명 이용	• 마을영화관 • 동화구연 • 노벨과학교실 • 명심보감 • 솜씨동아리(자수, 손뜨개)	
4호점 (2013)	희망마을	• 온천동, 334.49㎡(101평) • 장서 12,522권 * 1일 24명 이용	• 부영이마을연희단 • 꾸러기난타교실 • 부영이마을수다방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손큰할머니만두만들기	
5호점 (2013)	신성마을	• 신성동, 181.1㎡(54.8평) • 장서 16,643권 * 1일 88명 이용	• 도서관밤나들이 • 숲체험교실 • 노벨과학교실 • 독서클럽 • 브리코건축교실	
6호점 (2013)	송강마을	• 구죽동, 166.29㎡(50.4평) • 장서 15,211권 * 1일 68명 이용	• 다문화멘토수업 • 올빼미도서관 • 독서클럽 • 바른몸예쁜몸 • 노벨과학교실	
7호점 (2015)	영어마을	• 노은3동, 234.13㎡(70.9평) • 장서 16,111권 * 1일 82명 이용	• 할로윈파티 • 파닉스 • thangs giving day • 크리스마스파티 • 스토리랜드마더	
8호점 (2016)	별 똥 별 과 학	• 온천2동, 532.5㎡(161.3평) • 장서 7,920권 * 1일 36명 이용	• 어린이코딩교육 • 과학바캉스 • SF탐험단의 아이들 • 노벨과학교실 • 화학콘서트	

※ 신규 조성계획 : 9호점(2017.10월 개관, 문학마을작은도서관), 10호점(2018, 학마을작은도서관)

4

작은도서관 거점 마을단위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례

희망마을작은도서관

지역사회네트워크 활발,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모색

유성5일장
&
작은도서관

- 주제 : 유성오일책장 - “나는 시장으로 책보러 간다”
- 기간 : 연 4회 / 6월~10월(월 1회)
- 장소 : 유성5일장 장터어린이공원
- 참여 : 지역자원연계
 - 지역서점, 행복두배봉사단, 그림책읽는엄마들 등
- 내용 : 유성오일장을 지역문화예술 공간 탈바꿈

부엉이마을
연 회 단

- 2014년, 지역주민 가족단위 참여 15~20명
- 주1회 동아리활동, 탈인형극
- 꼭두인형극, 탈인형극 공연 / 때루때루, 빅북 전기수 김수한무
- * 춘천인형극제 길놀이 탈놀이 참가 / 2016. 10월

부엉이마을
수 다 방

- 지역사회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마을에 관한 이야기 수다 / 월 2회
- 참여 : 10명, 작은도서관, 중앙평생교육원, 마을카페, 온천1동,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마을주민
- 내용 : 마을나들이 기획,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아 혼 넷
봉명동안갑수

- 실버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을 주민과 공유, 세대간 소통
- 참여 : 희망마을경로당어르신 참여 20명
- 내용 : 가치사전 만들기, 마을엽서 만들기, 생애사책 만들기



별동별 과학도서관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대중화 추진, 과학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과학문화대중화
과학꿈나무양성

- 과학자와 주민 간 상호작용하는 소통형식의 과학강좌 실시
- 과학자, 과학단체 및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 지원, 시설개방
 - 사이언스클래스 : 4강 148명, 화학 기초강연
 - 사이언스 씨네톡톡 : 4강 91명, 빛의 물리학 상영, 토크
 - 사이언스&퓨처 : 1강 80명, 4차산업혁명 특강
 - 어린이 코딩교육 : 8회 160명, 컴퓨터 코딩교육
 - 과학문화공동체 토론회 개최 : 100명, 과학자, 지역주민
 - 과학자와 함께 하는 주민화합걷기행사 : 1,000명(탄동천 8km)



온천마을작은도서관

맛·재미·나눔, 인물탐구, 인근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온 천 마 을
인 형 극 단

- 2011년 도서관 개관과 함께 도서관 인형극 동아리로 시작
- 참여인원은 15명
- 내용 : 그림책, 동화, 설화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성·공연
-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상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실시



영어마을작은도서관

영어독서문화 확산, 문화&놀기로 만나는 영어, 영어격차 해소

영미문화체험 축 제

- 기간 : 연 5~6회
- 내용 : 언어에 녹아있는 문화체험을 통한 흥미중심의 영어학습
- 내용 : 영미문화권 국경일 등 체험행사
 - 1박2일 영어캠프(상반기), 개관기념행사(7월)
 - 할로윈파티(10월), thanksgiving day 행사(11월)
 - 크리스마스파티(12월)



찾아가는 스토리랜드마더

- 기간·장소 : 주 1회, 관내 임대아파트 4개소
- 참여 : 스토리랜드마더 자원봉사단 15명
- 내용 : 소외계층인 임대아파트로 찾아가는 영어교실 운영
 - 영어학습 격차해소, 영어독서문화 확산
 - 영어도서관 이용방법 안내,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실현



자운마을작은도서관

전국 군부대 지역 내 유일한 도서관 운영, 군가족의 높은 만족도

군 부 대 에 꽃 피 운 독 서 문 화

- 위치 : 자운대호국복지센터
- 전국 군부대 지역 유일한 도서관 운영
 - 교육문화시설이 전무한 군부대 지역 내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주민(군가족)의 이용만족도가 매우 높은 도서관



송강마을작은도서관

어린이·성인·어르신 대상 독서클럽 활성화, 다문화 교육 활발

시 니 어 독 서 클 럽

- 송강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구성
- 시기·인원 : 2013년, 20명 / 월 2~3회 활동
- 내용 : 독서토론, 자전적 글쓰기, 문학관 탐방 등
 - 글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전적 글쓰기 강습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제작



신성마을작은도서관

전문 숲체험교실, 도서관밤나들이(캠프), 음식만들어 나눠먹기

숲 체험 교 실

- 금성근린공원 내 위치한 잇점을 살려 전문 숲체험교실 운영
-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4계절 간 금성근린공원 숲체험
- 자연학습에 더해 나무들에게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건네는 등 예쁜 언어습관 배양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학습의 기회 제공



5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저변확대

① 도서관 정체성 변화 : 교육 + 문화예술 + 공동체

“나” → “우리” 의식확장을 통한 문화공동체 활성화, 책과 사람을 만나는 공간



돌봄교실이 된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이 된 작은도서관



마을사랑방이 된 작은도서관

② 민관협치 + 마을자치로 운영하는 도서관

- (민) 주민스스로 도서관을 운영 및 마을자치를 통해 마을활동가로 성장
- (관) 도서관 조성, 운영비(개소당 연 36,000천원) 지원, 사서직 공무원의 컨설팅 지원 등

사업시행 전

도서관 공간 및 운영비 마련
도서관 운영 등

→ 민 →

사업시행 후

- 도서관 운영, 교육문화 활동 마을자치 → 민
- 도서관 조성, 운영비·역량강화 지원 → 관

지속가능성 부족

지속가능성 담보



③ 특화도서관 운영 : 도서관서비스 확대 · 다양화

다양한 도서관 수요변화에 대응 및 서비스 확대, 차별화된 도서관서비스 제공



영어마을작은도서관(2015)

- 영어독서문화 확산(격차해소), 영미문화체험
- thanksgiving day, 할로윈파티
- 크리스마스파티 등



별뿔별과학도서관(2016)

- 과학문화대중화, 미래과학꿈나무 양성
- 과학콘서트 및 강연, 노벨과학교실
- 과학자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문학마을작은도서관(2017.10)

- 문학 창작+향유, 지역문인 및 주민간 소통
- 정통 시+소설, 숲속 카페형 도서관
- 독립출판(나만의 시집, 책 만들기 등)

작은도서관의 '교육 + 문화예술 + 지역공동체' 거점, 독서사랑방 정착

① 책+문화예술을 매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강화

○ 작은도서관 운영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역량 지원(상시)

○ 책+문화예술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확대 방안 마련(2017)

※ 마을공동체 이해('17.3월) → 우수현장방문('17.6월) → IDEA도출 워크숍('17.8월)

② 작은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성장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마을활동가 성장 도움 / 퍼실리테이터 자격인증(CF) 취득 지원

※ 퍼실리테이션 : 참여자의 창의성 향상, 갈등해결, 합의도출해 가는 역량

③ 작은도서관 솜씨한마당 축제 개최

○ 문학마을작은도서관 개관 기념(2017. 10월) / 유림공원 국화전시회 기간

○ 유성구 작은도서관 교육·문화·예술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주민과 함께 공유

④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강화

○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주민들 가까이에서 도서관으로서 제기능을 하고, 공동체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강화

- (재정지원) 도서구입비 지원,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등

- (역량강화)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 제작·배부, 도서관 운영 교육

작은도서관
코리야플라츠

공통체문화의 성장판을 열어가는 유성구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주민도서관, 마을공동체 문화공간, 평생교육 공간으로서 4대 6각각의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유성구는 지난 2016년 개관한 희망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이때 유성구는 4월부터 연말까지 1주1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4D 미디어 극장 ▲우리마을 연희극 ▲유성오일장 - 나는 사랑해 책 보러 간다 세 가지이다.

'도서관에서 볼거리는 4D 미디어 극장'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Dream(꿈), Drama(극), Design(그림), Document(이력서)를 주제로 한 활동을 통해 예술을 디자인 할 것으로 표현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가족이 함께 전통연희를 배우고 전시와 공연을 진행하는 '우리마을 연희극'과 유성오일장과 연계해 참여자들이 공연에서 맡게되는 '유성오일장'은 나는 사랑해 책 보러 간다는 배움을 통해 마을과 소통하며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김경연 관장은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통해 마을의 일원으로써 자발적으로 상 호소통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서비스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마을과 소통을 위한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사랑방 희망마을 작은도서관(070-8961-7279)로 문의한다.

코리야플라츠(http://www.kplac.com) 후원센터 및 자체포장지 | 저작권문의

(문의센터) 드림포커

금강일보

보명동 부엉이마을에 놀러오세요

유성구 희망마을작은도서관, 내일부터 '부엉이마을 골목골목 잔치 열렸네' 행사

2017년 11월 05일 (월) 16:19:44

신성훈 @ milkdragon@gilbo.com

대전 유성구 희망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경연)은 5일부터 한 달간 보명동과 구암동 일대 골목에서 한 해 동안의 문화예술활동의 성과를 일컫는 '부엉이마을 골목골목 잔치 열렸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마을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구암평생학습센터 1층에서 마을이마를 담은 '마을경쟁전시회'와 마을 재능기부자들이 일 년 동안 활동하며 모아 온 작품들로 마을어 린이들을 돕기 위한 '어린이기금마련 기부잔치'도 열린다. 모인 수익금은 어린이기금으로 생활예 정이며 지난해에는 마을어린이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마을의 어 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가로등에 나무부엉이와 캘리그라피, 천연염색으로 꾸민 잔치를 전시하는 '가 로등 전시회'가 열리며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로 꾸민 잔치 상자가 마을상점 등에 전시된다. '부엉이마 를 골목골목 잔치 열렸네'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기회를 마련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소속 감을 강화하고 주민들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김 관장은 "마을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모임 활성화를 지원하 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문명의 도서관 기능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진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훈 기자 milkdragon@gilbo.com

© 금강일보(http://www.gilb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문의센터) 드림포커

이용자 수

620,367명(누적)

559명(1일 평균)

이용자 만족도

93.6%